

HEALTH & WELFARE REVIEW

보건복지연구

Vol.6 No.1 / December 2021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ORIGINAL ARTICLE

- 5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교교육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원주시를 중심으로-**
 임 운
- 19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노인 인식에 관한 연구**
 이행옥
- 27 **여대생의 통과의례에 대한 모래놀이상담 사례연구**
 나정숙
- 45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김규리·김민주·김세연·김현지·왕서영·이지원·최선하
- 57 **MDGs와 SDGs를 통해 살펴본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황병수
- 67 **심미적 경험을 위한 유아음악수업 예비연구**
 김순주·김현정
- 83 **중고령자 장기요양돌봄의 이용자 중심 성과 비교를 위한 국제자료 탐색 연구**
: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 97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생활경험**
 김현성·박지수·송수연·박다은·최유희·구동훈·김현빈·손가은·강수진·박유정·최가영·
 김보미·이태린·김산·조유진·전하진·이상민·최주희·이희정·전재희
- 107 **이주민 사회통합의 이론적, 정책적 지형**
 김규찬
- 117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재형·김영현·박채희·배규리·서지인·전명훈·정지호·하수성·호혜진·이한나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교교육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 -원주시를 중심으로-

임 운(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학교교육, 학교생활 그리고 학교성적 등에 대한 만족도, 학령기에 따른 자녀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교육 어려움의 원인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다문화 실무자 협의를 통하여 설문지 완성하고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나, 자녀가 성장하고 학령기가 올라가면서 이해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교성적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과 학교성적에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학령기에 관계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을 꼽았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넷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 그리고 '한국어 지도' 등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대화'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녀교육의 어려움의 요인에 대하여 자녀의 학령기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만족도, 사교육, 자녀교육, 학령기

임 운: cloud@gwnu.ac.kr,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분야는 영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학교사회복지와 다문화교육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교원교육, 2017), "TOEIC 듣기평가에서 성취도에 따른 듣기전략별 남녀 대학생의 사용정도의 차이에 관하여"(교원교육, 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음향분석을 통한 발음지도"(한국문화사, 2013), "다문화 사회 교수방법론"(도서출판 신정, 2019) 등이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종교, 민족,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가고 있는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크게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고, 한국 사회·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아내가 외국인인 결혼건수는 1990년 초반에는 3,000여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0,719건으로 정점을 찍고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결혼건수가 2013년 18,307건, 2014년 16,152건, 2015년 14,677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5.6%(전체 결혼건수, 322,807건), 2014년 5.3%(전체 결혼건수, 305,507건), 2015년 4.8%(전체 결혼건수, 302,828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에서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결혼이주여성 이주는 3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 동안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운 점에 대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문제, 한국어 이해정도, 부부관계와 가정문제, 시부모와의 갈등관계, 사회적 가치관 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녀들이 출생, 성장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김갑성, 2006; 이재분 외, 2008).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교육상의 갈등, 즉 인성교육과 한국적 학습열에 의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차이에 따른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홍영숙, 2007).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은 것은 자신들의 사회적응이나 언어 문제가 아니라 자녀교육이라는 지적하였다(김갑성,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주변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자녀교육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설동훈 외, 2005; 이재분, 2008). 즉,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기간이 장기화되고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생활 그리고 권리문제 등을 넘어 가족과 자녀에게로 확장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도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세 미만이 9,103명, 6세 이상 11세 이하가 6,164명, 12세 이상 14세 미만이 1,777명, 15세 이상 17세 이하가 1,293명, 18세 이상이 1,5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6세 미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미취학 연령이고, 6세 이상 11세 이하는 초등학교,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중학교, 15세 이상 17세 이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령기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점, 결혼이주여성이 자녀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령기에 따라 겪는 문제점, 학령기에 따른 학교교육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 그리고 자녀의 사교육 실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학교교육, 학교성적 그리고 학교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 학령기에 따른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서비스 정책을 설정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자녀 학령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학교교육, 학교생활, 학교성적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는 자녀 학령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은 학령기에 관계없이 유사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의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 하더라도 도시 간 혹은 주거지역별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의 중요성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의 문제점으로 조영달 외(2010)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이들 가정 자녀의 경우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한국어능력의 미흡과 학습부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오성배(2005)는 결혼이주여성 가정 자녀들은 언어 학습과 정체성 형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에서 다른 한국인 부모의 자녀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언어학습과 정체성 형성 및 인관관계의 형성과정 상의 문제점은 정부와 학교의 준비 부족과 함께, 언어·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황범주(2008)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을 버리도록 요구받기도 하였으며, 일선학교에서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가족 자녀교육은 필요하다.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제적 인적 교류의 확대 등에 따라 우리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나고 자란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자녀들은 언어 사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렵고, 이러한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그대로 학력 격차로 이어져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선택의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적자원의 개발이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학부모와 자녀들은 다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전파하는 인적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범주, 2008; 주경란, 2009).

2.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문제점

홍영숙(2007)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언어장벽, 고학년 때는 학습장벽, 중학교에 들어서는 교우관계 장벽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어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이다.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능력 부족, 기초학습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입학 준비도 부족, 가정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전우홍,

2009). 둘째, 집단 따돌림 등의 정서적 충격 경험이다. 설동훈(2005)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다. 그들의 성격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34.1%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설동훈(2005)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3%로 한국 보통 가정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로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학부모들도 높은 교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이 많은 다문화가정의 경우라면 양육비용 문제가 자녀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으로 인해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은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어 학교교육에서도 주변으로 밀리게 된다.

Ⅲ. 연구방법 및 대상

1. 설문문항과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의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여 다문화교육전문가 2인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청복지담당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통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방법은 원주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공동체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연령별로 20대가 20명(10.8%), 30대가 84명(44.4%), 40대가 70명(37.0%) 그리고 50대가 15명(3.2%)로 나타나 30대와 4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기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6명(3.2%), 3년 이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수	분포(%)	전체
연령	20대		20	10.6	189
	30대		84	44.4	
	40대		70	37.0	
	50대		15	7.9	
결혼 기간	1년 ~ 3년		6	3.2	189
	3년 ~ 5년		44	23.3	
	5년 ~ 7년		31	16.4	
	7년 ~ 10년		36	19.0	
	10년 이상		72	38.1	
자녀 수	1명		105	55.6	189
	2명		82	43.4	
	3명 이상		2	1.1	
미취학 또는 취학 자녀수	미취학	없음	171	90.5	189
		1명	16	8.5	
		2명	2	1.1	
	유치원/어린이집	없음	96	50.8	189
		1명	93	49.2	
	초등학교	없음	126	66.7	189
1명		63	33.3		

내용		수	분포(%)	전체
중학교	없음	140	74.1	189
	1명	49	25.9	
고등학교	없음	135	71.4	189
	1명	54	28.6	
전체		189	100.0	

상 5년 미만이 44(23.3%), 5년 이상 7년 미만이 31명(16.4%), 7년 이상 10년 미만이 36명(19.0%) 그리고 10년 이상이 72명(38.1%)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2명(1.1%), 초등학교 졸업이 2명(1.1%), 중학교 졸업이 40명(21.2%), 고등학교 졸업이 95명(50.3%), 대학교 졸업이 50명(26.5%)로 나타나 설문조사 대상자의 76.8%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이 18명,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재학이 93명, 초등학교 재학이 63명, 중학교 재학이 49명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이 54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105명(22.6%) 그리고 2명 이상이 82명(43.4%)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 한국 가정의 자녀 비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의 한 달 생활비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52명(27.5%),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61명(32.3%),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60명(3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가 16명(8.5%)로 나타나 59.8%가 한달 평균 200만원 이하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기본적인 실태 분석을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가 산

출되었다.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지의 응답비율을 파악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처리는 SPSS 23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령기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결혼이주여성의 이해정도와 만족도

1) 학령기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자녀의 학령기에 따른 자녀교육의 이해정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자녀교육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8명(8.6%),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20명(21.5%), '그저 그렇다'에 47명(50.5%)이 응답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4명(6.4%),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4명(6.4%), '그저 그렇다'에 47명(74.6%)이 응답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6명(12.2%), '그저 그렇다'에 37명(75.5%)이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에 6명(11.1%), '그저 그렇

<표 2> 학령기에 따른 자녀교육 이해정도

	전혀 이해 못함	어느 정도 이해 못함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이해	매우 많이 이해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8(8.6%)	20(21.5%)	47(50.5%)	10(10.8)	8(8.6%)	93(100.0%)
초등학교	4(6.4%)	4(6.4%)	47(74.6%)	5(7.8%)	3(4.8%)	63(100.0%)
중학교	6(12.2%)	0(0.0%)	37(75.5%)	6(12.2%)	0(0.0%)	49(100.0%)
고등학교	6(11.1%)	0(0.0%)	30(55.6%)	15(22.8%)	3(5.5%)	54(100.0%)

다'에 30명(55.6%)이 응답하였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와 '매우 많이 이해하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는 18명(19.4%), 초등학교의 경우는 8명(12.6%), 중학교의 경우는 6명(12.2%), 고등학교의 경우는 18명(28.3%)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나, 한국생활이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집단별 평균비교를 해 보면 <표 3>과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에 이해평균은 고등학교가 3.17, 어린이집/유치원이 2.89, 초등학교가 2.98, 중학교가 2.8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만이 '그저 그렇다'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는 '그저 그렇다' 이하의 이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의 학령기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자녀의 학령기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가 31명(33.3%), '매우 만족스럽다'가 13명(14.0%)로 나타나 거의 47.3%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가 31명(49.3%), '매우 만족스럽다'가 15명(23.8%)로 나타나 거의 72.1%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와 '매우 만족스럽다'에 응답한 경우가 없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가 3명(5.5%), '매우 만족스럽다'가 6명(11.1%)로 나타나 16.6%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이상에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았

<표 3> 자녀교육의 이해정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유치원/어린이집	93	2.8925	1.00501	7.845**	.006
초등학교	63	2.9841	.77235		
중학교	49	2.8776	.78083		
고등학교	54	3.1667	.96642		

**=p<.01

<표 4> 학령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매우 불만족	어느 정도 불만족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0(0.0%)	20(21.5%)	29(31.2%)	31(33.3%)	13(14.0%)	93(100.0%)
초등학교	1(1.5%)	2(3.2%)	14(22.2%)	31(49.3%)	15(23.8%)	63(100.0%)
중학교	0(0.0%)	24(49.0%)	25(51.0%)	0(0.0%)	0(0.0%)	49(100.0%)
고등학교	0(0.0%)	21(38.9%)	24(44.4%)	3(5.5%)	6(11.1%)	54(100.0%)

〈표 5〉 학령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비교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유치원/어린이집	93	3.3978	.97957	15.284***	.000
초등학교	63	2.9841	.81304		
중학교	49	2.5102	.50508		
고등학교	54	2.8889	.94503		

***=p<.001

을 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자녀생활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에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퍼센트가 높은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와 〈표 3〉에 의하면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집단별 평균비교를 해 보면 〈표 5〉와 같다.

자녀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부모들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 학령기에 따른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 정도

자녀의 학령기에 따른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자녀 학령기에 따른 학교 성적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4명(6.4%),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25명(39.7%), ‘그저 그렇다’가 22명(34.9%)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에 대한 응답이 51명(81.0%)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9명(18.4%),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6명(32.6%), ‘그저 그렇다’가 24명(49.0%)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에 대한 응답이 49명(100.0%)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2명(22.2%),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2명(22.2%), ‘그저 그렇다’가 18명(33.4%)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에 대한 응답이 42명(77.8%)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12명(19.0%), 12명(22.0%)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의 학교성적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령기에 따른 학교성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	어느 정도 불만족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초등학교	4(6.4%)	25(39.7%)	22(34.9%)	12(19.0%)	0(0.0%)	63(100.0%)
중학교	9(18.4%)	16(32.6%)	24(49.0%)	0(0.0%)	0(0.0%)	49(100.0%)
고등학교	12(22.2%)	12(22.2%)	18(33.4%)	12(22.2%)	0(0.0%)	54(100.0%)

〈표 7〉 학교성적에 따른 집단별 만족도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초등학교	63	2.6667	.86136	3.548	.061
중학교	49	2.3061	.76931		
고등학교	54	2.5556	1.07575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만족 정도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집단별 평균비교를 해 보면 〈표 7〉과 같다.

자녀의 학교성적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평균 만족도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2.67, 중학교는 평균 2.31, 고등학교는 평균 2.56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교성적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성적도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에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의 충족도

결혼이주여성들은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가 12명(19.0%), '어느 정도 충분하지 못하다'가 21명(33.3%), '그저 그렇다'가 18명(28.7%)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51명(81%)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가 24명(49.0%), '어느 정도 충분하지 못하다'가 19명(38.8%), '그

저 그렇다'가 6명(12.2%)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49명(100.0%)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가 30명(55.5%), '어느 정도 충분하지 못하다'가 6명(11.1%), '그저 그렇다'가 18명(33.4%)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54명(100.0%)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령기에 관계없이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24명(49.0%), 30명(55.5%)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교육에 대한 자신들만의 대안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충분한가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집단별 평균비교를 해 보면 〈표 9〉와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구분 없이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평균이 각각 1.63, 1.7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보다 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상

〈표 8〉 학교교육에 대한 충족도

	전혀 불충분	어느 정도 불충분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초등학교	12(19.0%)	21(33.3%)	18(28.7%)	12(19.0%)	0(0.0%)	63(100.0%)
중학교	24(49.0%)	19(38.8%)	6(12.2%)	0(0.0%)	0(0.0%)	49(100.0%)
고등학교	30(55.5%)	6(11.1%)	18(33.4%)	0(0.0%)	0(0.0%)	54(100.0%)

〈표 9〉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비교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초등학교	63	2.4762	1.01373	3.729	.055
중학교	49	1.6327	.69803		
고등학교	54	1.7778	.92485		

대적으로 많이 시킬 가능성이 높다.

2. 학교생활과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

1)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자녀는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은 '기초학습의 부족'이 22명(34.9%),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16명(25.4%), '친구관계'가 10명(15.8%),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7명(11.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이 30명(61.4%),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7명(14.2%),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6명(12.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이 42명(77.8%), '친구관계'가 6명(11.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혹은 유아기 때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문장이해력의 부족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타 교과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가중하게 되면서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학령기가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감소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초등학교에서 16명(25.4%), 중학교에서 6명(12.2%)로 나타나고 고등학교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혹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이 초등학교에서 10명(15.8%)과 고등학교 6명(11.1%)로 나타나고 있어,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어 어려움을 겪지만, 중학교에서는 활발한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다시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2)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함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한국어 지도'가 28명(30.1%),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가 20명(21.5%),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가 13명(13.9%), '자녀와의 대화'가 8명(8.6%),

〈표 10〉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습 능력 부족	한국어 능력 부족	교우 관계	기타	전체
초등학교	16(25.4%)	22(34.9%)	7(11.1%)	10(15.8%)	8(12.7%)	63(100.0%)
중학교	6(12.2%)	30(61.4%)	7(14.2%)	0(0.0%)	6(12.2%)	49(100.0%)
고등학교	0(0.0%)	42(77.8%)	0(0.0%)	6(11.1%)	6(11.1%)	54(100.0%)

〈표 11〉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	한국어지도	교우 관계 지도	자녀와의 대화	기타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13(13.9%)	20(21.5%)	28(30.1%)	6(6.5%)	8(8.6%)	18(19.4%)	93(100.0%)
초등학교	13(20.6%)	20(31.7%)	10(15.9%)	2(3.2%)	8(12.7%)	10(15.9%)	63(100.0%)
중학교	7(14.3%)	6(12.2%)	0(0.0%)	0(0.0%)	30(61.3%)	6(12.2%)	49(100.0%)
고등학교	0(0.0%)	0(0.0%)	0(0.0%)	18(33.3%)	36(66.7%)	0(0.0%)	54(100.0%)

‘친구관계’가 6명(6.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가 20명(31.7%),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가 13명(20.6%), ‘한국어 지도’가 10명(15.9%), ‘자녀와의 대화’가 8명(12.7%), ‘친구관계’가 2명(3.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와의 대화’가 30명(61.3%),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가 7명(14.3%),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가 6명(12.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와의 대화’가 36명(66.7%), ‘친구관계’가 18명(33.3%)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느끼는 것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경우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 그리고 ‘한국어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이 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자녀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 36명(38.6%), ‘경제적 어려움’이 28명(30.1%),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24명(25.7%),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8명(8.6%)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27명(42.8%), ‘자녀 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 26명(41.3%), ‘경제적 어려움’이 8명(12.7%),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2명(3.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19명(38.8%),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 각각 12명(24.5%),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6명(12.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 24명(44.4%), ‘경제적 어려움’이 (33.4%),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각각 6명(11.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12〉 자녀교육이 어려운 이유

	자녀교육에 대해 모름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자녀 학교생활의 어려움	전체
유치원/어린이집	36(38.6%)	24(25.7%)	28(30.1%)	8(8.6%)	93(100.0%)
초등학교	26(41.3%)	27(42.8%)	8(12.7%)	2(3.2%)	63(100.0%)
중학교	12(24.5%)	19(38.8%)	12(24.5%)	6(12.2%)	49(100.0%)
고등학교	24(44.4%)	6(11.1%)	18(33.4%)	6(11.1%)	54(100.0%)

자녀의 학령기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감소하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령기가 올라가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경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가상해 볼 수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학교교육과 학교성적 등에 대한 만족도, 학령기에 따른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교성적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나, 자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과 학교성적에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교육만으로 자녀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학령기에 관계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을 꼽았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는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넷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숙제 및 기초학습 지도', '알림장 및 준비물 챙기기' 그리고 '한국어 지도' 등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혹은 유아기 때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문장이해력의 부족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타 교과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가중하게 되면서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학령기가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학령기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감소하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령기가 올라가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경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가상해 볼 수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자녀교육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취학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아동의 학습능력에 맞는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단위에서 아동의 학교적응과 친구관계 등을 지원할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학령기 모든 단위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올바른 바람직한 자녀교육 부모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학교단위에서 부모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적인 부모 상담서비스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학교교육, 학교생활, 학교성적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가 낮고, 사교육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오성배 (2005). 한국사회의 소소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연구*, 16(4), 137-157.
- 이재분 외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우홍 (2009). 한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2 (2), 125-148.
- 조영달 외 (2010). 학교 다문화교육의 실태분석. *시민교육연구*, 42(1), 151-184.
- 주경란 (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범주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 Survey on Satisfaction Level of Intermarriage Immigration Women about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nd Education

Lim, Un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s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understanding level on children's education, satisfaction level on children's school life, school education and school records, and difficulties of children's education according to school age. Through discussion with multi-cultural specialists, questionnaires were mad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89 intermarriage immigration women who are living in Wonju.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First, intermarriage immigration women had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hildren's education but their understanding level improved according to children's school age. Second, they were satisfied with children's school life and school record when their children's school ages were kindergarten/Nursery and elementary school, but they were not satisfied when children's school age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Third, irregardless of school ages they thought that public school education was not enough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Forth, irregardless of school ages, they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of school life because of lack of learning ability. Fifth, they had som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on children's education. Lastly, they pointed out the reasons of difficulties in children's education were the ignorance on children's education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children's education.

Key Words: Children's education, Intermarriage immigration women, Private education, Satisfaction level, School age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노인 인식에 관한 연구

이행옥(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문초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노인에 관한 교육은 대학생이 형성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대학생들 자신의 미래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핵심 용어: 인식, 노인, 교육

I.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7년 14%에 도달하였고, 2030년에는 21%를 넘어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8). 고령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령화지수를 상승시키며, 가족과 국가의 노인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증가 변화가 가속화 되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관적이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노인을 차별대우 하는 사회적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이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적 이념 및 행위를 연령차별주의(Ageism)라 한다.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의 한 형태로,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두산백과). 따라서 고령화를 정신적, 육체적 쇠약과 연결 짓는 사회적 규범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노인을 소외시킨다. 노인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른 노인들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인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즉 노인의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며, 노인의 자립할 능력이 부정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연령차별주의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변수이다(Devine, 1989; 이지연 외, 2017

이행옥: holee1@gwnu.ac.k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가족 및 노년학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노년기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2002), "노년 기부부의 정서적 상호작용유형에 관한 연구"(Information, 2016) 등이 있다.

재인용).

최근 연령에 대한 차별주의로 노키즈존,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등이 등장하여 특정집단의 출입을 막는 장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중앙일보, 2021).

고령화는 그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자연스런 변화이므로 고령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결정된다. 따라서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성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해지고,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인기 초기 대학생 대상의 노인 인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들의 현재 노인에 대한 인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여, 노인에 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노인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서병숙, 김수현(1999)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이미지 항목을 요인 분석하여, 활동·자립성, 행복성, 온화성, 협조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대학생의 일반적 노인의 이미지는 비활력적, 수동적, 약한, 한가해보임, 의존적, 조그마한, 비생산적, 저속한, 불만족, 무능한, 빈약한, 비관적, 탐욕스러운, 좁은, 소원한, 폐쇄적, 느린, 보수적, 고집 센, 정적, 회색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이 되어,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지속된다는 이선자(1989: 서병숙 외, 1999 재인용)의 연구결과도 있다.

노년기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노년기의 감정적 무활동과 감정적 경험의 회피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였지만, 나이든 사람도 주관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감정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존재하고 현저하게 성장한다는 시각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Carstensen(199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년기 적응에 필요한 사람들만을 선택한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또한 죽음이 임박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서의 정서적 관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적 친밀감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미정, 심정신(201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주거지와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인식도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본 경험과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용, 윤미선 (201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차별의식은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 영향 요인은 효의식과 노인지식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에 관한 새로운 개념: 노년기와 제3기 인생

라스렛(1989)은 노년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이라고 하였으며, 자기성취(personal achievement)를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주장하였다. 또 새들러(2000)는 중년기와 노년기까지를 포함한 시기를 제3기 인생이라 하고, 제2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제3기 인생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새들러(2000)는 '제3기 인생: 40세 이후의 성장과 쇠신을 위한 6원칙'이라는 저서에서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을 40대 이후의 30년 이상으로 정의

하고 있다.

제3기 인생의 과업은 창의력을 활용하여 생활을 쇄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활기차고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아가고, 잠재력을 찾아내서 개발한다면, 노화의 과정을 새로운 성장의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Sadler, 2000; 김경숙, 2006 재인용).

제2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6가지 원칙에는 습관적 생활 재검토와 생활변화의 위험 감수, 현실적 낙관주의 태도 개발, 긍정적 제3기 인생의 정체성 확립, 일에 대한 재정의와 일과 여가의 조화, 개인적 자유와 친밀감의 조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생활태도 조성이 있다(Sadler, 2000; 김경숙, 2006 재인용).

2) 라스렛의 인생주기론

영국의 라스렛(1989년)은 '신선한 인생지도: 제3기 인생의 출현'이라는 저서에서 '제3기 인생'의 정의를 내렸다.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은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로 자기성취(personal achievement)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시기이다. 자기성취는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인생을 상당히 경험해 보고, 자기 적성도 충분히 파악하여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계획하여 살아볼 수 있는 시기이다. (Laslett, 1989; 최성재, 2012 재인용).

3. 연구방법

노인복지론 수업을 수강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노인이미지와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사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4일부터 7월 20일 까지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결과

1) 가

노인들은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일자리

〈사진1〉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및 사회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평균 연령이 증가하였다. 국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최고령자 나이가 10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나이가 들기 전까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을 텐데 노인이 되어서도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최고령자 나이가 109세 라는 내용을 보고 '최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적인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복지와 지원이 부족하여 생계에 위협을 느껴 최고령의 나이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노후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면 일자리가 아닌 예술, 스포츠 등의 다른 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그 전에 노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나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서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외롭고 고된 삶에 지친 할아버지'는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지만, 슬하에 두 아들은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이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사진2〉 무관심의 그늘 아래 갈 곳 없는 노인



“현재의 노인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노년기에 진입한 후 자녀와의 단절,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와 디지털의 발달 등으로 뒤처지고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실사진 출처의 기사를 보면 10명 중 1명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노년기에 진입한 현재의 노인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신체적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도 다소 낮다고 생각했어요. 또 젊은 세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어 홀로 있고, 어깨가 굽어 쓸쓸해 보이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독거노인이 겪는 안타까운 사연

〈사진3〉 노인에게 놀이터 뺏긴 아이들



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쓸쓸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만 해도, 가족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가족과 연을 끊고, 홀로 사셨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신 슬픈 일이 있었어요. 외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외할아버지와는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많아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을 드려 자주 찾아뵈었다면, 어땠을까 너무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드네요. 더 이상 이런 슬픈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복지 시스템의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노인에게 놀이터를 뺏긴 아이들’을 보고 사회가 뒤늦게 반성을 하며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밖에 나가다보면 아이들이 아닌 노인들이 놀이터와 운동기구에 훨씬 많이 계시는 걸 볼 수 있다. 점점 더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갈 곳을 잃은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갈 노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공원은 모두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어느 세대에 치우쳐 ‘부족함’이 발생하면 앞선 사례처럼 크고 작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의식 개선과 더불어 그간의 시행착오 끝에 내려진 새 조치가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원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김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2)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노인의 상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은 정부의 탄탄한 육아 제도 덕분에 손주 봐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풍족한 연금과 각종 복지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아 금전적 걱정, 시간 걱정 없이 친구를 사귀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습의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사진4〉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



“이 사진처럼 나의 노후생활은 돈 걱정, 시간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사는 모습이고 싶다. 하지만 은퇴 후 생계나 외부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 은퇴 전 긴 시간동안 생계유지와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왔으니, 은퇴 후에는 걱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노후생활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다른 복지국가의 모습을 충분히 관찰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돈이 많은 적든, 은퇴 후 남은 인생을 걱정에서 벗어나 하고 싶었던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대한 복지가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젊은 시절에 사진 속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그 동안의 노고를 보상해주는 든든한 연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통해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처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려면, 많은 세금이 필요할 텐데, 세금을 얼마나 내든지 간에 북유럽 국가들처럼 복지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찬성이예요.” (서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사진5〉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며, 행복한 노부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노부부’는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출가시켜 놓고, 넉넉한 연금 덕분에, 금전적 걱정 없이, 일생의 회로애락을 함께 지내온 배우자와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져 인상 깊었다. 참여자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결혼 생활의 황혼기에 노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고, 저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훗날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결혼 전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까지 차근차근하여 자녀를 모두 독립시키고 은퇴를 한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고 소득적인 부분에서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사진을 선택했어요. 노후에는 자식보다는 나와 배우자에게 좀 더 집중하여 자녀 양육시기에 소홀해졌던 감정적인 교류 등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 남은 생을 둘만의 추억을 쌓으며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싶어요.”(문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사진6〉 중년도 노년도 아닌 멋쟁이 60대



중년도 노년도 아닌 멋쟁이 60대'는 패션에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인이 세계적인 패션 디렉터로 성공한 한 노인의 사진이다. 뉴 식스티(New Sixty) 시장이라 부르는 트렌트를 따라가는 노인으로, 내가 되고 싶은 노인의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고 참여자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1년만 지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니 2년도 아닌 20년이라면 정말 길고,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날의 60대는 바로 그런 나이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중년도 노년도 아닌 특별 지대인 셈이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60대가 등장했다. 나이를 잊은 60대의 변신, 멋쟁이로 거듭나는 ‘뉴 식스티(New Sixty)’를 주목하며, 60대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내려놓고, 소비 세력으로 급부상한 60대의 실체가 보였다.”(김OO) 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사진 출처〉

- <https://blog.hyosung.com/3669>
- <https://m.newspim.com/news/view/20180922000038>
- <http://m.segye.com/view/20170822001680>
- <https://ppss.kr/archives/48609>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0598.html

<https://www.h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4>

III. 결론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노인에 관한 교육은 대학생이 형성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노인에 긍정적 방향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가지고 있는 노인이미지로 최종 선택한 사진은 〈사진1-3〉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무관심의 그늘 아래 갈 곳 없는 노인, 노인에게 놀이터 뺏긴 아이들이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노인이미지로 최종 선택한 사진은 〈사진4-6〉으로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며, 행복한 노부부, 중년도 노년도 아닌 멋쟁이 60대를 선택하였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이 되어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지속(이선자, 1989: 서병숙 외, 1999 재인용)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상 노년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노년학 연구에서는 노화의 부정적 측면, 즉 생물적 노쇠, 심리적 무기력, 질병과 장애, 사회적 의존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긍정적 측면, 즉 성공적 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권중돈, 2019). 따라서 성공적 노화는 Rowe와 Kahn(1998)의 노화수준 구분에서 최적의 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미혜 신경림, 2005). 이러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개념을 대학

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복지론 수업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간발달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주의(Ageism)에서 벗어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 관한 교육은 대학생이 형성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성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노인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전과 이후의 구체적 변화 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신경림(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2)집: 35-52.

김승용, 윤미선 (2018). “대학생의 노인 차별의식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11)집: 369-378.

서병수, 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제19(2)집: 97-111.

이지연, 한경혜 (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51(2)집: 1-30.

최미정, 심정신 (2014).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2)집: 299-306.

김경숙 (역)(2006),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사이.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최성재(2012), 『고령화 사회: 선진국의 경험과 한국의 정책방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중앙일보, 2021,12,2

통계청 <https://kosis.kr>

Carstensen, L. L., Gottman, J. M., & Levensen, R. W.(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 140-149.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Hangok Lee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s aging progressed, old age became longer and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lderly and to seek directions to form positive perceptions of the elderly.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was negative. While taking education on the elderly,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changed positively. In other words, education for the elderly had an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formed by college students and brought positive change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future elderly. It can be said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their early adulthood determines their attitude toward old 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ized program that provides education for the formation of a positive image of old age for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Key words: Perception, The elderly, Education

여대생의 통과의례에 대한 모래놀이상담 사례연구

나정숙(강릉원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불안하고 미성숙한 만22세 여대생의 모래놀이상담 사례연구이다. 내담자의 심리적 인 과제는 불행한 과거의 상처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모성애착의 분리 및 자아정체성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한 후, 통과의례 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모래놀이를 실시하였다. 상담은 6개월간 주 1회(50분), 1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래놀이 진행시, 연구자는 내담자가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에서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 하도록 하였고, 자기와 직면하는 여정도 함께 하였다. 전체 여정을 살펴본 결과, 내담자의 모래놀이상담자는 성년식의 일반 적 과정인 분리, 전환, 통합의 통과의례 단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경험해야하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결과 내적 혼란과 불안을 해결하여 현실세계에 적응하고, 여성성자아도 강화되어 새로운 에너지로 통과의례를 하고, 아무것도 만나 통합되었다.

주제어: 통과의례, 모래놀이, 여대생

I. 서론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심리적 유예기 (Psychological moratorium)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시기를 의미한다(Erikson, 1950). 용도 청년기는 생리적 변화가 정신적 혁명을 가져오는 시기로 '정신적 출생' 이라고 부른다. 인생의 전반기로 출생에서 시작해서 아동기, 청년기를 거쳐 대체로 35세 정도에 끝나는 시기로,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를

외부세계에 쏟는 시기이다(박정옥, 2014: Hall, Calvin S., Nordby, Vernon J, 2004). 이처럼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Erikson (1968)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정체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성인기로 갈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년기인 대학생은 졸업 후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격적으로 성인 초기이므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으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

나정숙: sookjung@gwnu.ac.kr,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유아교육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유아미술, 유아발달심리, 미술치료 및 모래놀이치료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페가수스 상징에 관한 의미 연구"(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2021), "개미 프로젝트 활동에서 나타난 혼합연령 유아들의 지식형성 과정에 관한 의미 연구"(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20), "한국화와 서양화의 비교감상활동에 따른 유아의 미적 반응과 그림변화에 관한 연구"(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0) 등이 있으며, 저서는 "영유아발달"(문음사, 2019),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과학교육"(문음사, 2016) 등이 있다.

할을 시작한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실패한 경우는 고립감을 지니며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나정숙, 2019). 또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한 내담자는 심리적인 재구조화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숙한 여성에서 성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통과의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통과의례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고자 할 때 성인여성은 모성 원형과 분리를 하고 자아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런 후 이 시기의 통과의례는 성인식이다(김보애, 2008; 이진숙, 2016). 프랑스의 민속학자인 반 겐넵(Arnold van Gennep, 1873~1959)에 따르면,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란 개인의 '인생위기(life crises)에 수반되는 의식(儀式)'이다. 즉, 출생과 성장, 사춘기, 결혼, 임신 및 출산, 장례 등 일련의 인생 사건들과 낯선 영역을 지나는 것이나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는 것 등의 커다란 변화에서 혼란을 완충하여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 목적에 따라 의식의 종류는 달라도, 모든 통과의례는 '분리(separation)-전환(transition)-통합(incorpor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하였다(손창선, 2007). 첫째, 분리단계는 이전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 속에 뒤섞여있는 것을 버리고 구별하는 정화작업이 요구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성인식에서는 초입자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아동기와의 분리를 시도하거나, 혹은 신성한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는 행진, 사제에 의한 학살, 부활의 재생 의례가 행해지는데, 이는 위대한 정신적 의미를 가진 변환의 신비이다(Jung, 2004). 이처럼 시간의 경과와 장소의 이어져 오던 묶은 생활양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죽음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둘째, 전환단계는 변환의 과정으로 죽음을 전제로 한다. 심리학적으로, 죽음은 낡은 자아의 희생을 의미하며 낡은 자아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갖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됨을 말한다(이부영, 1997).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전의 상태는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의 두려움과 혼란을 완화시켜 다시 집단에 통합하게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단계는 삶과 죽음의 모티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재생 과정으로 개인이 일정한 관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나 상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이다(Gennep, 190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래놀이상담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다른 사람의 방해, 판단 및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보호된 공간에서 무의식과 의식을 표출할 수 있다(이진숙, 2016; Kalf, 2003). Homeyer와 Sweeney(1998)도 모래놀이의 독특한 감각적 속성이 과거의 고통을 재 경험하거나 깊은 정서를 체험하여 참여자가 자기치유력을 발휘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전체성을 찾는다고 하였다. Boik와 Goodwin(2000)은 모래놀이는 내담자 자신의 내면과 외부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이미지로 인식하고 자신을 객관화하여 검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는 내담자가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여 내적 체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집단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김보애, 2004; 윤미이, 2017). 이는 내담자가 무의식의 자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모래놀이 작업으로, 미성숙하고 불안한 성인여성이 고유한 자신만의 영역으로 퇴행하여 자신의 이해력을 확장하고 직면하여 의식화를 함으로써, 내적으로 성장하고 치유가 된 것이다.

본 연구의 심리적 과제는 무의식에 들어가 상처와 부정 콤플렉스를 극복하며 태모원형을 죽이고, 모성과 분리되어 자신의 남성(아니무스)을 찾아가며 외향화 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성인이 되는 것으로, 자아강화와 통과이례가 중요하다. Von Franz는 청년기에 통과이례를 못한 성인은 영원한 젊은이로 살며 우울, 알코올, 도박 중독 등의 문제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시절의 내적 혼란과 부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성의 자아를 강화한 여대생이 통과이례의 분리-전이-통합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통과 죽음을 통한 재생으로 성숙되어 가는 모래놀이상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내담자의 친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단절되었다. 가끔 연락이 일방적으로 오지만, 내담자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어머니에게 가한 가정폭력을 목격함)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계부는 4년 전부터 엄마와 만났고, 21년 9월부터 합가하여 가족 4명이 함께 살 예정이다. 운송 사업가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내담자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챙겨주며, 엄마와의 주말여행 후 먹을 것도 사준다. 모는 이혼 후 가족 생계를 위해 캐디 직업을 가졌다. 내담자는 엄마와 둘이 화목하게 살며, 친구처럼 지내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싸우고 금방 화해한다. 엄마는 재혼할 계부와는 매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고, 4명(엄마와 본인, 계부와 아들)은 가족처럼 함께 식사하고 근처카페에서 차를 자주 마신다. 계부 아들인 남동생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만나면 장난도 치고, 외향적이어서 교우관계가 좋다. 내담자와 6살 차이로 잘 따르고, 여자 친구도 있다.

내담자의 발달력을 보면, 주 양육자는 엄마이고, 영유아기 때 용인에서 2.8kg로 태어나 젖떼기가 힘들었고, 늦게(3~4살)까지 모유 수유했고 이유식도 잘 먹었다. 2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약 3개월간 외할머니 댁에 갔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용인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친구관계가 좋았다.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 4학년 때, △△에 있는 할머니와 1년 살게 되어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 갔다. 친구들이 전학 온 나를 괴롭히고, 남자 담임도 무서운 인상이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 안가고 횡성 시장에 갔다. 엄마도 돈을 벌어야 해서 자주 못 봤다. 마음이 안 좋아 공중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5학년 초 때, 엄마와 함께 00에 이사하여 □□초등학교로 전학 왔고, 전학 온 첫날 중이염으로 귀에서 고름이 나온 걸 본 여자 친구가 놀려서 왕따 당했다. 6학년 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에 중이염 수술로 인공 고막을 해서 지금은 완치됐다. 중고등학교

교는 00에서 다녔고,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중학교 때는 학생부에 불려가 친구들과 불화(친한 친구 3명과 잘 지내다가 본인이 먼저 왕따 당하기 싫어서 1명을 왕따 시킴)가 있어 1~2년 정도 관계가 좋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는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했다. 전공은 아이들이 예쁘고 적성이 잘 맞는다. 현재 만22세인 내담자는 대학교 친구도 2~3명 있어서 자주 만나고 있다. 식욕은 양이 많고, 취미는 노래 감상 및 영화감상이다. 가장 힘든 일은 갑자기 힘들었던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 것이다. 주 호소는 외동딸인 내담자가 엄마의 재혼으로 남동생과 아빠가 생기는 가정 변화의 적응과 대학졸업 후의 취업을 걱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유아교육전공자로, 박사학위와 모래놀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에게 모래놀이 관련 교과목의 이론과 실제를 여러 학기에 걸쳐 강의를 담당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사례가 연구에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였다.

2. 상담목표

내담자는 어린 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생긴 이혼의 상처로 인해,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자아가 약하고 미성숙한 여대생 같이 보인다. 내담자의 상담목표는 어린 시절 불행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모성과의 애착을 분리하고 부정적인 부성과 모성 콤플렉스를 해결한 후, 약한 여성성의 자아를 강화하여 아니무스 만남을 통한 통과의례(initiation)를 경험하면서 미성숙한 대학생에서 성인여성으로 성숙하여 현실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내담자와의 초기면접과 심리검사(HTP와 KFD)를 진행한 후, 2021년 6월 16일부터~2021년 11월 3일까지 주1회씩 실시하였다. 회기 당 소요시간은 50분이었으며, 매 회기 약 3분 동안 명상하고, 모래도 손으로 만지고 촉감을 느낀 후 모래놀이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매 회기 각 사례별로 스토리와 특징적인 정서 및

행동의 변화도 기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모래놀이 활동 후의 모래놀이 작품은 사진을 촬영하여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리검사는 본 대학센터의 임상심리사와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상담세션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전체 모래놀이 회기에 대해 ISST 티칭멤버인 슈퍼바이저 2인으로부터 각 사례들의 슈퍼비전을 받았다.

III. 연구결과

본 사례의 모래놀이상담 과정은 성년식의 분리, 전이, 통합의 통과의례단계 안에서 고통-죽음-재생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전체 여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모래놀이 과정에서의 내담자의 표현과 본 연구자의 표현분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분리 단계 : 혼돈과 갈등, 고통(1회)

1회기 : 소녀의 외딴 섬 <사진 1>

내담자는 잠시 명상한 후, 모래를 두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를 쳐다본다. 소녀는 외딴 섬에 살아요. 소녀는 굴뚝이 두 개고, 바다가 탁 트여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집에 산다. 소녀는 바다를 보러 집 밖으로 나와 파란 투명 구슬을 지나 다리를 건너가요. 다리를 건너, 파란 투명 구슬을 지나면 바다가 보여요. 소녀는 파란 투명구슬 앞에 있는 바다의 깊은 곳을 보며 과거를 상상한다. 자신이 옛날에 빠졌던 바다의 깊은 곳을 생각하며 바라보다가 저 멀리 보이는 빨간 등대를 바라본다. 그러다 해변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을 본다. 해변에는 모래에 박혀 있는 큰 조약돌과 파란 투명구슬이 있고, 파라솔 여러 개와 파라솔 옆 사람들이 먹으려고 놓은 와인과 과일 담겨져 있는 쟁반, 산산 조각나 모래와 섞여 있는 조개 조각들이 있다. 바다 위에는 튜브가 뚱뚱 떠다닌다. 큰 조약돌 위에는 핑크슬리퍼를 신은 여자의 신발이 놓여 있고, 여자는 바다에 떠있는 빨간 튜브에서 논다. 빨간 파라솔 밑 파란슬리퍼는 파라솔 아래에서 쉬고 있는 남자의 슬리퍼이며, 슬리퍼를 벗고 잠을 청한다. 바다 입구는 무지개 터널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다 속에는 사람들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연두색 구슬로 만든 선이 있고, 소녀는 선 밖의 깊은 물에 빠진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표현분석 : 1회기는 소녀가 먼저 일상에서 떠나는 분리 과정을 겪고 있다. 소녀의 일상인 고립된 외딴 섬의 집을 떠나 다리를 건너 바다(무의식)로 들어가는 통과(의)례이고, 이는 현실과는 다른 가치의 경험을 하는 분리된 영역이다. 소녀는 어린 과거를 회상한다. 하지만 모래상자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 울타리인 경계선과 물위의 튜브는 불안함을 나타낸다. 돌 위의 분홍 슬리퍼는 앞으로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하며, 파란 슬리퍼는 아니무스를 만나는 것을 나타낸다. 과일과 술은 에너지가 부족한 소녀를 위한 에너지원이며, 소녀의 정신 세계는 산산 조각난 조개 조각처럼 파편화된 것 같다. 이와 같이 첫 상자는 내담자의 현재 내적 상태(standpoint)를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심리 치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Kalff, 2003).

2. 전환 단계 : 죽음(2회-9회)

2회기부터 9회기는 전환단계로 죽음은 낯은 자아의 희생 의미를 하며, 낯은 자아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가진 새로운 인격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진다(이부영, 1997).

2회기 : 사연이 담긴 다리 <사진 2>

삼과 연장이 많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다리가 있다. 이곳은 바다를 지나가는 지름길이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져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다 남자사람과 여자사람이 나타난다. 둘은 지름길로 바다를 가기 위해 지나가고 있다. 남자사람은 지름길이라서 왔지만 여자사람은 원래 이곳이 무서워 돌아서 가는 길로 항상 가다가 남자사람이 혼자가자 쫓아온 것이다. 이 다리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 다양한 쓰레기(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 가위)가 널려져있다. 다리 가운데에는 죽은 사람의 신발과 옆에는 사람들이 놓고 간 흰 꽃들이 놓여 있다. 흰 꽃은 거의 시들어 가고 있다.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은 다리를 건너

무지개 터널로 향하며 바다로 간다.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을 표현했다. 삼, 연장, 가위는 공사 하던 인부가 놓고 갔다. 원래 공사를 하다가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사를 중지했다. 사람이 안 오고, 점차 쓰레기가 쌓이고 사람들도 안 왔다. 남자는 중학생인데 거침없고 겁이 없어서 이 길로 갔다. 일행이 있었는데 다른 길로 갔고 남자가 지름길인 이 길로 왔다. 겁이 많고 무서움이 있는 여자는 남자가 혼자 가니까 따라갔다. 둘은 원래 친구 사이이다. 중간쯤에 죽은 신발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옆으로 피해서 갔다. 연장을 보고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고, 지나가다 본 신발과 꽃을 보고 그리운 느낌이 떠오른다. 이유는 죽은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큰 나뭇가지와 솔방울은 다리를 표현했다. 작은 나뭇가지와 돌맹이는 쓰레기이다.

표현분석 : 2회기부터 소녀는 바로 무의식으로 하강하여 내면작업에 들어가서 그림자의 정화작업을 하므로 전환단계의 시작이 되고 있다. 사연은 트라우마를 나타내며, 내담자는 쓰레기부터 치우는, 즉 그림자 정화작업부터 하는 것이 보이며, 이는 정신세계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솔방울 안에 씨가 있어서 잠재성이 있지만, 소나무에서 썩어서 떨어진 것으로 약간 그림자적 이다. 소녀는 자신의 내면을 탐방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서 무지개터널을 통과하여 무의식인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안가는 사연이 담긴 다리로 가서 죽은 사람인 자신의 모습과 쓰레기 더미인 그림자를 직면한다. 삼과 연장이 많은 것은 내담자가 단호한 남성적 태도와 자원이 많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공간배치는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분한 이분할이 정상이나, 공간배치는 삼분할로 내담자의 힘든 내면 상태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내담자는 자아가 두려워서 아니무스(남자 친구)의 도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3회기 : 비밀의 화원 <사진 3>

인적이 드문 숲 속이 있다. 숲 속에는 건너가는 잔디와 오른쪽 나무들 사이에는 흰 울타리가 쳐져있는 것이 보인다. 건너가는 잔디를 지나면 가족 사이인 토끼 두 명과 고

슴도치 두 명이 빨간 체크 의자에 앉아 등근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의 차를 마시며 평화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티타임을 즐기고 있다. 울타리 안쪽에는 오리들과 병아리, 수탉이 있다. 수탉은 친구사이인 이들을 보호하려고 바깥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인적이 원래 드문 곳인데 갑작스레 사람(토끼, 고슴도치)이 나타나 경계를 했다. 수탉은 저들을 '우리에게 관심이 없네'라고 생각했다. 조금은 안심되어 푸드득거리고 신나게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하였다. 왼쪽 호수에는 흰 백조 두 마리가 우아하게 헤엄을 치고 있다. 백조들이 있는 호수에는 큰 노란 꽃과 보라색 꽃들이 만개하였고, 작은 핑크 꽃과 빨간 꽃이 예쁘게 피어나 있다. 호수 밑에 모래가 가라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모래를 뿌렸다. 여자 백조가 예쁘게 날개를 퍼자 남자 백조가 바라보았다. 둘은 연인관계는 아니고 그냥 친구였다. 꽃들은 백조들 있는 곳에는 우아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화려한 꽃들을 호수 옆에 두었다. 그러자 아름답게 느껴졌다. 나무는 숲길을 만들고 싶어서 놓았다. 나는 나무의 특유의 향과 자연의 냄새가 좋아 나무를 보니 싱그럽게 느껴졌다. 잔디를 밟고 가다보면 작은 바스락거리는 풀 소리가 느껴진다. 기분은 상쾌하고 좋았다.

표현분석 : 3회기도 인간이 나타나지 않고, 실바니안인 형이 등장하여서 엄마 뱃속 상태의 태아처럼 보이고, 대지모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나무 건너서 잔디를 지나서 무의식의 통과의를 볼 수 있다. 상자 위쪽 모서리에 위치한 큰 추리 나무의 남근측면이 있고, 추리 나무의 차가운 정서와 왼쪽 하단의 꽃들처럼 긍정적 정서를 내담자가 같이 지닌 것을 볼 수 있다. 닭은 앞으로 의식화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토끼와 고슴도치는 내담자 안의 동물적 본능으로 이런 본능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다. 동물이 들쭉 쌍둥이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모성분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연못의 네모모양에서 내담자의 경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4회기 : 한여름의 추억 <사진 4>

코로나 전에는 외갓집 가족들과 계곡에 자주 놀러가서 엄청 신났다. 하얀 옷과 노란 옷을 자주 입으셔서 외할머니

나는 하얀 오리 캐릭터로 놓았다. 외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며 “많이 잡아와”라고 우리에게 말하신다. 엄마(분홍색), 나(흰색), 사촌오빠(노랑 검은머리), 사촌언니(주황 검은머리), 작은 외삼촌(파랑)이 함께 계곡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다슬기를 잡고 있다. 매사 열정적인 외삼촌이 제일 많이 잡았다. 우리끼리 잡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오늘 다 같이 많이 잡았네.”라며 다 같이 잡은 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나도 열심히 빨간색 통을 이용하여 잡으면서 성취감이 느껴졌다. 외숙모(빨간 치마토끼)는 우리를 위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다슬기 잡기를 마치고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여 고기도 구워 먹었다. 빈 의자는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놓았다. 신발은 외숙모, 외삼촌의 것이다. 음식으로 고기, 닭백숙, 계곡에 담긴 물, 수박 등이 있었다.

표현분석 : 내담자는 어린 시절로 퇴행하여, 대지모의 품속으로 들어가 한여름의 추억으로 다슬기 잡는 무의식의 체험을 하는 것 같다. 모성인 외가 쪽으로 의식화하며, 외할머니가 바라보고 지켜볼도 모성적 측면으로 보인다. 계곡(자연)에서 놀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본능을 살리고, 무의식의 활성화로 치유가 올라온다. 잡은 다슬기로 에너지원인 음식을 같이 먹고 자아를 강화하는 것 같다. 모래위에 손금으로 표현한 것을 바위라고 하지만 아직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화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놀이는 창조성이 내재화되어서 창조적이지만, 캐릭터가 유아적이다. 돌이 많아 트라우마를 나타내며, 공간배치도 삼분할로 내담자의 답답하고 꽉 막힌 힘든 내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5회 : 세 가지의 상징 <사진 5>

왼손을 펴서 모래를 쓰다듬다가 푹푹 눌러가며 다진 후, 어느 큰 모래 산을 만들고, 모래 산 가운데에는 세 개 점도의 기둥을 둔다. 세 개의 기둥은 각각 목표(보라), 방해물(초록), 욕구(핑크)를 상징한다. 모래 산에는 정상에 도달한 자와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 중 나는 바닥에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모래 산 주위에는 나의 욕구가 놓여있다. 침대는 내가 쉬고 싶은 욕구, 노래

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하고 싶고 그리고 듣고 싶은 욕구, 파라솔과 슬리퍼는 여름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 여러 음식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거울과 화장품은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구, 화분은 예쁜 꽃 하나를 가꾸고 싶은 욕구,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욕구, 노트북은 재밌게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요. 모래 산에 있는 여러 돌맹이 구슬은 목표지점을 향한 여러 방해물들을 뜻해요. 처음엔 모래성 쌓고 가져가는 놀이가 생각났는데, 만들다 보니 모래 산 같고 단계별로 목표 지점을 향하는 과정이어서 나의 욕구나 생각이 다 드러난 것 같다. 가장 강한 것은 침대와 휴식 욕구이다. 안 바쁘지만 지금 많이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욕구는 바닷가에 휴가가고 싶은 욕구이다. 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친구들이다. 분홍색 방해물이 걱정인데, 취업이 걱정된다. 그 이유는 실습지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은 뛰어난데,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정상에 도달한 자는 기둥에 기대어 쉬면서 다른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고, 기둥에 거의 다 온 친구들은 잠시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다. 그 밖에 중간 지점에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표현분석 : 내담자는 퇴행해서 결핍된 것을 회귀하는 향수이며, 이전 회기의 카카오 캐릭터에서 유아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만다라식 중심화로 산을 표현하여, 정신(의식)이 고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는 이것을 열심히 해서 최정점을 찍어야 하는 것을 표현했고, 아래는 다양한 욕망과 욕구를 의식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과 감정(육체)의 세계를 대극으로 의식화하는 것으로, 정신만 추구해서는 안 되므로 욕구도 추구하는 발란스(균형)이다. 돌맹이 구슬인 방해물은 장애물도 보석도 되는데, 내담자는 보석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앞으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6회기 : 현실과 이상 <사진 6>

눈도 동그랗고 나를 닮은 꽃 모자 소녀가 가운데에 우

두커니 서 있다. 소녀 주변에는 모래가 블랙홀처럼 되어 있다. 모래를 만지다 보니 빨려들어 가는 것 같아 블랙홀을 만들었고, 내가 이상주의자(fantasy) 같아서 이상에 빨려들어 간 느낌이었고 기분이 좋았다. 이것은 그 소녀를 중심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소녀 바로 앞에는 다리와 아이스크림이 있다. 다리는 최근에 갔던 계곡을 상상하여 놓은 것이고 아이스크림은 최근 들어 자주 먹던 아이스크림이 생각나 놓은 것이다. 꽃 모자 소녀의 오른 쪽 대각선에는 '귀를 기울이는' 영화 장면이고 나뭇가지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한 가게가 나온다. 가게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고장 난 시계와 눈이 반짝거리는 고양이와 있다. 소녀가 들어가자 시계는 저절로 고쳐졌다. 가게 뒤에서는 남자 여러 명과 소녀 한 명이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소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며 쑥스러워하면서 열심히 노래하고, 나도 같이 즐기고 싶었다. 가게 뒤쪽에는 마을 풍경이 탁 트이게 보인다.

최근 디즈니 '크루엘라' 영화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꽃 모자 소녀 왼쪽 대각선에는 드레스를 입은 패션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다. 드레스를 입은 사람 중 금발에 핑크드레스는 사람을 떨어트려 죽이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치고 있다. 바다에는 묘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떠밀려 죽은 것이다. 이 사람은 핑크드레스와 아는 사이이다. 가로등과 풀숲 사이에는 한 여자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일으킨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그 당시 죽은 사람과 아이의 관계는 모녀 사이로 알고 있다. '크루엘라'의 풀숲에 숨어 있는 아이는 똑같이 복수한다는 느낌이다. 마지막 본 '메리와 마녀의 꽃' 영화 장면은 꽃 모자 소녀의 앞의 오른쪽에 있다. 여자 아이와 고양이가 서있고, 여자 아이는 빗자루와 신비의 보라색 꽃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는 으리으리한 성이 있으며 성에는 못된 여자사람(교장인 마녀)과 키 작은 남자사람(못된 교수)이 있다. 소녀가 고양이를 따라가 숲속에 가서 발견했고 한 송이를 따서 들자 마법이 생겨 빗자루를 타고 성으로 왔다. 엘리스 소녀는 순진하지만 인질로 잡혀 있는 남자를 구하려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꽃 모자 소녀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면 설 수 있는 정자가 나오고, 정자(산장가든 가게)옆에는 계곡이 길게 펼쳐져 있다. 계곡에는 돌맹이들과 다양한 크기의 다슬기(구슬)이 있다. 원주의 용수풀이라는 계곡을 가서 다슬기도 직접 손으로 잡았다. 다슬기가 돌 옆에 혹은 사이에 붙어있어서 돌을 두었다. 정자에서 다슬기 잡는 것은 4일전 현실세계이고, 다른 것은 이상세계이다. 영화 3개의 장면에서 나의 성격의 다양성(나쁜 것 같기도 하고, 잔인한 면, 겉으로는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면 등)을 표현한 것 같다고 느꼈다.

표현분석 : 내담자는 환타지 속에서 머물며, 정신 내면에 그리움인 향수가 있다. 대지모(모성원형)의 그리움과 창조성이 내재화되어 전체 분위기가 동화속의 이야기로 다양한 콤플렉스를 의식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의식은 3개 분야의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타났다. 내담자 내면은 눈 덮인 집의 차가운 정서, 복수심인 잔인함 및 용감 등이 보인다. 그리고 이전 4회기에 돌맹이로 독방 쌓듯이, 불안하니 계곡을 단단하게 쌓고 계곡도 네모로 경직되고 안이 비어서, 돌맹이는 트라우마틱하고 불안감이 느껴진다.

7회기 : 땡땡의 달리기 <사진 7>

해가 뜨거운 점심쯤 사람들은 50m 달리를 한다. 이 날은 체육대회로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하거나 쉬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50m 달리기에서는 4명의 사람들이 달린다. 수호천사인 친한 친구 2명이 내 옆에서 달리를 했고 4명은 같은 반 친구이다. 출발점에는 조개 모양으로 된 도움닫기가 있다. 그리고 4명 중 한 명(코끼리)은 뛰어 가다 신발을 헛디뎠다 넘어져 있다. 신발 한 쪽은 날라 가고 발을 헛디뎠다 아팠지만 한쪽 신발을 신고 달렸다. 도착지점 쪽에는 달리를 마친 아이들이 둘러앉아 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키 큰 여자사람이 달리기 초를 세기 위해 폰과 시계, 그리고 벨을 들고 서 있다. 한 쪽 벤치에 여학생 두 명이 쉬면서 달리를 구경한다. 벤치 옆에는 시원하게 뻗어있는 큰 나무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되어 준다.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 나의 이야기이다. 요즘 올림픽을 해서 고등학교 시절의 체육대회 때 넘어진 나를 생각하게 되었다. 도착지점까지 달려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도착한 다음 친구한테 “나 넘어졌어.”라고 이야기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심판은 “다친 곳이 없냐고 괜찮아?” 라고 물어보며 신발을 주워오라고 말했다. 달리기는 좋아하지만 체육대회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시기라서 한가운데 태양을 두게 되었다.

표현분석 : 빨간색은 열정을 의미하고, 빨간 해는 따뜻한 부성의 에너지인 것 같다. 해는 중심에 위치하여서 중심화 잡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기는 리비도가 최고로 정점을 찍고 있지만 피규어가 유아적이어서 통과의례 못한 아이이다. 나무는 땅에 안정적으로 심어져 있지 않은 분재라서 아쉽다. 조개도 떨어져서 폐쇄적이고, 내담자의 벗겨진 신발도 발에 맞지 않아 움직이는데 문제가 되므로, 자기 발에 안 맞는 신발은 이처럼 행동하는 태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내담자는 무의식인 왼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성인 4의 숫자를 볼 수 있다.

8회기 : 해안가 풍경 <사진 8>

큼지막한 돌맹이들이 있는 해안가에 사람들이 다닌다. 연인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은 돌맹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모래사장 한쪽에는 악사들이 연주를 하고 사람들(난쟁이들)은 그것을 구경한다. 해안가 앞 건물들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조그만 일행 등)도 보인다. 연인사이인 사람들 쪽에서 살짝 거리가 있는 바다 앞에는 가족 일행이 물놀이를 한다. 바다에는 등대가 있고, 큰 다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며, 지나가는 배와 스노쿨링을 하는 사람도 보인다. 바다와 모래사장 가운데에는 물망초가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인사이인 사람들은 음료수를 마시며 서로 장난을 치며 즐겁게 웃고 있다. 이때 행복하기보다는 즐거움이 큰 느낌이 든다. 여자사람은 휴대폰을 보며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일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해안가 풍

경은 내가 갔다 온 부산의 광안대교와 동해 경포대의 물망초와 섞여있다. 부산은 1번 갔는데 버스킹하는 장면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과 바다에서 노래 소리와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물망초도 떠오른다. 다리는 엄청 큰 느낌이다. 등대는 멀리 보이는 등대이다. 잠수부는 물고기를 보며 스노쿨링을 하고 있다. 배는 다리 사이로 수심이 깊은 곳을 지나간다. 가족일행은 모르는 가족이지만 아기를 보는 것이 좋아서 관심 있게 쳐다봤다.

표현분석 : 해안가 풍경은 무의식 상황이며, 배는 무의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초는 장애물이지만 뭔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리는 다리의 끝과 끝이 연결되어서 모성과의 관계성의 연결을 볼 수 있고, 모를 만나 정화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회기 등대는 작은 것이었으나 8회기는 의식의 자리에서 1회기 등대보다 우뚝 서서 방향성을 가르치고, 힘도 있어서 내담자가 힘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힘차게 스노쿨링하는 내담자 모습은 자아가 강화되어 보인다. 파도가 많이 일렁거리는 것은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며, 연인은 6회기 마녀의 성에서 남자를 구출해주어서 연인으로 나타나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며, 에로스가 뜨고 있고 사랑의 감정으로 보인다. 악기연주는 내담자의 긍정적 감정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

9회기 : 해안가의 어느 집 한 채 <사진 9>

조개껍데기가 많은 해안가 앞에 큰 집이 있다. 집 밖의 옆에는 빨간 벤치 두 개가 있다. 거기에는 부부사이로 보이는 여자사람과 남자사람이 있다. 그리고 해안가 한 쪽에는 아기용 튜브가 두 개 놓여 있다. 집은 돌맹이를 따라 들어가면 1층에는 주방기구와 큰 쇼파와 테이블이 보인다. 한 쪽 쇼파에는 고양이가 바깥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집 2층에서는 여자아이 두 명이 소꿉놀이를 하며 놀고 있다. 그리고 한 쪽에는 큰 침대와 침대 옆 어항은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고 피아노는 음악을 좋아해서 놓았다. 밖의 날씨는 화창하고 구름이 두둥실 떠있으나 나무 사이에 있는 큰 집이 돋보인다. 부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며 시

시כול한 이야기를 하다가 낮잠에 들었다. 해안가의 집은 우리 집이다. 명상을 하면서 내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다가 꾸렸다. 부부는 나와 내 남편이고 딸은 2명이다. 5, 6살 된 두 딸은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나도 많이 했던 전형적인 소꿉놀이이다. 어렸을 때 음식 만들기 놀이가 떠오른다. 아주 재미있었다. 조개는 해안가에 가면 많이 있어서 놓았다. 집과 바다 사이를 경계로 놓았다. 돌맹이는 집으로 들어오는 징검다리이다. 집 앞에 징검다리처럼 들어오는 것을 로망이라고 생각해서 놓았다. 침대는 두 아이가 함께 잘 수 있도록 이불은 2개 두었다. 피아노는 아이들이 잘 때 음악을 듣기 위해 오르골 대신 두었다.

표현분석 : 의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집이 커서 유아처럼 보인다. 내담자는 무의식으로 하강하고 있다. 무의식인 바다는 위에 위치하며 텅 비고 각 저서 공허해 보인다. 미래이면서 과거를 추억하여 동심이 살아나며, 찻잔은 관계와 소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내담자는 미래의 딸을 정성껏 준비해주고 케어 해줌으로서 새로운 여성성을 발달시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고양이 는 어떤 부분에서 여성이 되지 못한 측면이므로, 앞으로 여자로 변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조개는 여성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 같다. 문 앞에 놓여진 2개의 징검다리는 통과의례를 위해 거쳐야 할 시간이 더 걸림을 나타낸다.

3. 통합 단계 : 통과의례 후 재생과 현실적응 (10회-16회)

10회기에서 16회기는 통합 단계로, 재생하여 정체성 확립과 현실적응의 주제 그리고 내담자의 여성성과 남성성, 대극이 통합되고 전체성의 상징이 나타난다.

10회기 : 반갑게 맞아주는 연결다리 <사진 10>

가운데 큰 산이 있다. 길도 있고 높지는 않고 금방 갈 수 있는 큰 산을 중심으로 한 쪽에는 여자사람이 건너 쪽에는 남자사람이 있다. 남자사람이 있는 곳에는 파란 물방울과 전망대가 있는 집들, 이끼들이 있다. 그리고 남자사람은 무지개 터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여자사

람이 있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표족한 선인장, 가면들, 나무속에 숨어있는 두더지가 있다. 산에는 나무 길로 된 연결다리가 있고, 꼭대기 양 쪽에는 상반되는 사람들이 있다. 한쪽에는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푸와 피글렛이다. 다른 한 쪽에는 울상을 짓거나 화가 난 사람 앞에 엄마한테 혼나는 사람과 돌로 힘들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울상을 짓는 감정을 나타냈다. 나무 길의 중간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겪어봤다. 요새는 힘든 일은 거의 없다. 3주 후면 이사를 가서 집을 합친다. 그래서 뭔가 걱정거리 는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있고, 불안정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 적당히 느껴지면서 즐기고 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엄마 같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는 엄마를 잘 도와줄 것이다. 엄마를 힘들게 한 것은 나를 방치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다. 울상을 짓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바가지 소녀는 나이 고, 웃고 행복한 푸와 피글렛도 나이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 엄마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고 있다고 말 해주었다. 가면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다. 변성(목소리 낮추기)하고, 웃고, 장난치고, 놀리고, 짜증내고, 화난 척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 진짜 내 모습은 없는 것 같다. 가면 뒤에 우울한 나의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나무 속 숨은 두더지를 놓았다. 서있는 사람은 남친이다. 남친은 좋아하는 파란물방울이 있는 바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뒤에는 전망대가 있는 아늑한 마을이 있다. 이끼는 바다 앞에 있는 풀냄새가 잘 나는 풀숲이다. 난 풀냄새와 바다냄새, 자연 냄새가 평화로운 느낌을 주어 좋아한다. 내가 다리를 건너 무지개 터널을 통해 남자친구에게 다가간다. 이때 중간에 연주를 하며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중간에서 가로등이 밝게 빛을 비춰준다. 5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는 사회복지사이고, 1달 전 모임에서 만났다. 나한테 잘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표현분석: 이 상자는 통합 단계가 시작되고 있고, 무지

개도 희망적이어서 내담자가 무지개터널을 통과하려고 서로 마주보는 통과외래 직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내담자는 물 냄새, 바다 냄새, 풀 냄새를 느끼며 자연치유력을 만드는 자연세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로 다리를 건너가고 한다. 다리 중간에는 자신을 방임한 아픈 부정적 마음을 죽이고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 모성과 화해하는 내담자의 모습과 하객처럼 이들 연인을 축하하는 악사들을 볼 수 있다. 가로등도 이를 의식화하는 것 같다.

11회기 : 사랑, 행복, 희망의 정원 <사진 11>

빨간 집 뒤에 큰 정원이 있다. 정원은 온갖 나무들(모든 나무들)과 꽃들로 둘러싸여 있다. 정원 가운데에는 실수 있는 잔디밭이 나온다. 잔디밭에는 두 소녀가 편안하게 쉬고 있다. 편안하고 조용하며 한적한 분위기다. 소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블티를 마시고 있다. 갈증도 해소되어서 모래놀이 끝나고 공차에 가서 꼭 마신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모래시계의 시간이 흐르지만 소녀의 표정은 한 없이 행복해 보인다. 날씨는 매우 화창하다. 소녀 뒤에는 큰 나무가 소녀들의 그늘이 되어준다. 엄청 큰 벚꽃나무 같다. 시원한 느낌이 든다. 상징 세 가지는 각각 분홍은 사랑, 초록은 희망, 보라는 행복을 뜻한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연애는 부끄럽지만 잘 사귀고 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어지고 희망적으로 살고 있다. 행복은 요새 즐겁게 지내고 있다. 주변에 꽃들은 소녀를 둘러싸며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듯한 모습이다. 꽃들은 각각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꽃들이다. 소녀 두 명은 둘 다 '나'이다. 한 쪽은 꽃을 들고 해맑게 웃는 나, 또 다른 한 쪽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나를 뜻한다. 정원이라서 나무들이 많다. 내가 생각하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게, 파릇파릇하게 여름처럼 자라고 있다. 꽃은 분홍색 계열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색들을 통틀어 놓았다. 태양은 날씨가 화창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무들도 잘 자란다. 2개의 태양은 엄청 화창한 것을 나타낸다. 뜨거운 것은 아니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씨를 뜻한다. 빨간 집은 아늑하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다락방에 창문을 보면서 누워서 하

늘을 보고 싶다. 잔디는 내가 누우면 몸에 잘 맞아서 부드러운 느낌이다.

표현분석 : 인형 캐릭터라서 약간 퇴행한 모습을 보이지만, 2개의 "나"가 중심에 있고 자기 안에 사랑, 행복, 희망의 정원이 발달됨을 볼 수 있다. 온갖 색깔의 정원을 통해 감정이 편안해지고 있고, 네모의 만다라 표현으로 중심이 잡혀서 아니무스와 나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제는 외딴섬에 사는 소녀가 고립된 곳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이며, 사춘기 소녀가 남자친구를 만나 설레고 있는 것 같다.

12회기 : 북적한 시장 <사진 12>

이곳은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을 꾸민 것이다. 최근에 남친과 즉흥적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 이번 주 금·토·일에 갔다 왔다. 갈래? 라고 물어서 그래서 갔다 왔다. 가보고 싶었다. 1년 동안 바다를 안 가서 바다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었다. 입구에 있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방황하고 있어서 다가가다 일행에게 가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시장으로 들어갔다. 동문시장에는 다양한 해산물 음식들과 음료수, 다양한 먹거리들이 팔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일행도 보이고, 가족 일행들도 보인다. 사람이 엄청 많고 북적인다. 난쟁이들 중 2명은 나란히 걸어가며 시장에 파는 음식들을 구경하고 있고, 다른 난쟁이들은 음식을 시키고 그 앞에서 각각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전복 밥도 시키고, 다양한 해산물 회도 먹고, 목말라서 음료수도 2개 사먹었다. 무지개터널은 시장입구를 표시한 것이고, 입구 뒤에는 차들이 줄지어 나가고 있다. 알콩달콩한 커플은 즐겁게 서로 붙어가면서 먹거리를 구경하거나 서로 좋은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고 있다. 먹을 것을 다 사서 포장해서 나가는데 핑크빛 노을과 구름이 있어서 완전 예뻐서 둘이서 풍경사진을 찍었다. 핑크를 보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어려서부터 핑크를 좋아했다. 지금도 이사 가는 집도 핑크로 해달라고 했다. 엄마와 함께 인테리어를 골라서 너무 기대된다. 완성되면 방사진부터 찍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자동

차들은 여행가는 사람, 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 숙소나 다른 여행지로 가는 사람도 있다. 둘째 날에 동문시장을 갔다. 좁은 곳에서 사람이 많고, 더웠지만 돌이 가서 행복했고 가장 인상에 깊었다. 즉 무지개터널은 입구이며, 다리는 나무 강가의 다리이다. 무지개터널은 입구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 떠오른다. 난 진짜 새우 중에 딱새우를 좋아해서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었다. 딸 하나 있는 가족도 보였고, 할머니랑 손녀딸이 같이 다니는 것은 보기 좋았다. 원래 할머니에게 크고 시장에서 손잡고 다녀서 좋다. 이젠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할머니가 은행가는 것을 도와드리고, 주기적으로 할머니 집에 찾아가기도 한다. 가족일행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같이 부모님과 함께 간 기억이 떠올라 좋았다.

표현분석 : 시장은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므로 내담자 내면의 콤플렉스도 활성화되어서 긍정적인 부모상도 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5대가 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리비도가 의식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 상자는 무의식과 의식의 방향으로 리비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할아버지커플, 부모커플, 연인커플 3쌍은 대극으로서 통합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연인에서 핑크빛 에로스를 볼 수 있지만, 아직 사춘기 소녀의 풋사랑처럼 느껴진다.

13회기 : 4년의 시간 <사진 13>

왼쪽에는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줄을 서서 나란히 있다. 이것은 내가 1학년 때 활기 넘치고 파릇파릇했던 모습을 연상하여 놓은 것이다. 1학년 때는 전공에 관해 잘 모르고 미래와 적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시절이다. 나무 옆에는 공부하는 사람과 시계토끼, 알람시계,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있다. 알람시계는 시계를 맞추고 학교를 다니던 모습이 생각나고, 시계토끼는 수업이 끝나면 버스시간에 쫓겨 달려가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기어가는 아기(나)와 같이 열심히 올라가는 난쟁이들(친구들)과 옆에서 응원하며 바라보는 난쟁이들이 있다. 보족한 구슬들은 목표지점에 놓여있는 방해물들이다. 그 중 핑크색이 가장 큰 방해물이

다. 이는 연인과 장거리 연애가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3학년과 4학년 넘어갈 시기에 열심히 실습을 다니고 고군분투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파란 수정구슬과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여자아이가 있다. 이것은 4학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며 아직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은 단단해지고 잔잔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란 수정구슬은 높이 올라가는 고지(목표지점)에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과 좋아하는 것 대신에 놓은 것이다.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여자아이의 느낌은 구멍조끼를 입고 물 위에 떠있는 모습, 소음도 잘 안 들리고 나한테 집중해서 명상하는 것이 평화롭고 좋다. 그동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유아교육과를 들어온 것이 잘한 일인 것 같고 엄마도 이 길로 들어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한다. 물론 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힘든 고지를 거의 넘은 것 같다. 현재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표현분석 : 이 회기의 상자는 대학 4년간에 겪은 힘든 고통을 극복하고 재생하여 안정된 상태를 나타낸다.

14회기 : 사랑(내가 생각한 사랑) <사진 14>

가운데 활짝 피어있는 분홍색 꽃이 있다. 분홍 꽃은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서 나랑 연인이 생각난다. 그 주변에는 분홍색 꽃잎들과 빨간 폼퐁이가 가득 차 있다. 분홍색 꽃잎과 빨간 폼퐁이는 사랑의 색이 떠오른다. 그리고 폼퐁이는 말랑말랑하고 포근하다. 한 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음악을 연주하고 환호하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커플을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커플은 옆에 있는 페가수스에 타고 구름 사이를 지나며 날아오를 듯한 기분이 든다. 이때 느낌은 환상적이고 기분이 너무 좋다. 결국엔 복숭아 열매 나무처럼 사랑의 열매가 잔뜩 자라나 결실을 맺게 된다. 사랑이란 꽃이다. 처음엔 사랑을 모르던 오므려져 있다가, 사랑이란 감정을 알게 되면 활짝 피우기 때문에 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난쟁이를 두었다.

표현분석: 이 상자는 내담자의 정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심이 잡히고, 중심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주변사람들이 둘을 환영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부모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가족 콤플렉스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5회기 : 활짝 피어오른 분수 <사진 15>

분수대에서 떠오른 모습이다. 가운데 분수가 있고, 물이 넘쳐흘러 주변에 물방울들이 활짝 피어올랐다. 이것은 나의 안에 있던 응어리들이 피어오른 것을 표현했다. 첫 번째, 핑크 드레스를 입은 철없던 아이는 키가 크고 예쁘게 자라나 멋진 포즈를 지으며 당당하게 서 있다. 두 번째, 할머니의 품에서 키워지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나 큰 어른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 채용공고를 보고 이제 나도 취업을 하는 구나라는 실감이 났고,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준비도 하고 있다. 세 번째, 항상 두렵고 울던 아이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제어하고 극복하여 자신이 원하는 길인 교사로 탄생하게 된다. 네 번째, 게으름뱅이였던 아이가 자신의 행복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성실히 일을 하고 있고,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나를 뜻하며 활짝 피어오른 분수처럼 물의 힘이 강해져 넘쳐흐르는 것처럼 표현해 보았다.

표현분석 : 이 상자는 내담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된 것을 볼 수 있다. 통합 단계에서 사회적 지위를 수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는 아이가 교사로, 철없던 어린공주가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아강화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과의례하고 여성으로 성장해서 아니무스를 만나 통합하는 모습이 보인다. 분수대는 생명력이 뻗치는 것으로, 안에서 밖으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생명력을 상징하며, 3중 만다라로 통합성을 강조하였다. 통합되는 전체성과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6회기 : 폭포 <사진 16>

분수에서 좀 더 강한 것을 떠올렸다. 항아리 안에서 엄청나게 힘이 쎈 물살이 나온다. 그래서 폭포가 생겨서 폭포의 물방울들은 흩어져 세 갈래 길로 나뉜다. 숨겨진 항아리 뚜껑은 물이 잘 내려가게 해준다. 첫 번째, 실외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교사는 '나'이고, 시소를 돌로 받쳐서 만들었다. 교육실습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소를 움직여주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을 지켜보았던 실습경험의 내용이다. 두 번째, 남친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직업이다. 내가 하는 직업과 일의 내용이 비슷해서 신기하고 좋았다. 세 번째, 가족들과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만드는 화목한 분위기의 집이다. 주방과 식탁이 있는 집에서 부부가 같이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자녀인 남매와 함께 식사를 한다. 이때의 기분은 매우 행복하다. 전체적으로 강한 폭포 물의 힘은 나의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이것은 미래에 내가 만들어 나아갈 길을 의미한다.

표현분석: 마지막 회기의 물은 생명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내담자는 무의식에서 힘을 받고 있어서 의식인 현실에서 안정감 있게 꾸민 현실적 상징이다. 현실에서의 의식과 무의식을 나타내며, 유아교사로서 유아들의 양육을 다룬 측면과 남자친구인 아니무스의 힘을 받고 있고, 내면의 부모상 같은 면도 볼 수 있다. 창조적인 가족과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의식화하고, 가족 간의 조화와 건강한 모습으로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통합을 나타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생긴 이혼의 상처와 심리적인 불안감 및 부모콤플렉스로 인해, 만22세 여대생이 아직 유아적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모래놀이상담을 통해, 상처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성의 자아를 강화하여 통과의례 후, 성인 여성으로 성숙하게 변화된 여대생의 사례연구이다. 전체 여정을 살펴본 결과, 내담자의 모래놀이는 일반적인 분리, 전환,

통합의 통과의례 단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경험해야하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새로운 에너지로 여성성의 자아가 강화되고 통과의례를 한 후 아니무스를 만나 통합되고 전체성이 발달되었다. 16회에 걸쳐 진행된 모래놀이과정이 분리-전환-통합의 단계로 통과의례에 도달하여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단계의 내용은 고통-죽음-재생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다. 분리(고통)의 단계는 1회, 전환(죽음)의 단계는 2회-9회, 통합(재생)의 단계는 10회-16회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내담자는 제 1회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과의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분리-전환-통합의 단계에서 내담자가 모래놀이에서 먼저 경험한 것은 분리단계에 속하는 고통이다. 내담자는 첫 상자인 1회에서 모래를 적극적으로 만지며 상담에 대한 준비된 태도를 보였다. 내담자는 외부세계에 대한 불안과 고립, 공허함을 나타내며 집에서 나와 아니무스를 만나고, 다리를 건너는 사춘기 소녀의 통과의례 과제를 시사하였다. 이어서 전환단계는 죽음으로 변환되는 경험들이다. 2회에서의 사연은 트라우마이고 쓰레기 더미는 자신의 그림자로 아무도 안가는 죽은 사람이 놓인 다리를 건너는데, 이때 너무 무서워서 아니무스의 도움으로 함께 통과한다. 3회는 동물적인 피겨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내담자안의 동물적 측면이며, 둘씩 같은 모습의 토끼는 모성과 분리가 안 된 측면인 것 같다. 4회는 카카오 캐릭터들이 계곡으로 놀러가 감정과 본능을 살리고 모성측면을 의식화하고 있다. 5회는 다양한 욕망과 욕구를 의식화하고 있고, 카카오 캐릭터에서 유아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6회는 전체 분위기가 동화속의 이야기로 3개 분야의 다양한 콤플렉스 의식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회에서 빨간 해는 따뜻한 부성에너지로 변화됨을 나타낸다. 달리기는 리비도가 최고로 정점을 찍고 있지만, 피규어가 유아적이어서 통과의례 못한 아이처럼 느껴진다. 벗겨진 신발은 발에 안 맞는 내담자의 신발로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8회의 해안가 풍경에 있는 배는, 내담자가 무의식에서 모성과의 작업을 하는 것 같다. 특히 1회기의 빨간 등대는 작은 것이었으나 8회기의 등대는 의

식의 자리에서 1회기 등대보다 우뚝 서서 방향성을 나타내고, 힘이 생긴 것 같다. 연인은 6회기 마녀의 성에서 남자를 구출해서 연인으로 나타나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회는 집이 커서 유치하고, 텅 빈 바다는 공허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합단계는 재생에 대한 경험이다. 10회는 무지개터널을 건너서 자연의 냄새와 치유되는 곳에서 기다리는 남자친구에게 다리를 건너 통과의례를 하려고 한다. 다리 중간에는 자신을 방임한 부정적 마음을 극복하고, 다리를 건너기 위해 모성과 화해하는 내담자의 재생을 볼 수 있다. 11회는 두개의 나가 중심에 있고 내면에 사랑, 행복, 희망의 정원이 발달하고 있다. 온갖 색깔의 정원을 통해 감정도 편안해지고, 아니무스와 나를 통합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이제는 외딴섬에 사는 소녀가 고립된 곳에서 빠져 나와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설레고 있다. 12회에서 시장은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므로 내담자 내면의 콤플렉스도 활성화되어서 긍정적인 부모상도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할아버지커피, 부모커피, 연인커피 3쌍은 대극으로 통합되어 나타났다. 13회의 상자는 많은 고통을 극복하고 재생하여 안정된 상태를 나타낸다. 꽃나무를 놓으며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과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4회는 내담자의 정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심에는 연인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돌을 환영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에 부모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가족 콤플렉스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15회는 내담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16회의 물은 생명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내담자는 무의식에서 남자친구인 아니무스의 힘을 받고 있어서 의식인 현실에서 안정감 있게 꾸민 현실적 상자이다. 새로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유아교사로서 유아들의 양육을 다룬 측면과 가족 간의 조화와 건강한 부모상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통과의례를 마무리하고 집단생활에 적응하며, 모래놀이의 여정을 종결하였다. 내담자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미성숙한 소녀가 성숙한 여성으로 변화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와 함께 꿈꾸는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모래놀이를 통해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마지막

회기에 말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내적 혼란을 겪는 여대생이 심리적 측면에서의 통과의례의 성년식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으로 통합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보애 (2008). 『모래놀이 여행』. 서울: 가톨릭출판사.
나정숙 (2019). 『영유아발달』. 문음사.
박정옥 (2014). 원시민족의 성인식과 같은 통과의례를 보이며 개성화한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모래놀이치료연구』 10권 1호 : 1-26.
손창선 (2007). “통과의례의 예술치료적 적용에 대한 연구. -반겐넵의 개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미이 (2017). 복합외상을 보이는 등교거부 청소년의 자아발달 및 자아정체성 형성과정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모래놀이치료연구』13권 1호 : 1-37.
이부영(1997). 재생의 상징적 의미. 『심성연구』12(2), 89-114.

이부영(2005).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이진숙 (2016).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여대생 사례연구. 『모래놀이상담연구』12권 1호 : 114-141.
Boik, B. L. & Goodwin, E. A.(2000). Sandplay therapy: A step-by-step manual for psychotherapists of diverse orientations. New York: Norton. 이진숙, 심희옥, 한유진 공역(2016). 모래놀이치료: 심리치료를 위한 지침서. 학지사.
Erikson(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Erikson(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Gennep, A. V. (1908). 통과의례(김경수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5 ; The Rites of Passage, Trans. Monika B. Vizedom & Gabrielle L. Caffe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Hall, Calvin S., Nordby, Vernon J. (2004). 융 심리학 입문(최현 역). 서울: 범우사.
Homeyer. L. E. & Sweeney, D. S. (1998). Sandplay: practical manual. Canyon Lake, TX.: Lindan Press. 정경숙, 우주영, 정미나 공역(2014). 현장임상전문가를 위한 모래상자 치료 임상지침서(2nd ed.). 서울: 학지사.
Kal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A. Temenos Press.

부록



1회기 | 소녀의 외딴 섬



2회기 | 사연이 담긴 다리



3회기 | 비밀의 화원



4회기 | 한여름의 추억



5회기 | 세 가지의 상징



6회기 | 현실과 이상



7회기 | 땡벌의 달리기



8회기 | 해안가 풍경



9회기 | 해안가의 어느 집 한 채



10회기 | 반갑게 맞아주는 연결다리



11회기 | 사랑, 행복, 희망의 정원



12회기 | 부족한 시장



13회기 | 4년의 시간



14회기 | 사랑 (내가 생각한 사랑)



15회기 | 활짝 피어오른 분수



16회기 폭포

Abstract

A case study on sandplay counseling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rites of passage

Jungsook Ra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tes of passage of a female university student. This study was a case study of sand play counseling and the age of the subject was 22 years old. The client was an anxious and immature university student with an unhappy past of her childhood. The psychological task of the client was to overcome the trauma and complex of the unfortunate past, to grow as an independent person by strengthening the separati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and then to perform the rite of passage. Counseling was conducted once a week (50 minutes) and 19 times for 6 months. During the counseling, the researcher provided a safe space for the client to fully express her unconscious mind and shared the journey of confronting the client with the flow of energy. A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ntire journey, the client's sand play box has undergone repeated pain, death, and rebirth for the rite of passage phase of separation, transition, and incorporation, which is a general process of coming-of-age ritual. In addition, the client adapted to the real world, and the femininity of the ego is also strengthened to perform a rite of passage with new energy, and the animus met and integrated.

Key words: Rite of passage, Sand play, Female university student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김규리·김민주·김세연·김현지·왕서영·이지원(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최선하(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COVID-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교에서 195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활동은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한국어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Ryckman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홍영덕(2018)이 사용한 설문지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점수범위: 22-110점). **연구결과:** 대학생의 신체활동은 WHO가 권장하는 성인의 신체활동량 보다 적었다. 여가활동시간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강도: $r=.32, p<.001$, 중강도: $r=.26, p<.001$). 대학생 중 72.8%는 COVID-19 상황이 자신의 여가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COVID-19의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고강도($x^2=7.00, p=.072$), 중강도($x^2=0.90, p=.825$) 여가활동 유무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F=.24, p=.863$) 간에는 관계가 없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t=5.94, p<.001$),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F=8.04, p<.001$), 외향적 성격이 내향적 성격에 비해($t=-4.81, p<.001$) 높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 할수록($r=.53, p<.001$), 스트레스를 적게 인식할수록($r=-.35, p<.001$)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결론: COVID-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은 각자의 공간에서 여가활동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대학생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용어: COVID-19,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대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COVID-19의 대유행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COVID-19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대학은 2020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전면 도입하였고 실시간 화상강의나 녹화강의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은 대학이 아닌 자택 혹은 각자의 장소에서

수업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의 확산 세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 2학기 현재까지 대학은 비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공공·민간 체육시설 이용률에서, 현재 대학생에 해당하는 20대의 이용률은 52.2%, 30대는 55.1% 였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로 말미암아 공공·민간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대학생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에너지소비를 원인으로 하는 골격근이 동작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이다(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신체활동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개선하여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2013).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신체적 활동과 움직임으로 본인만의 고유한 신체활동 생활양식이 확립된다. 대학생은 40대 이상의 성인에 비해 생활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생활양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신의 능동적 선택으로 신체활동 생활양식의 변화가능성이 크다.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대학생의 여가시간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굴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가 부정적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현경선, 2001에 인용됨).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관여하는 요인은 COVID-19와 같은 사회적 상황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거주 형태, 경제 수준 등 개인의 일반적 특성 및 자신이 신체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이미지인 신체적 자기효능감이다(이상준, 2017).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 기대를 가져오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좋은 결과가 유발된다(Bandura, 1977). 신체활동 참여는 학생들의 생활만족도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상준, 2017).

이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신체활동 중 여가활동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으며,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COVID-19가 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미친 주관적인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COVID-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 1)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한다.
- 2)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유무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중소도시에 위치한 일 개 대학교에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대학생 20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하게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195명이 연구대상자이다.

3. 연구도구

1)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한국어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PAQ 한국어판은 일과 관련된 활동(학교생활 중의 신체활동, 봉사활동, 체육수업 등) 6문항, 장소이동 활동(학교 등·하교, 쇼핑 갈 때 등) 3문항, 여가활동(방과

후 스포츠, 운동 및 여가활동) 6문항, 앉아서 하는 활동(누워있는 시간 포함) 1문항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표준화된 설문지이며 평소 일주일 동안 10 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 고강도와 중강도 활동을 각각 며칠(일/주), 평균 몇 시 간(시간, 분)이었는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WHO, 2006).

평소 일주일 동안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시간을 파악하였으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답하게 하였다. 이 중 '고강도 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을 말한다. '중강도 활동'은 중간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가운데 특히 여가활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COVID-19 상황이 자신의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2) 신체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수행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능력 수준 즉, 개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Ryckman. et al., 1982).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ckman. et al.(1982)이 개발한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지로서 홍선옥(1996)에 의하여 번역되었으며, 홍영덕(2018)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12 문항, 인지된 신체능력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22문항(110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

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대상자 선정범위, 연구참여 중단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설문 지침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였고,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으로 데이터화 하였다.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유무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사로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에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54명(79.0%)으로 남성(41명, 21.0%)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21.1세였다. 학년은 3학년 53명(27.2%), 4학년 51명(26.2%), 1학년 46명(23.6%), 2학년 45명(23.1%) 순서로 많았다. 대상자가 소속한 대학의 계열은 자연계열 117명(60.0%), 인문사회계열 41명(21.0%), 공학계열 37명(19.0%) 순이었다. 거주형태에서 본가가 99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 52명(26.7%), 자취 44명(22.6%)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 유무에서 '하지 않는다'가 146명(74.9%)으로 '한다' 49명(25.1%)보다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5)

변수	구분	n(%)	M±SD
성별	남자	41(21.0)	
	여자	154(79.0)	
학년	1학년	46(23.6)	
	2학년	45(23.1)	
	3학년	53(27.2)	
	4학년	51(26.2)	
연령(세)	18~30세		21.1±2.2
전공계열	자연	117(60.0)	
	인문사회	41(21.0)	
	공학	37(19.0)	
거주형태	본가	99(50.8)	
	자취	44(22.6)	
	기숙사	52(26.7)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유	49(25.1)	
	무	146(74.9)	
최근 3개월간 평균 한 달 수입	30만원 미만	74(37.9)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90(46.2)	
	60만원 이상	31(15.9)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상	79(40.5)	
	중	87(44.6)	
	하	29(14.9)	
성격	내향적	116(59.5)	
	외향적	79(40.5)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1~5점		3.47±0.80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1~5점		3.36±0.78
우울감 경험	있음	50(25.6)	
	없음	145(74.4)	

최근 3개월간 평균 한 달 수입은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90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74명(37.9%), 60만원 이상 31명(15.9%) 순으로 많았다.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중' 87명(44.6%), '상' 79명(40.5%), '하' 29명(14.9%) 였다. '내향적' 성격이 116명(59.5%)으로 '외향적'인 성격 79명(40.5%)보다 많았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중간점수 이상이었다.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으로 중간점수 이상이었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험(우울감 경험)은 '없음' 145명(74.4%)이 '있음' 50명(25.6%) 보다 많았다.

2. 대상자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

〈표 2〉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변수		구분	n(%)	M±SD	범위
일과 관련한 신체활동 (분/주)	고강도	예 아니오	19(9.7) 176(90.3)	25.4±91.8	0.00~600
	중강도	예 아니오	64(32.8) 131(67.2)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 (분/주)		예 아니오	154(79.0) 41(21.0)	191.1±240.7	0.00~1,260
여가활동 (분/주)	고강도	예 아니오	56(28.7) 139(71.3)	71.9±149.4	0.00~900
	중강도	예 아니오	82(42.1) 113(57.9)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 (분/일)		예	195(100)	522.8±183.6	2.00~780
신체적 자기효능감 (점수)		예	195(100)	66.3±13.0	35.00~98.00

효능감은 〈표 2〉와 같다.

일과 관련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25.4±91.8분이었다. 일과 관련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6명(90.3%)으로, 일과 관련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다는 응답 19명(9.7%)보다 많았다. 일과 관련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122.7±309.8분이었다. 일과 관련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1명(67.2%)으로 일과 관련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한다는 응답 64명(32.8%)보다 많았다. 장소 이동 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시간은 주당 평균 191.1±240.7분이었다.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154명(79.0%)으로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41명(21.0%)보다 많았다.

대학생의 고강도 여가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71.9±149.4분이었다. 고강도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9명(71.3%)으로 고강도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 56명(28.7%)보다 많았다. 중강도 여가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92.2±145.3분이었다. 중강도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3명(57.9%)으로 중강도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 82명(42.1%)보다 많았다. 대학생이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522.8±183.6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66.27점으로 중간점수 보다 높았다.

3. 대상자의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고강도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32, p<.001$). 고강도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중강도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7, p<.001$). 중강도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표 3〉 여가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변수	신체적 자기효능감 $r(p)$
여가활동	고강도 .32(<.001)
	중강도 .27(<.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유무 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유무 간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고강도 여가활동 유무는 성별($\chi^2=22.55, p<.001$), 연령($\chi^2=9.31, p=.025$), 계열($\chi^2=17.35, p<.001$), 거주형태($\chi^2=6.24, p=.044$), 성격($\chi^2=7.18, p=.007$),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chi^2=47.3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강도 여가활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공학계열에 속한 대학생이 자연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에 속한 대학생 보다 많았다. 또한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고강도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내향적인 성격과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 고강도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중강도 여가활동 유무는 성별($\chi^2=7.63, p=.006$), 연령

($\chi^2=10.79, p=.013$),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chi^2=13.51, p=.009$), 우울감 경험($\chi^2=10.9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강도 여가활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 24세 이상이 24세 미만보다 많았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중강도 여가활동 비율이 높았다. 반면 건강상태가 보통이나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의 중강도 여가활동 비율이 낮았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에서 중강도 여가활동 비율이 높았고, 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에서 중강도 여가활동 비율이 낮았다.

대학생 중 72.8%는 COVID-19 가 자신의 여가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COVID-19 의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여가활동(고강도: $\chi^2=7.00, p=.072$, 중강도: $\chi^2=0.90, p=.825$) 유무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N=195)

변수	구분	여가활동(고강도)			$\chi^2 (p)$	여가활동(중강도)			$\chi^2 (p)$
		예 (n=56)	아니오 (n=139)	계 (n=195)		예 (n=82)	아니오 (n=113)	계 (n=195)	
		n(%)							
성별	남자	24(42.9)	17(12.2)	41(21.0)	22.55(<.001)	25(30.5)	16(14.2)	41(21.0)	7.63(.006)
	여자	32(57.1)	122(87.8)	154(79.0)		57(69.5)	97(85.8)	154(79.0)	
학년	1학년	18(32.1)	28(20.1)	46(23.6)	3.65(.302)	23(28.0)	23(20.4)	46(23.6)	5.93(.115)
	2학년	13(23.2)	32(23.0)	45(23.1)		20(24.4)	25(22.1)	45(23.1)	
	3학년	12(21.4)	41(29.5)	53(27.2)		15(18.3)	38(33.6)	53(27.2)	
	4학년	13(23.2)	38(27.3)	51(26.2)		24(29.3)	27(23.9)	51(26.2)	
연령(세)	20세 미만	15(26.8)	36(25.9)	51(26.2)	9.31(.025)	17(20.7)	34(30.1)	51(26.2)	10.79(.013)
	20~21세	17(30.4)	57(41.0)	74(37.9)		32(39.0)	42(37.2)	74(37.9)	
	22~23세	11(19.6)	35(25.2)	46(23.6)		16(19.5)	30(26.5)	46(23.6)	
	24세 이상	13(23.2)	11(7.9)	24(12.3)		17(20.7)	7(6.2)	24(12.3)	
계열	자연	31(55.4)	86(61.9)	117(60.0)	17.35(<.001)	51(62.2)	66(58.4)	117(60.0)	4.17(.124)
	인문사회	5(8.9)	36(25.9)	41(21.0)		12(14.6)	29(25.7)	41(21.0)	
	공학	20(35.7)	17(12.2)	37(19.0)		19(23.2)	18(15.9)	37(19.0)	
거주형태	본가	35(62.5)	64(46.0)	99(50.8)	7.01(.030)	46(56.1)	53(46.9)	99(50.8)	1.65(.438)
	자취	6(10.7)	38(27.3)	44(22.6)		16(19.5)	28(24.8)	44(22.6)	
	기숙사	15(26.8)	37(26.6)	52(26.7)		20(24.4)	32(28.3)	52(26.7)	

변수	구분	여가활동(고강도)			$\chi^2 (p)$	여가활동(중강도)			$\chi^2 (p)$
		예 (n=56)	아니오 (n=139) n(%)	계 (n=195)		예 (n=82)	아니오 (n=113) n(%)	계 (n=195)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유	15(26.8)	34(24.5)	49(25.1)	.11(.719)	23(28.0)	26(23.0)	49(25.1)	.64(.423)
	무	41(73.2)	105(75.5)	146(74.9)		59(72.0)	87(77.0)	146(74.9)	
최근 3개월간 평균 한 달 수입	30만원 미만	21(37.5)	53(38.1)	74(37.9)	5.37(.068)	29(35.4)	45(39.8)	74(37.9)	3.88(.144)
	3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21(37.5)	69(49.6)	90(46.2)		35(42.7)	55(48.7)	90(46.2)	
	60만원 이상	14(25.0)	17(12.2)	31(15.9)		18(22.0)	13(11.5)	31(15.9)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상	24(42.9)	55(39.6)	79(40.5)	1.07(.583)	34(41.5)	45(39.8)	79(40.5)	.24(.886)
	중	22(39.3)	65(46.8)	87(44.6)		35(42.7)	52(46.0)	87(44.6)	
	하	10(17.9)	19(13.7)	29(14.9)		13(15.9)	16(14.2)	29(14.9)	
성격	내향적	25(44.6)	91(65.5)	116(59.5)	7.18(.007)	46(56.1)	70(61.9)	116(59.5)	.67(.411)
	외향적	31(55.4)	48(34.5)	79(40.5)		36(43.9)	43(38.1)	79(40.5)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0(0.0)	1(0.7)	1(0.5)	47.34(<.001)	1(1.2)	0(0.0)	1(0.5)	13.51(.009)
	건강하지 못한 편	2(3.6)	21(15.1)	23(11.8)		9(11.0)	14(12.4)	23(11.8)	
	보통인 편	4(7.1)	61(43.9)	65(33.3)		20(24.2)	45(39.8)	65(33.3)	
	건강한 편	40(71.4)	54(38.8)	94(48.2)		42(51.2)	52(46.0)	94(48.2)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매우 건강한 편	10(17.9)	2(1.4)	12(6.2)	7.22(.125)	10(12.2)	2(1.8)	12(6.2)	2.58(.629)
	전혀 받지 않음	0(0.0)	1(0.7)	1(0.5)		0(0.0)	1(0.9)	1(0.5)	
	별로 받지 않음	10(17.9)	12(8.6)	22(11.3)		12(14.6)	10(8.8)	22(11.3)	
	조금 받음	29(51.8)	59(42.4)	88(45.1)		34(41.5)	54(47.8)	88(45.1)	
	많이 받음	15(26.8)	57(41.0)	72(36.9)		31(37.8)	41(36.3)	72(36.9)	
우울감 경험	대단히 많이 받음	2(3.6)	10(7.2)	12(6.2)	1.74(.207)	5(6.1)	7(6.2)	12(6.2)	10.98(<.001)
	있음	18(32.1)	32(23.0)	50(25.6)		31(37.8)	19(16.8)	50(25.6)	
COVID-19 상황 영향력	없음	38(67.9)	107(77.0)	145(74.4)	7.00(.072)	51(62.2)	94(83.2)	145(74.4)	.90(.825)
	대단히 많이 영향을 미침	22(39.3)	30(21.6)	52(26.7)		22(26.8)	30(26.5)	52(26.7)	
	많이 영향을 미침	22(39.3)	68(48.9)	90(46.2)		36(43.9)	54(47.8)	90(46.2)	
	조금 영향을 미침	8(14.3)	32(23.0)	40(20.5)		17(20.7)	23(20.4)	40(20.5)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4(7.1)	9(6.5)	13(6.7)	7(8.5)	6(5.3)	13(6.7)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성별($t=5.94, p<.001$), 계열($F=8.04, p<.001$), 성격($t=-4.81, p<.001$), 주관적 건강

상태($r=.53, p<.001$),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r=-.3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외향적 성격이 내향적 성격보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COVID-19의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신체적 자기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

(N=195)

변수	구분/M±SD	신체적 자기효능감	
		M±SD	t/F/r, Scheffe test
성별	남자	76.14±10.18	5.94(<.001)
	여자	63.64±12.37	
학년	1학년	65.41±13.86	1.12(.340)
	2학년	69.04±12.67	
	3학년	64.41±12.83	
	4학년	66.54±12.48	
연령(세)	21.1±2.2	66.27±12.97	.06(.357)
계열	자연a	65.76±12.48	8.04(<.001) b<c
	인문사회b	61.73±10.30	
	공학c	72.94±14.72	
거주형태	본가	67.33±13.25	1.07(.343)
	자취	63.88±13.40	
	기숙사	66.28±11.98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유	66.12±14.05	-.09(.924)
	무	66.32±12.63	
최근 3개월간 평균 한 달 수입	30만원 미만	64.56±12.36	1.83(.162)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6.45±13.32	
	60만원 이상	69.83±12.99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상	66.98±11.31	.26(.764)
	중	66.05±13.53	
	하	65.00±15.60	
성격	내향적	62.69±11.55	-4.81(<.001)
	외향적	71.53±13.22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3.47±0.80	66.27±12.97	.53(<.001)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3.36±0.78	66.27±12.97	-.35(<.001)
우울감 경험	있음	62.92±14.97	-1.92(.058)
	없음	67.43±12.04	
COVID-19 상황 영향력	대단히 많이 미침	67.11±14.87	.24(.863)
	많이 미침	66.42±11.00	
	조금 미침	64.80±14.37	
	별로 미치지 않음	66.46±14.14	

효능감 간에는 관계가 없었다(F=.24, p=.863).

IV.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COVID 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고강도와 중강도로 나누어 시

간 즉 '분'단위로 제시하였고, 고·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가운데 특히 여가활동 즉, 스포츠, 운동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대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일) 주당 평균 시간은 25.38 ± 91.77 분이었고, 중강도 신체활동(일) 주당 평균 시간은 122.71 ± 309.81 분이었다.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191.13 ± 240.71 분이었다. 대학생의 고강도 여가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71.87 ± 149.40 분이었고, 중강도 여가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92.15 ± 145.29 분이었다. 대학생의 앉거나 누워있는 하루 평균 시간은 522.77 ± 183.56 분 이었다.

COVID-19 이전에 홍영덕(2018)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신체활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강도 신체활동(일) 주당 평균 시간은 103.42 ± 258.88 분이며, 중강도 신체활동(일) 주당 평균 시간은 288.03 ± 731.34 분 이었다.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271.20 ± 390.22 분이었다. 대학생의 고강도 여가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237.89 ± 744.82 분, 중강도 여가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166.40 ± 369.51 분이었다. 대학생의 하루 평균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은 527.11 ± 180.21 분 이었다.

이 연구와 홍영덕(2018)의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2018년 COVID-19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 신체활동 시간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신체활동은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4.1배 줄었으며, 그 다음은 고강도 여가활동 시간으로 3.3배 줄었고, 세 번째로 줄어든 신체활동은 중강도 신체활동으로 2.3배 줄었다. 중강도 여가활동 시간은 1.8배 줄었고, 장소 이동 시간은 1.4배 줄었다. 고강도 신체활동 및 고강도 여가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대학이 문을 닫고,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중강도 신체활동과 중강도 여가활동이 줄어든 것은 비대면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으로 고려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소이동 시간도 줄었으나 그 영향력은 다른 신체활동에 비해 적었다.

WHO(2010)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성인의 신체활

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걷기 포함) 또는 7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동등량의 중강도 및 고강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신체활동은 COVID-19 이전에 비해 줄었고, WHO가 권장한 성인의 신체활동 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이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COVID-19 이전 527분, COVID-19 상황에서 523분 이었다. 대학생의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에 큰 변화가 없고 장소이동 시간이 가장 적게 줄어든 것은 대학생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COVID-19 상황에서 여가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줄어든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가활동 중 고강도 여가활동은 남성, 공학계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학생에서 많았으며, 내향적인 성격과 건강상태가 보통이하 라고 응답한 대학생에서 적었다. 중강도 여가활동은 남성, 연령 24세 이상,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학생, 우울감을 느끼는 대학생에서 많았으며, 건강상태가 보통 혹은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에서 적었다. 결국 여가활동은 남성,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활발하며, 건강상태가 보통 혹은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18)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세 이상에 있어서,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남성이 40.5%이며, 여성은 40.0%로 거의 유사하였으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이 51.0%, 여성이 44.0%, 유산소 및 근력운동 실천율은 남성이 20.7%, 여성이 9.8%로 차이가 크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활동 정도가 높고, 대학생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 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서(지영주, 김경남, 2019),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활동 정도가 높게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66.7점으로, COVID-19 이전에,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

능감을 조사하여 평균 85.6점으로 보고한 연구보다 낮다(한경훈, 문경지, 노수림, 2018). 이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두 개의 하위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으로 측정되었다. '인지된 신체능력'은 신체적 기술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지적 능력이며,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이들 기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 수준으로 정의된다(홍영덕, 2018). COVID-19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 비해 이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신체활동이 줄고 특히 운동, 스포츠, 그 밖의 여가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가활동을 할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신체적 기술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감 및 스스로 깨닫고 있는 능력수준을 낮게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남성, 공학계열, 외향적 성격,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스트레스 인지가 낮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체력과 신체적 능력에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김정완, 강주평, 김상규, 2006). 이러한 성차는 스포츠에 대한 동기와 관련이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높고, 이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추론한 연구가 있다(이재구, 서경현, 2005). 한편,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과도해지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경험하고(Murphy & Archer, 1996),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재정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usselier et al., 2005). 또한 대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경현, 2011). 결국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의 손상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고강도·중강도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스포츠 참여나 신체활동량이 가장 밀접한 영향요인 이었다(권승용, 한남익, 2017). 또한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스포츠참여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삶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한경훈,

문경지, 노수림, 2018),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건강한 신체적 활동과 생활양식은 중년까지 이어져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5). 활발한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여가활동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은 WHO가 권장하는 성인의 신체활동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외향적 성격이 내향적 성격에 비해 높았으며,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할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COVID-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상의 여가활동 중심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에게 적합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OVID-19와 같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을 때, 대학생이 실제 행하는 구체적인 신체활동 내용을 조사하는 연구 및 향후 COVID-19 극복 후에 이 연구와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권승용, 한남익(2017), "달리기 운동과 줄넘기 운동이 초등학생의 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5(3): 291-298.
- 김정완, 강주평, 김상규(2006), "중·고등학생의 성·학년·체육학업 성취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763-772.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2019), 『국민건강통계: 국민영양조사 2018』.
- 서경현(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문제중심 대처 및 상/하향비교 대처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8): 217-236.
- 이상준(2017), “대학생들의 축구동아리 활동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구, 서경현(2005), “중학생의 지각된 체력, 체육교육에 대한 태도 및 운동 동기:성별 및 자기효능감 수준별 비교”,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815-826.
- 임승주(1988), “우울증 여성환자와 정상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증상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영주, 김경남(2019), “간호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영향요인 : 일개대학”,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509-519.
- 한경훈, 문경지, 노수립(2018),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스포츠 태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257-283.
- 현경선(2001),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전호흡 운동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선옥(1996), “운동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성 역할 유형변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영덕(2018), “대학생들의 비만도, 신체활동, 체력수준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ACSM)(2013), *ACSM's Resources for the Personal Trainer*,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1): 191-215.
- Caspersen, C. J., Powell, K. E., & Christenson, G. M.(1985), “Physical activity, exercise, and physical fitness: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for health-related research”. *Public Health Reports*, 100(2): 126.
- Dusselier, L., Dunn, B., Wang, Y., Shelley il, M. C., & Whalen, D. F.(2005), “Personal, health, academic, and environmental predictors of stress for residence hall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4(1): 15-24.
- Kilpatrick, M., Hebert, E., & Bartholomew, J.(2005). “College students' motivation for physical activity: differentiating men's and women's motives for sport participation and exercis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4(2): 87-94.
- Kim , G. S., Cho, Y. H., Ra, J. S., & Park, J. Y.(2008), “Correlations amo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networks, and health behavior in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2): 211-223.
- Murphy, M. C., & Archer Jr, J.(1996), “Stressors on the college campus: a comparison of 1985 and 1993”.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1): 20-28.
- Ryckman, R. M., Robbins, M. A., Thomaton, B., & Cantrell, P.(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5): 891-900.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06),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GPAQ, Ver. 20)*, Analysis Guide. Surveillance and Population-Based Prevention,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Department.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10),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Retrieved July 3, 2015. WHO.

Abstract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Kim, Gyu-Ri, Kim, Min-Ju, Kim, Se-Yeon, Kim, Hyun-Ji, Wang, Seo-Young, Lee, Ji-Won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hoi, Sun-H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sis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195 college students who had been studying at a university. Data was collected using on-line questionnaires from May 3rd to May 10th, 2021 and analyzed using SPSS 25.0. Physical activity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Physical self-efficacy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used by Hong, Young-duk (2018), it was developed by Ryckman et al.(1982). **Results:** The physical activity of college students was less than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recommended by the WHO for adul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ies(sports, exercise and leisure) and physical self-efficacy(high strength: $r=.32, p<.001$, middle strength: $r=.26, p<.001$). 72.8% of college students said that the COVID-19 situation had a strong impact on their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physical self-efficacy, males compared to females($t=5.94, p<.001$), engineering compared to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F=8.04, p<.001$), extrovert personality compared to introverted personality($t=-4.81, p<.001$) was high. In addition, physical self-efficacy was higher as they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good ($r=.53, p<.001$) and perceived stress as low ($r=-.35, p<.001$). **Conclusion:**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such as COVID-19,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of college students should consist of a customized program centered on leisure activities in their own space.

Key words: COVID-19,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College student

MDGs와 SDGs를 통해 살펴본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황병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이 지구촌의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고자 연면히 이어져 온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UN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게 된다. 2000년 9월 UN개발정상회의에서 지구촌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이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2015년 국제사회는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제시하였는데, 국제개발협력과 그 실천활동에 각국 정부와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도 모두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비로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염원하는 살기좋은 지구촌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주제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I. 서론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飢餓)를 퇴치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¹⁾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²⁾'를 채택하고, 2015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MDGs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합의한 새천년선언을 바탕으로 공동의 약속을 만들어 냈고, 빈곤 퇴치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제개발협력 요인의 전체적 연결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빈곤이 생겨나는 구조적 문제인 인권 침해, 불평등 등의 문제는 목표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황병수: hwan5827@gwnu.ac.kr,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담당분야는 국제사회복지이다.

- 1)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전'과 '개발'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동일하게 'development'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관례와 맥락에 따라 혼용되고 있음.
- 2)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 어젠다(agenda)이자 캠페인으로,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빈곤 퇴치에 관한 범세계적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여덟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있다.

그렇다면 변화를 거듭해 가는 이 지구촌에서 향후 국제 개발협력의 동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 새로운 시대의 국제개발협력은 더 이상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 감소와 발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MDGs는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과 보건, 교육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였으나, 지구의 빈곤은 결코 가난한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에 있어 선진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

때마침 MDGs는 2015년으로 달성 연한이 마감되었고, 그해 9월 제70회 UN 개발정상회의에서는 MDGs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³⁾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하는 국제적인 대협력의 중요성, 선진국의 상황을 포함한 불평등 문제 부각, 빈곤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주목,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참여를 주요 목표로 한다. SDGs는 지구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다루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로, MDGs와는 달리 전 세계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보편성의 원칙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등 오히려 선진국의 책임이 막중한 문제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SDGs에서 다루는 주제와 범위는 MDGs보다 더욱 다양하고 방대해졌으며, 빈곤과 개발의 구조적 문제와 전 지구적인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답게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자원이 국경을 넘어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교통, 통신, 정보의 혁신으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예전 의미와는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새로운 세기(世紀)가 시작되었고, 21세기 들어 바로 등장한 MDGs와 대비하여 SDGs를 심층 분석·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비전을 진단해 볼 수 있다.

II.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추진과 반성

1.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장의 시대적 배경

세기가 바뀌어 2000년 접어들어 9월 당시, UN의 189개 회원국은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발표,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8개의 주요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18개 지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제시하였다. 2015년까지 전 지구촌의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MDGs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안숙영, 2010; 천정웅 외, 2017: 180에서 재인용).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차원을 포함하는 MDGs는 이후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인간 중심적 개발, 인간적 세계화 및 범지구적 차원의 개발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틀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Holz, 2010; 천정웅 외, 2017: 181에서 재인용).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등장을 세부적으로 논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난 15년간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MDGs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DGs는 이전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 구실을 하였다. 개발협력 분야의 국

3)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칭하는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勞使),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主)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위키백과]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표 1〉 새천년개발목표(MDGs)

개 발	인간 개발	인권기반 접근	새천년개발목표(MDGs)
Development(ODA)	Human Development	Rights-Based Approach (RBA)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945년 →	1990년 →	1990년 후반 →	2000년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 하에 경쟁적으로 진행된 개발은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에 집중되었고, 추후 공적개발원조(ODA)로 연계되면서 국제개발이 주류화 됨.	경제개발에 치중한 패러다임이 대안적 접근으로 개발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사람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자유'를 강조하며 발전에 사회발전 측면이 추가됨. UNDP에서 '인간개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함.	개발,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에 기초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인권향상을 강조함. 발전의 결과로 여성과 아동 및 취약계층의 인권향상과 부패방지, 법치준수 등이 향상되는지를 중요시함.	분산적이며 단편적인 개발 대신,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관되며 총체적인 개발체제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함. 모든 문화와 사회체제가 받아들이는 개발목표의 선정이라는 의미를 가짐.

자료: 이경희, 2014: 6; 천정웅 외, 2017: 183에서 재인용.

제구범으로서 MDGs는 빈곤의 문제를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모두의 과제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감소 추세에 있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김인 외, 2015; 천정웅 외, 2017: 181에서 재인용).

2.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주요 내용

앞서 〈표 1〉에서 살펴 보았듯이, MDGs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MDGs에서는 지금까지 빈곤완화, 환경, 교육, 여성개발 등의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패러다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변해 왔는데, 1990년대부터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국가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원조의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인권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 개념이 중시되었다. 즉 원조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개발이 인권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200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단일한 개발의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특징이다(이경희, 2014; 천정웅 외, 2017: 182에서 재인용).

UN은 MDGs의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을 위해 1990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성과지향적인 세부 목표(targets)와 지표(indicators)를 선정하였다. MDGs의 8개 주요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는 모두 21개이며, 이들 목표의 개발성고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지표는 60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8개의 주요 목표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4) 아동 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이 있으며, 21개 세부 목표는 〈표 2〉와 같다.

〈그림 1〉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자료: 구글 <https://www.google.co.kr> : MDGs(2021)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8대) 주요 목표	(21개) 세부 목표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1990년~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1990년~2015년간 기아 인구 비율 반감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목표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 교육에서 성별간 차이를 초·중등교육은 2005년까지, 모든 교육은 2015년까지 제거
목표 4. 유아사망률 감소	· 1990년~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
목표 5. 모성보건 증진	· 1990년~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2015년까지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치료의 보편적 보급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 ·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비율 반감 · 2020년까지 최소 1억명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여건의 현저한 향상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없는 무역·금융체계 발전 · 저개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 내륙국 및 소규모 도서지역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 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채 문제의 포괄적 해결 · 민간 제약회사와 협력, 필수 의약품의 개발도상국 제공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자료: 한국국제협력단(<http://www.koica.or.kr>): UN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2014)

3.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 및 비판적 성찰

비록 완벽한 목표 달성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MDGs는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MDGs는 시간적 목표와 정량적(quantitative) 목표치, 그리고 측정을 위한 지표(indicator)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중심'의 문화가 개발협력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게 기여하였다. 결과 중심의 문화 또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막연한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지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이내에 객관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 중심의 패러다임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원조 사업 수행 이전에 현재 상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baseline survey)를 시행하고, 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중간 점검, 즉 모니터링(monitoring)을 시행하는 문

화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MDGs의 결과 중심 패러다임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후속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DGs의 의의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가발전 목표수립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고, 공여국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MDGs 중심 중점목표를 존중하여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공동의 노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임소진, 2012; KOICA ODA교육원, 2016(입문편): 164에서 재인용).

MDGs는 1990년대 이전 약 반세기 동안 강조되어 왔던 경제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사회개발과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공여국의 대 개발도상국 지원과정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역효과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 예로,

MDGs 수립 이후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지원은 감소하고 거버넌스 강화나 국가제도 마련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 분야보다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MDGs는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각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상이함에도 모든 개발도상국이 동일한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졌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아가 MDGs의 성과 점검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발전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MDGs는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과제로 여겨져 공여국에게는 책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이는 또한 일부 선진공여국 위주로 개발된 MDGs 수립과정에 대한 한계와도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MDGs는 개발도상국들의 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목표 수립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MDGs의 의의 중 하나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정량적(quantitative)인 목표치를 지향하다 보니 개발의 정성적인(qualitative) 부분을 간과하게 되어 자연히 미흡한 질적 성과를 초래한 점이 없지 않았고, 이러한 MDGs 이행 상의 한계는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정에 반영되어 보완되었다(KOICA ODA교육원, 2016(입문편): 164~65.).

III.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분석과 비전

1. Post-2015에 대한 논의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장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2001년부터 이행해 온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이를 대체하여 UN이 주도하여 이행할 새로운 캠페인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등장하게 된다.

2015년 9월 25일(금) 전 지구촌 193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지난 MDGs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재원과 개발 대상, 참여 주체, 거버넌스(Governance)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목표의 이행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며 우려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구촌 인류가 처한 작금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금번 채택된 SDGs는 2010년 이후 UN 차원의 논의가 개시된 이래, 전 지구촌의 각국 정부, 학계 및 각종 연구기관, 시민사회와 각급 민간단체에 소속된 약 140여만명의 거대한 인원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0년 뉴욕에서 개최된 UN의 MDGs 정상회의에서 지구촌 전체의 각국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Post-2015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당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11년 UN경제사회부서(DESA)와 UN개발계획(UNDP)의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60여개 이상의 UN 기관 및 국제기구로 구성된 'UN시스템 작업반'을 결성하여 Post-2015 개발의제 발굴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2012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라이베리아 대통령 및 영국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분의 대표 등 27명으로 '고위급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15 개발의제 구성을 위한 조언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과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2013년 UN 사무총장은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의 기본 틀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UN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20(Rio+20)'⁴⁾ 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최종 성명

서를 채택하여 향후 지구촌의 발전 목표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SDGs⁵⁾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면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가 분산되는 우려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13년 UN 총회를 통해 설치된 ‘공개 작업반’(OWG)이 UN 차원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와 ‘리우+20’ 회의의 두 제안을 통합하였고,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2014년 7월까지 총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UN은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존엄을 위한 길’이라는 종합보고서를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UN에 가입한 지구촌 각국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비로소 SDGs 탄생에 맞이하게 되었다(유웅조, 2015).

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내용 비교·분석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캠페인 이슈는 MDGs와

함께 단연 바로 이어 등장한 SDGs이다. 총 17개의 주요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기한이 만료된 MDGs 이후의 대안으로서 ‘Rio+20 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과 환경보호 등과 함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박지영, 2016). 이러한 SDGs는 MDGs에 대한 많은 비판과 우려, 그리고 MDGs의 단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개발목표를 수립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임원혁, 2012). Post-2015 SDGs에서는 단순한 경제개발이 아닌 포괄적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SDGs는 기존의 개발목표와는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지구촌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체제이다. 또한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UN, 2013; 천정웅 외, 2017: 196에서 재인용).

앞서 살펴본 MDGs와 SDGs의 주요 영역을 일목요연하

〈그림 2〉 MDGs와 SDGs의 주요 영역



자료: <https://brunch.co.kr/@ecclesia/14>

4) 이 명칭은 1992년 독일 장소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UN지속가능정상회의’ 또는 ‘지구정상회의’, 또는 ‘리우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개최되고 개최된 회의라는 의미임. UNCED는 10년에 한번씩 열렸으며,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리우+10(‘Rio+10’)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5) 여기에서는 주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표 3〉 MDGs와 SDGs의 주요 영역 비교⁶⁾

주요 영역	MDGs	SDGs
기아 및 빈곤퇴치	1.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기회 향상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4.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모든 연령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증진
여성인권 보장	3. 양성평등 및 여성의 인권향상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의 인권 향상
건강·보건 증진	4. 아동사망률 감소	3. 모든 연령층의 건강 및 복지증진 6. 식수 및 위생 접근성 보장과 지속가능한 관리 7. 값비싸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5. 모서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 양질의 일자리 촉진 9.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혁신의 추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개선 11. 도시 및 인류 주거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보장 13.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및 해저자원의 보전 및 사용 15. 육지생태계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 방지, 토양유실 중단 및 토양 복원, 생물 종(種) 손실 중단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로운 사회 실현, 신뢰할만 하며 포용적인 모든 수준의 제도 구축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행수단의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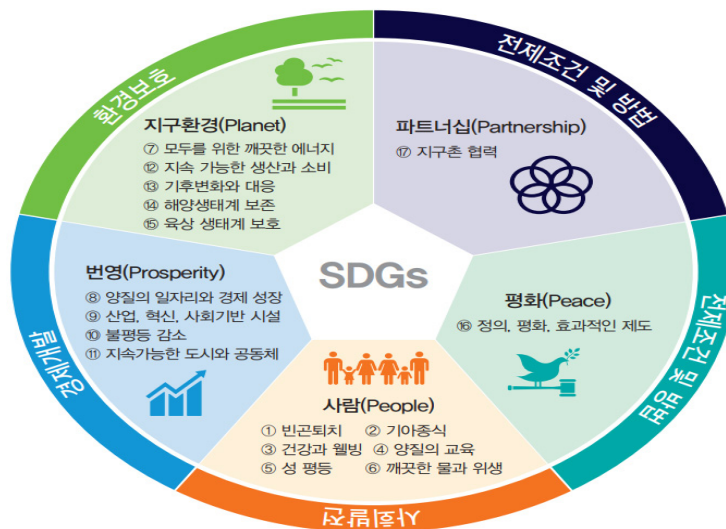
자료: 박경환·윤희주, 2015

계 그림과 도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SDGs는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다수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바, 인간(people), 지구(planet),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파트너십(partnership)을 핵심 주제로 모든 인간이 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교육과 보건위생, 안전한 주거와 에너지 접근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SDGs의 5가지 구성 요소



자료: <http://www.greencw21.or.kr/sites/index/MUTQ1518415917>

6) 각 목표의 순서는 UNDP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름.

특히 SDGs는 이전의 MDGs와는 달리, 첫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의제로, 둘째,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변혁적 의제로, 셋째, 소외된 취약계층까지 망라하는 포용적 의제로서, 구체적인 이행수단은 물론 강력한 후속조치 및 평가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김인, 2015).

〈표 4〉 새천년개발목표(MDGs) v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특징

구분	MDGs (2001년~2015년)	SDGs (2016년~2030년)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UN 개발정상회의〉 MDGs와 SDGs 비교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위의 외교부 자료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듯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universal) 의제이자,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의제로 기존의 선진국-개도국간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하고, 인류 공통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용적(leave no one behind) 의제로서, 소외·취약계층까지 고려하면서,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 강조한다. 그리하여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행수단 및 강력하고도 다층적(국가-지역-글로벌)인 후속조치와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여, 다양한 재정적(ODA, 국내 공적 자원, 민간 자원 등) 그리고 비재정적(과학, 기술, 역량강화 등)인 이행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과 향후 전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MDGs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UN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9월 25일, 제70회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SDGs가 채택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표에서는 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란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 및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SDGs에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개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등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SDGs가 MDGs와 가장 구별되는 부분으로서 일부 국가,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었던 MDGs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의 원칙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 대응 등 선진국의 책임이 막중한 문제들도 포함된 것이 주목을 끈다.

이와 같이 SDGs는 지금까지 전 지구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논의해 온 결과를 모아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제시하였다. 고로 SDGs에서 다루는 주제와 범위는 MDGs보다 더욱 방대(龐大)해졌으며, 빈곤과 개발의 구조적 문제와 전 지구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다소 지나치게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빈곤과 불평등이 사라진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KOICA ODA교육원, 2016).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극빈층 및 취약 계층을 비롯해 UN은 물론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지구촌 모든 주체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로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대(連帶)와 상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SDGs의 모든 목표가 충실히 달성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살기좋은 지구촌이 건설되기를 기대해 본다.

IV. 논의 및 결론

현재 약 77억명 내외의 인류와 210여개 국가로 구성된 이 지구촌은 선진국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 협력, 더 나아가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빈곤과 기아(飢餓), 인권유린, 환경오염, 기후변화, 분쟁과 테러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기업, 재단, 그리고 온 인류 개개인 모두를 포함한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혜적(施惠的) 성격의 원조보다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이 보다 지향되어야 할 시점이다.

Post-2015 시대를 이끌어 갈 SDGs는 보편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면서, 현재 지구촌 전체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회발전,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요소들 간의 조화를 꾀하는 작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각자 보다 효과적인 SDGs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

첨단 전자통신기술과 교통수단으로 네트워크화(化) 되어있는 오늘날의 이 지구촌은 개인과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과 그 실천 활동에 각국 정부와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국제개발 NGO 등 다양한 민간

부문의 주체들도 모두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협력관계를 설정할 때, 지구촌 모든 인류가 염원하는 살기좋은 지구촌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김인(2015). "KOICA 중장기 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2014(4), 3-35.

박경환·윤희주(2015). "개발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IDC)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18(3), 19-43.

박지영(201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한 경제성장 관련 연구: 아세안 국가들과 사하라 남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용조(201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제1069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임소진(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14), 1-65.

임원혁(2012).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KDI FOCUS* (25), 1-8.

전정웅 외(2017). 『국제사회복지론』, 서울: 신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2018). 『해외봉사단원과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교육자료 글로벌인재교육원 2018-01-259).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2016).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KOICA ODA교육원, KCOC.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2016). 『국제개발협력(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입문편)』, ㈜시공미디어.

UN(2013).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ebsite: http://www.un.org/sg/management/pdf/HLP_P2015_Report.

구글 홈페이지 - <https://www.google.co.kr>

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 <https://terms.naver.com>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mofa.go.kr>

위키백과 홈페이지 - <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 <https://www.koica.go.kr>

Abstract

New Trend & Future Prospec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represented in *MDGs* & *SDGs*

Hwang, Byungsoo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end of the World-War II,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resolve or alleviate problems such as famine, disease, and extreme poverty on this planet. Especially, in 2015,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project had finish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newly set up as a new global project to end human poverty, and to handle the other global cross-cutting issues like gender-inequality, dehumanizing conditions, environmental degradation, etc.. It is assumed, therefore, that the IDC activities to accomplish SDGs will be more complicatedly implemented because SDGs contain more expanded and diversified forms of project targets than before. Strengthen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ing the global partnership for SDGs in any wide-ranging practical steps has enabled people across the world to improve their lives and their future prospects.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can deliver on our shared responsibility to put an end to poverty, leave no one behind and create a world of dignity for all.

Key words: MDGs, S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lobal partnership

심미적 경험을 위한 유아음악수업 예비연구

김순주(꿈모아 아이사랑 어린이집 교사),

김현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아의 심미적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아 음악 수업지도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업지도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의 대상은 유아의 기본적인 신체, 인지, 정서발달과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여 만 4세 유아로 선정하였고, 수업의 내용은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한 제재곡이 선택되었다. 수업 활동으로는 유아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여러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과 효과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위하여 제재곡에 대한 다양한 활동 즉, 탐색, 표현, 감상 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수업은 차시당 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짧은 집중력을 고려하여 주 활동시간을 20분으로 구성하였고, 유치원 일과 중 자유 선택 활동 혹은 대·소집단 활동 시간 중 영역별 수업 구성을 고려하여 주1회 혹은 2회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음악수업을 위한 예비 연구이기 때문에, 이후 본 수업지도안의 실제 적용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심미적 경험, 음악, 수업지도안, 그림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 음악교육은 음악교육의 학문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대상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영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은 감수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심미적인 면을 강조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미적 태도는 미(美)적 요소를 탐색하고 작품에 대한 본질의 가치를 알게됨으로 심미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예술교육에서 그 기회를 지식교과 의 교육보다 감성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심미

적 태도의 함양은 유아의 일상 속에서 긴밀히 일어나고 있는 음악적 활동이 유아의 심미적 태도의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음악은 타 예술과 달리 심미적 경험을 원초적으로 어떠한 교육의 형태 없이도 경험이 가능한 예술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이 좋은 감정을 유발하여 도움과 협력 그리고 나아가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Mithen 2008, 148).

영유아 음악교육은 영유아가 음악적 개념을 습득하도록 도와서 개인이 타고 나가거나 혹은 훈련에 의해 형성된 음악성을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음악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유아 스스로 미에 대한 감각을 넓히고 그러한 훈련된 감각을 그들의 음악적 활동 속에 재구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이런 활동은 영유아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 되어야 타고난 음악 적성을 계발하여 평생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영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적 감각을 키우고 음악적 맥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다양한 음악활동은 영유아의 사고를 촉진시키고, 상상력을 발달시키며, 감성을 풍부히 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체험을 제공하여 기억과 언어기술 발달에 도움을 주고, 논리성과 이성적 사고 기술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석문주 외 2004). 그렇다면 현재 유아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악 수업이 유아에게 충분한 음악적 경험과 심미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을 사용하며, 2019 개정 누리과정 속 예술 영역은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예술적 경험을 즐기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를 목표로 한다(교육부2019, 2).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술 작품 속의 미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으로 심미(審美)활동을 뜻한다. 유아는 작품 속에 내재된 미적인 것을 찾는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예술적인 경험 즉, 감상, 연주, 창작 등의 다양한음악적 활동을 하며 경험되는 즐거움을 얻는다.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미적 체험과 예술적 경험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의 발달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아 교사들은 심미적 교수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나 연수가 불충분하며 심미성 증진을 위한 수업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류미향 외 2009). 또한 교사 스스로 제재곡이나 음악의 형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후 느낀 점 나누기 등의 활동만으로 유아에게 심미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심미적 경험을 촉진하여 유아의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지도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업지도안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악적 활동을 다채롭게 구성하거나 교수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그림책은

시각과 청각에 민감한 유아들에게 좋은 교수매체이며 음악 수업에 그림책을 접목 한다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작곡가가 의도하는 작품의 내용과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청각 언어라고 한다면 그림책은 글이 주는 운율적인 아름다움과 줄거리와 그림이 나타내는 상황과 분위기를 시각 언어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처럼 그림책과 음악은 다른 영역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현은자, 김세희 2005). 따라서 본 논문은 보다 다양한 활동과 그림책을 이용하여 유아의 심미적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아 음악 수업 지도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심미적 경험을 위한 유아 음악 수업 지도안 연구이며, 그림책을 활용하여 수업 안을 구성하고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과 음악적 발달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목적인 심미적 음악 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유아기의 심미적 음악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수업 지도안의 모형이 될 누리과정의 개념과 내용을 알아보며 내용이 본 논문의 수업 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연구한다. 또한 수업의 매체인 그림책의 중요성과 유아 음악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수업은 차시당 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짧은 집중력을 고려하여 도입과 정리 및 평가 각 5분을 제외한 20분의 활동 시간으로 구성하며, 유치원 일과 중 자유 선택 활동 혹은 대·소집단 활동 시간 중 영역별 수업 구성을 고려하여 주1회 혹은 2회로 설정한다

6세(만4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생활 주제와 제재곡의 소재 그리고 그에 맞는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유아 음악 지도안을 개발한다. 제재곡으로는 생활 주제 중 유아에게 친숙한 주제인 누리과정 생활 주제 중 사계절을 주제로 쇼팽(F. Chopin)의 15번째 곡을 제재곡으로 선정한다. 이 곡은 빗소리를 표현한 곡으로 '빗방울 전주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여름을 세부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비 내리는 풍경과 빗소리를 의성어로 잘 표현한 저자 최성옥과 아동 그림책 작가 김효은의 그림책 『비 오는 날에』를 활용하여 3차시 수업안을 개발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문헌 탐색을 통해 유아 음악 교육에 관한 많은 문헌을 찾을 수 있었으나 '심미적' 경험을 중점으로 한 유아 음악 교육 연구는 많지 않았다. 사실, 유아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유아의 심미적 태도를 함양하고 경험에 이르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아 음악 교육에 관한 문헌이 '심미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문헌의 핵심어 중 '심미적', '유아 음악교육'이라는 키워드로 탐색을 통해 몇 가지 문헌을 고찰하였다.

첫째로, 김성민(2011)은 심미적 접근을 통하여 유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유아가 음악적 개념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언어, 교수매체, 심미적 주제를 통하여 즐거운 음악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감각 열기, 음악 즐기기, 음악을 통한 심미적 체험, 생각 정리하기'의 전개 순서와 유치원 교육과정의 생활주제를 바탕으로 활동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프로그램은 만 4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미적경험의 반응도를 검사하여 유아들의 심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집단과 같은 연령대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고, 4단계(감각열기, 음악 즐기기, 음악을 통한 미적체험, 생각정리하기)의 프로그램 구성 원리는 필자가 수업 지도안 연구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문헌 이었다

김순옥(1999)은 유아의 발달단계와 음악적 특징을 이야기 하며 유아가 성장하면서 함께 발달되는 음악적 특징에 대해 먼저 연구하였다. 그리고 유아 음악 교육 속에서 얻는 심미적 체험에 대해 연구하고 달크로즈(E. J. Dalcroze 1865-1950), 코다이(Z. Kodály 1882-1967), 오르프(C. Orff 1895-1982)의 음악 교수법과 심미적 경험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이는 음악적 활동으로 음악 듣기, 연주, 창작의 세 가지는 활동 영역을 통해 심미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교사는 어린이의 만족스럽고 즐거운 심미적 경험을 위해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며 지지와 격려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헌은 심미적 경험을 위한 유아 음악 교육의 이론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유아기의 음악적 발달, 심미적 체험에 대한 이론과 개념 등은 본 연구의 방향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손채영(2010)은 신체 동작 활동을 통해 유아 음악 교육을 연구하고 그의 심미적 접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소리와 리듬, 감상 그리고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에 신체 동작 활동을 접목하여 유아의 미적 경험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둘째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 음악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음악적 창의성', '창의적 음악교육'을 핵심어로 연구한 것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의 심미적 경험을 위한 연구는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에 실린 이승미, 김민진(2012)의 학술지 논문 "음악동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성 및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뿐이었다. 감상활동의 순서로는 먼저 동화를 감상하고 그 후 그림책 내용을 회상한 다음 음악을 감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표현 활동에서 음악적 특성과 음악을 이야기 하며 심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내면화된 음악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였다. 검사 결과를 통해 그림책 없이 음악 감상 활동만을 한 것 보다 음악동화를 활용한 감상 활동이 유아의 음악성 증진에 더 효과적인 것을 결과로 알 수 있다. 이는 그림책을 통해 제재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유아가 먼저 경험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음악 동화 그림책이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유아의 음악성과 음악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위의 선행 문헌의 고찰 결과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의 심미적 음악 교육을 위한 수업 지도안을 연구하여 유아에게 친숙한 그림책이 다양한 음악적 활동과 결합

되었을 때, 유아가 만족스러운 음악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식 교육이 아닌 음악적 개념을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업안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교육과 유아음악교육

1) 유아교육의 이해

어떤 이들은 유아 교육을 단순한 ‘양육’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며, 교육학의 한 분야로 여긴다면 그것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학문적 단계 중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어떠한 능력들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유아교육의 개념이자 과제이다. 이를 위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 유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하며, 건강한 심신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보육을 통하여 유아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돕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정을 거쳐 0세에서 2세까지의 표준보육과정, 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과정의 영역 체계와 세부 내용에 따라 수업을 구성하며 유아 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며 아동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유아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왔다. 몬테소리(M. Montessori 1870-1952) 여사는 유아는 선천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내면의 발달단계에 따라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곽노의, 홍순정 2003).

비고츠키는 또한 사회와 문화의 역할이 모든 인간의 지식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유아는 앞선 동료나 성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지발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아의 학습

에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며, 고등사고가 가능한 성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인지발달-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양옥승 외 2015).

그러므로 유아교육 속에서 일어나는 성인(교사)과 유아(학습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인지발달을 돕고 탐색 활동을 통해 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심미적 경험에 이르게 하는 단계에 다다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아의 문해 활동은 그림책을 교사와 그리고 또래와 함께 읽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음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회상 등 그림책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책 속의 이야기와 그림을 읽으며 인지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은 유아에게 심미적 경험의 축진을 불러온다.

2) 유아 음악 교육의 이해

영유아 음악교육은 음악을 듣고,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느낌을 체험함으로써 소리를 매개로 한 사물과 자연과 환경을 미적으로 느끼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반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의 음악활동은 노래부르기로 국한 될 수 없으며 음높이, 소리탐색, 창작, 음악하기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한다. 음악교육학은 영유아가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인지한 음악적 개념을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음악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영유아가 평생 지니고 갈 음악에 대한 기호를 갖추는 일로 이어지므로 (Campbell & Scott-Kassner, 1995), 영유아음악 활동은 반드시 이 모두의 영역에서 고루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음악적 개념은 각 활동의 핵심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유아 음악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발달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다(심성경 외 2003, 20-23). 첫째, 신체적 발달을 돕는다. 노래하기, 신체 표현하기 등은 눈과 손 그리고 팔과 다리의 협응력과 대근육 그리고 소근육의 조절 능력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음악의 빠르기를 몸으로 표현하기, 탭버린 연주하며 행진 해보기 등은 유아의

신체적 발달을 돕는다. 둘째, 음악은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음악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며 타인의 감정도 소중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는 성숙한 감정표현의 증진을 돕는다. 셋째, 음악에 대한 이해나 소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해력 발달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거나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음악을 인식하고 노래를 기억하며 다시 흥얼거리거나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인지발달의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유아는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의 의미와 형태를 학습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음악 감상 후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며 언어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다섯째,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악기를 탐색하고 즉흥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듣고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등의 활동은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여섯째,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 유아는 또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심과 배려를 배운다. 음악을 통해 단합과 축하를 경험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음악적 표현활동에서의 성취는 자아개념 성장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선율과 리듬을 통해 음악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을 개발하고 미적 경험의 기회를 얻는다. 음악활동을 통해 느끼는 감동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유아의 심미적 발달을 돕는다. 심미적인 가치를 지니게 함은 음악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은 유아기 음악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음악의 본질을 탐구해 나가고 능동적인 음악 표현의 경험으로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확대하고 나아가 심미안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적 경험의 기회 획득’은 심미적 경험과 체험으로 유아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음악의 본질을 알게 하고 음악 자체만으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즉 유아 음악 교육은 어떠한 음악적 기능을 연습하고 숙달시키는 것이 아닌 기초적인 예술적 감수성, 유아의 심미적 감각의 조기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2. 유아기 발달과 음악적 발달

유아기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연령대를 뜻하며 영아기에 비해 비약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은 신체, 인지, 언어 그리고 사회 및 정서 발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이영 외 2009, 243-325).

비고츠키와 피아제는 공통적으로 어린이의 사고(思考)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 정신적으로 능동적이어야 하며 놀이를 통해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김아영 2007, 15-77). 피아제는 인지능력의 발달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네 가지 단계의 순서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중 전조작기는 만 2세에서 7세의 유아기를 말한다. 피아제는 이 시기의 유아들은 언어와 상징적 사고 능력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키며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미숙한 보존개념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특징이라고 하였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였던 비고츠키는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자기조작능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상위 개념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유아 역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또래 집단과 놀이나 활동을 통해 인지 발달이 촉진되며 교사가 적절히 조작한 학습이 유아의 인지, 정신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영아가 간단한 단어를 학습하고 명사 위주로 언어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면 유아기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영아기보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명사와 동사의 사용 그리고 때로는 형용사, 수식어 등을 사용하여 긴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은 ‘왜’와 ‘누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중심적 사고에 아직 머물러 있으므로 타인보다는 나 자신 위주의 언어가 발달된다. 즉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의 생활 속에 연관된 가족, 동물, 주거 환경 등 ‘나’와 관련된 어휘, 언어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유아기에는 영아기 때보다 많은 영역에서 급격한 발달 속도를 보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의 인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므로 발달적 특징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출생하기 전부터 산모의 심장박동이나 외부의 소리에 노출되고 이는 청각을 발달시킨다. 출생 후 영아는 언어의 개념을 인지하기 전에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리듬이나 박자 그리고 멜로디에 크게 반응한다. 그리고 운율이나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아이에게 말을 걸고 후에 아이는 일정한 박자나 멜로디에 반응하여 나아가 언어의 학습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Mithen 2008, 105-108).

3. 심미적 유아 음악교육

음악이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학자 듀이(J. Dewey 1934)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음악은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이 경험의 과정 속에서 얻는 삶의 균형, 불균형 그리고 필요와 충족은 심미적 경험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권덕원 외 2009). 유아기의 심미적 음악 교육은 전인발달의 기초를 제공하고 음악적 감수성 발달을 통해 심미안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Anderson & Lawrence 1985; Perry 1998; MENC 1994; 안재신 2004; 교육부 2015).

유아가 스스로 소리를 지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유아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식별 능력이 정교하게 발달되지 않으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소리를 탐색하는 과정은 자아의 탐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탐색,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리의 탐색과 식별 능력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실내와 실외 등 어디에서나 들리는 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여 유아에게 다양한 자극을 줌으로써 그들은 소리의 높낮이와 넓이를 능동적으로 지각하고 나아가 음색, 음고의 식별을 통해 음악을 즐기며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한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은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다. 특히 유아들은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자아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며, 유아의 사회성이 향상되기도 한다. 유아의 노래

부르기는 성인 수준의 완벽한 가사, 음정, 박자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들은 말하기와 찬트(Chant)를 통해 목소리를 통해 노래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개사를 하거나 자신만의 언어를 이용하여 작사를 하면서 언어와 인지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유아들은 또한 짧은 구절의 노래부터 시작하여 후에 만 6~7세에 다다르면 비교적 긴 길이의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 4세부터는 조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분위기의 노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악기의 탐색과 연주를 통하여 유아 스스로 소리와 리듬을 탐색하며,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유아기는 소리나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고정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양한 음악의 종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유아들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져보고 소리를 내어보는 탐색 활동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가 스스로 악기를 사용하여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함은 무척 중요하다. 이로 인해 소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만든 리듬으로 연주를 하는 등 직접적인 음악 활동의 참여로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발달된다. 그리고 다양한 악기의 탐색을 통해 소리의 다양함과 크고 작게, 빠르고 느리게 등의 음악적 표현 요소를 홀로 혹은 또래와 교사와 함께 익힘을 통해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감상 활동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유아에게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주의 깊게 감상할 수 있게 도와, 듣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느끼며 나아가 음악에 대한 탐구와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게 한다. 이는 유아가 음악을 탐색하며 느끼고 그를 표현할 때 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감수성의 풍부한 발달을 돕는다. 그리고 음악을 느끼며 유아에게 일어나는 음악적 경험은 심미적 체험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음악적 창작 활동을 통해 심미적 경험의 기회를 얻는다. 유아는 일상 속에서 음악적 요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예로 또래 집단과의 놀이 속에서 일정한 리듬의 짧은 어구를 이야기 하며 박자 감을 익히고, 머릿속에 있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연스레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적 창작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는 노래나 리듬의 난이도는 향상되며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음악적 창작 활동은 유아가 속한사회 속에서 혹은 유아 개개인 이 음악의 즐거움을 깨닫고 경험하기에 심미적인 경험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유아가 스스로 예술 작품에 대해 지각하며 반응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높은 감수성과 미적 가치를 경험하게 한다. 즉, 유아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후에 성장하여 음악 그리고 나아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 내적인 미(美)의 풍요를 지닌 삶을 누리게 되는 기회를 얻고 이는 상상만으로도 감동적인 일이며, 이는 심미적 음악 교육의 목표이다

4. 누리과정

1) 누리과정의 이해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0세에서 2세까지의 교육·보육 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리과정은 건강하며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에 목적을 두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 (가) 기초적인 신체, 운동 능력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나) 일상에서 필요한 바른 언어의 사용 습관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다)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예술적 경험을 즐기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 (마) 주변 세계를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일상에서 수학·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예술적 경험을 즐기고 창의

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유아의 심미적 경험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누리과정의 예술 영역은 무척 포괄적이고 어떤 특정한 예술 교과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습해야 할 요소나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유아의 학습 목표가 경험과 체험으로 유아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활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심미감이 어떠한 목표 도달 보다 우선적인 이유 때문이다.

5. 그림책과 유아 음악 교육

1) 그림책의 중요성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시각적 자료의 활용은 유아 교육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그림책에서 아주 잘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언어의 직접적인 체험, 나아가 촉각 경험의 기회 등 다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창의성 증진과 심미감 발달에 효과적인 교육 매체이다(현은자 외 2007. 김현희, 박상희 2008. 정남미 외 2009 재인용).

욕구 위계설로 저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은 누구나 1차적 욕구인 결핍 욕구와 2차적 욕구인 존재 욕구를 가진다고 하였다. 매슬로우는 또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른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 훈련과 자율적인 통제로 성장해야 하며 욕구 충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생존, 소속, 안전, 자존의 욕구인 1차적 욕구 즉결핍 욕구로 유아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욕구의 충족이 일어나는데, 그림책은 간접적으로 1차적 욕구들을 경험시켜 주고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충족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2차적 욕구인 존재 욕구로는 상위 수준의 욕구인 심미적 이해, 지적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로 결핍 욕구의 충족이 잘 이루어진 후, 존재 욕구의 충족의 동기를 갖는다고 하였다(이상금 1998, 23-30). 따라서 그림책은 유아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자아실현을 위해 심미적인 체험을 추구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한다.

2) 그림책과 유아 음악 교육

그렇다면 그림책과 음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독자적으로 그려나 하나로 융합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유기적인 관계가 마치 합주와도 같으며 글과 그림의 조화가 하나의 화음처럼 연출되어야 한다(이상금 1998). 또한 좋은 그림과 음악은 모두 예술적 안목 즉 심미안을 발달시켜 특히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정엽은 그림책을 유아 음악 교육의 교수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근거로 설명하였다(이숙희 2010; 진정엽 2013). 첫 째, 유아는 음을 개념화, 즉 인지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목소리와 악기소리를 구별하며 이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림책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음악적 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아버지는 낮고 굽은 목소리로 글을 읽고 어머니 목소리는 보통 여성의 음역대로 표현한다. 그리고 악역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목소리를 굽거나 높고 카랑카랑하게 만들어 음역대와 음색의 차이를 알고 음악적 요소를 통해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다. 둘째, 그림책 속 이야기 중 의성어, 의태어 등의 표현은 일정한 리듬감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에게 언어적 그리고 음악적인 요소의 경험과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로젠 마이클 글, 옥슨버리 헬렌 그림의 『곰사냥을 떠나자』는 ‘사각 서걱’, ‘땀땀 땀땀’, ‘치벌 철벌’ 등의 다양한 의성어와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등의 반복적인 문장을 통해 언어적 그리고 음악적 요소를 일정한 운율 감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다(마이클, 로젠 외 2006, 1-16). 셋 째, 그림책 속 사건의 발생이나 소리의 크기, 감정의 변화 등을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넷 째,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감정, 분위기, 공간의 높낮이나 크기는 음고의 높낮이나 셈여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악적으로 재 개념화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통해 그림책에서 내포하는 의도와 감정을 음악으로 표

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계성으로 그림과 작가들의 상상력의 산물인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은 음악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교수 매체 중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음악을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유아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나아가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추상적인 소리와 음악을 이미지라는 구체화 된 사물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아의 상상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다.

III. 심미적 경험을 위한 유아 음악 수업 지도안 연구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앞에서 연구한 유아의 기본적인 신체, 인지, 정서발달과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에서 해당하는 연령 중 만 4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만 4세의 유아는 3세보다 더 발달된 음역대를 지니게 되고 더 정확한 음정과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다. 어휘력과 표현력 그리고 음악 감상의 집중력이 만 4세의 유아에게서 비약적인 발달을 보이므로 4세의 유아가 본 수업 안의 대상연령으로 적절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글과 그림읽기가 가능한 수준의 언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림책이 주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그를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음악적 요소를 악기로 연주하기 위해 소근육, 신체 부위의 복합적인 협응력 등 신체적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만 4세의 유아를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2. 연구내용과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의 심미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음악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수업 안은 인간의 오감 중 유아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과 청각을 고려하여 음악 수업과 그림

책의 접목을 통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음악의 이해를 돕고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본 논문의 수업활동은 3차시로 이루어진 비가 내리는 모습과 소리를 잘 표현한 곡을 주제로 한 '비'주제의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3. 제재곡과 그림책 선정

유아기는 아직 음악의 장르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시기이므로 교사가 더욱 개입하여 유아가 성장하여 자발적으로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와 함께 일상 속에서 공존하는 음악과 인생의 첫 문학작품인 그림책을 함께 접목하여 심미적 경험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음악 수업을 제시한다.

최성옥 작가의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오는 날 집에 찾아온 동물 손님들을 안으로 들이고, 비가 그칠길 기다린다. 하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많이 내리다 날이 개는 내용이다. 이 그림책 속에서 일정한 리듬의 짧은 구를 찾을 수 있는데, '줄줄줄' '줄줄줄'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비의 양이 늘어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비가 내렸어' '비가 계속 내렸어'와 같은 반복적인 문장을 읽으며, 또 다른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4. 수업 지도안

1) 교수-학습 모형 설계

본 활동으로 탐색, 표현, 감상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표현만하는 것으로 짧은 집중력의 유아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신체표현을 하더라도 미술적이나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듬악기 연주와 리듬의 학습이 목표라면, 그 전에 악기의 생김새나 느낌을 먼저 탐색하게 한다. 그 후, 유아가 악기 탐색에 대한 느낌을 미술, 언어 혹은 신체적 요소로 표현해본 후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이 더욱 기억에 남고 악기만 연주하는 것보다 더욱 다양한 느낌과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교수법과 교수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유아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여러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과 효과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어떤 영역을 사용하여 본 활동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이는 평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활동과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목표가 잘 전달되었고 학습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교수매체로 사용한 본 수업 지도안에서는 음악 수업만으로 얻을 수 없는 누리과정의 예술 영역의 미술적 표현이나 언어적 인 표현을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교수-학습모형〉

단계	누리과정 내용범주	누리과정 내용	교수-학습 활동
도입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감상하기	- 제재곡 감상하기 - 작곡가 알기 - 그림책 읽기 -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고 듣기
활동	예술적 표현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 감상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표현하기 음악적 요소	- 음악적 요소를 신체로 표현하기 - 그림책과 제재곡 연계하여 사고하기 - 리듬악기 연주하기 - 제재곡을 반복하여 듣고 미술활동 하기 - 제재곡 감상하며 음악적요소 탐색하기 - 제재곡 듣고 느낀점
정리 및 평가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패턴 연주하기 - 제재곡 듣고 자신의 느낌을 신체로 표현해 보기 - 예술작품에 대한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함께 듣기

<비 오는 날에 1차시 수업>

활동명	비 오는 날에		
생활주제	여름	차시	1/3
연령	만4세	누리과정 요소	다양한 소리,음악의 썸여림,빠르기,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목표	제재곡을 감상하며 비의 형태와 소리를 탐색해 본다.		
누리과정 내용범주	예술경험 > 아름다움 찾아보기 >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활동 준비물	쇼팽 사진,쇼팽-프렐류드Op.28 No.15 음원,<비 오는 날에>그림책,빗방울 소리 파일		
	교수 -학습 내용		주의사항
도입	① 교사와 함께 인사 후, 수업을 시작한다.② 리듬의 변형으로 음악 구호 노래를 부른다. ③ 여름과 비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빗방울 소리파일을 재생한다. 유아는 빗방울 소리를 감상하며 비 오는 풍경을 상상해본다.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추워요? 더워요?맞아요. 여름은 엄청 더운 계절이에요.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만 하고 해님만 뜰까요? 맞아요. 비도 오지요. 우리 비가 올 때는 어떤 옷을 입지?” “더운 여름에 비가 내리면 참 시원해. 그렇지? 그런데 비가 조금 올 때도 있고 엄청 많이 올때도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걸 본 친구가 있나요?”“우리 그럼 지금 선생님이랑 함께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어볼 거야. 빗방울 소리가 어떤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친구도 있네요. 빗방울 소리를 다 같이 지금 들어봅시다. 그리고 빗소리를 들으며 비가 내리는 풍경을 상상해보아요		- 눈을 감고 비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들어볼수 있도록 유도해 본다. - 듣고 나서 느낌이나 비왔을때의 경험에 대해 언어나 표정 또는 신체표현 도구(보자기, 리본막대,줄등)으로 표현해본다.
활동	① 쇼팽의 사진을 보여주며 작곡가의 이름을 알려준 후, ‘쇼팽-프렐류드 Op. 28 No.15’에 대한간략한 설명 후 15~20초 감상한다. “우리 빗방울의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어땠나요?” “빗방울의 소리를 노래로 만든 작곡가가 있어요. 이 작곡가의 이름은 쇼팽 이에요. 쇼팽 아저씨는 이 노래를‘빗방울 전주곡’이라고 불렀대요. 따라해 보세요. 빗방울 전주곡! 우리 그 노래를 함께 잠깐 눈을 감고 들어보아요.”② 제재곡 감상 후 유아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해이야기 나눈다.③ 제재곡을 재생하고 그림책을 교사가 읽는다.④ 다시 제재곡을 재생하며 글 없이 그림만 보여준다. “이번엔 선생님이랑 쇼팽 아저씨가 만든 빗방울 전주곡을 들으며 이야기를 읽어주지 않고 그림만 보여줄게요.”		- 그림책 속‘툑 투둑투두 두두둑’‘후드득후드득 후드드드득’‘줄줄줄’ ‘줄줄줄’등의 의성어는 왼손반주의 리듬에 맞추어 읽도록 한다
정리 및 평가	① 제재곡과 그림책에 대한 느낌을 발표해본다.“우리 이 책을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OO가 이야기해볼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다시 우리 흉내내 볼까?”, “쇼팽 아저씨는 이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피아노로? 빠르게? 크게?”② 다음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예고하며 수업을 정리한다		

<비 오는 날에 2차시 수업>

활동명	비 오는 날에		
생활주제	여름	차시	3/3
연령	만4세	누리과정 요소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목표	제재곡을 감상한후 리듬악기로 4,8분 음표리듬을 연주해 본다.		
누리과정 내용범주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활동 준비물	레인셰이커,비 영상 파일,쇼팽-프렐류드Op.28 No.15 음원,<비 오는 날에>그림책		
	교수 -학습 내용		주의사항
도입	① 비가 내리는 모습을 창문앞에서 감상해본다② 비옷이나 우산을 쓰고 직접 비의 모습을 살펴보고 비소리를 들어보고 손으로도 만져보며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③ .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니 비가 춤추는 것 같네.너희는 어떤 것 같니? 비처럼 우리도 움직여볼까?비를 발로 밟았을땐 어떤 소리가 들리니?		교사가 발문을 다양하게 하여 아이들이 오감을 충분히 느껴볼수 있도록 유도해 본다.
활동	① 교실에 와서 레인 셰이커를 나누어 준 후, 유아 스스로 악기 탐색 할 수 있게 한다. “자 선생님이 방금 나누어 준 이 악기의 이름은 레인 셰이커예요. 이 악기를 한 번 자세히 볼까? 어떤 색깔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지? 네모 모양인가 동그라미 모양인가? 세모인가? 다 보았으면 우리한 번 이렇게 뒤집어 보자. 어떤 소리가 들리니?자 악기를 한 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② 자유롭게 소리내어 탐색해보고 연주해 보며 소리를 들어본다.우리가 아까 들었던 비소리를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을까?비가 춤추는 모습은 어떻게 소리내지? “이번엔 선생님이랑 이 레인 셰이커로 연주를해 볼 거예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먼저연주 하면 친구들이 따라서 연주할 거예요.” 이번엔 비가 아주 많이 온대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맞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연주 해볼까?③ 유아 한 명 혹은 두 명씩 4, 8분 음표 리듬을 연주한다.“자 우리 방금 연주한 리듬을 친구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연주해 볼 거예요.”		①번 활동시,충분한 악기 탐색의 시간을 준다.탐색 활동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있다. 악기의 모양,색깔, 소리 등 탐색을 도울 수있게 제안할 수있다. ②번 활동시,유아가 먼저 연주해 보고 어려워하는 유아는교사의리듬악기시연을 보고 연주해 본다. ②번 리듬연주의 속도는 유아의개인차를고려하여 천천히 연주한다.
정리 및 평가	① 유아를 임의로 선정하여 제재곡의 5-13마디를4분 음표와 8분 음표 로 리듬 연주 해본다. ② 악기를 정리하고 인사 하며 수업을 마친다.		

<비 오는 날에 3차시 수업>

활동명	비와 무지개 그리고 긴 수염고래		
생활주제	여름	차시	2/3
연령	만4세	누리과정 요소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본다.
목표	제재곡을 감상하며 그림책 속의 장면을 미술 활동으로 표현해 본다.		
누리과정 내용범주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활동 준비물	미술활동 재료(무지개 도안, 색연필, 점토, 고래도안, 무독성 오공본드, 쇼팽-프렐류드 op.28 No15음원, <비 오는날 에>그림책		
	교수 -학습 내용		주의사항
도입	<p>① 교사와 함께 인사 후, 수업을 시작한다.② 지난 시간에 읽은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나요? 혹시어떤 책이었는데 아는 친구 발표해볼까요?”“맞아요. 비 오는 날에 라는 책이었죠. 비가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집에 어떤 손님들이 찾아 왔었는데 기억나는 거 혹시 누가 이야기 해볼까?”“비가 어떻게 내렸지? 처음엔? 조금씩 내리다가 나중에는?”③ 그림 우리 비오는 모습을 소리나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p>		비오는 모습을 말이나 소리 또는 신체로 표현해 볼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활동	<p>① ‘쇼팽-프렐류드 Op.28 No. 15’을 비가 오는풍경을 상상하며 눈을 감고 감상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음악을 잘들어 주었어요. 오늘도 쇼팽 아저씨가 만든 빗방울 전주곡을 한 번 눈을 감고 들어볼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들어 보아요.”</p> <p>② 제재곡을 재생하며 그림책을글 없이 그림만 본다.</p> <p>③ 마지막 장면을 함께 유아와 이야기 나누며 삽화를 보고 느낀 점과 생각을 이야기 나눈다. “우리 마지막 장면에 어떤 일이 일어 났지요?맞아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요. 그리고 같이 타고 온 긴 수염고래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보여줄게요. 어때요? 이 장면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p> <p>④ 그림책의 기억에 남는장면이나 마지막 장면을 유아가 재구성 하여 미술작품 만들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예쁜 무지개와 구름이 떴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직접 그림 그리고 만들어 볼 거예요. 무지개에 색칠을 끝낸 친구는 선생님이 이점토를 줄 거예요. 이 것으로 무얼 만들어볼까? ”긴 수염고래요“ ”고양이요“ ”우산이요“ ”그래요 다양하게 만들어 보아요.“</p>		<p>④번 활동시 제재곡을 활동 배경음악으로 튼다.</p> <p>④번 활동의방법과 재료는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돕는다</p>
정리 및 평가	<p>① 완성된 미술 작품을 서로 보여주며 이야기 나눈다. “우리 작품을 완성했어요. 모두 잘 했다고 박수 한 번 쳐주자.” “어떤 무지개랑 고래구름을 만들었는지 OO부터 나와서 이야기 해보자.”</p> <p>② 다음 수업을 기약하고 인사 하며 수업을 마친다</p>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예술 영역의 목표 중, 모든 유아는 심미적인 음악적 활동과 예술적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심미적인 경험'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구성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음악 수업안을 설계하였다.

유아에게 친숙한 두 가지 매체인 음악과 그림책을 접목하여 유아의 심미적 경험에 도움이 되는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개념과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 후, 음악 교육과 유아의 음악 교육 역시 어떠한 개념과 목적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유아기의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적 발달적 특징과 유아기의 음악적 발달의 특징들에 대해 연구한 후, 심미적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심미적 유아 음악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미적인 태도와 경험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있으므로 심미 교육에 대해 알아보며 유아에게는 어떤 교수법과 철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고 본 논문의 교수매체인 그림책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유아 음악 수업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왜 그림책과 음악이 유기적인 관계로 접목되어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또한 알아보았다. 즉 그림책과 제재곡의 결합으로 유아가 음악을 듣거나, 생활 주제를 떠올리거나 혹은 똑같은 그림책을 이후에 만났을 때 "이거 봤었던 책인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책 읽으면서 노래를 들었었지. 비가 내리는 노래였는데"라고 떠올릴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유아가 그림책과 음악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즐겁고 다양한 활동들로 수업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아의 심미적 태도를 발달시켜 주어 심미적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아 음악 교육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이때 교사는 영아의 심미적 표현을 위해 "비올 때의 느낌은 어떨까?", "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을까?", "이 그림책에서 주인공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등의 심미적 발문

을 적절하게 하여 더욱 확장되고 심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심미적 경험을 위한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음악활동이라 하면 노래듣기와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율동 위주로 형식적이고 일률적이며 노래를 익히는 것을 중점으로 활동했었음을 반성하게 되었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유아교사들이 이렇게 노래 익히기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본다. 이러한 활동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감상하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언어나 신체 또는 악기로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하고 표현이 다양하지 않은 모습이라 더욱더 심미적인 음악활동이 많이 활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교사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유아들이 편안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니 점차 유아들이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들이 음악과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행복해 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유아기는 음악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교사가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다양한 음악을 접하여 감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림책이라는 매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그림책이라는 교수 매체와 접목시켜서 유아에게 음악에 대한 친숙함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고 작품에 대한 느낌과 개념적인 지식 학습을 다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교사와 유아가 음악 수업을 통해 작품에 대한본질을 탐구하고 내면적인 음악적 표현 능력을 발달시켜 심미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심미적 경험을 촉진 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업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 분야 비전공자 교사도 음악적 요소와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

을 유아에게 더 쉽고 즐겁게 전달하여 현장에서 충분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수업안의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나아가 유아가 예술적 가치를 알고 향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보라(2012).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노의, 홍순정(2003). 『유아교육사상』. 서울: 문음사.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8).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김명순, 조경자(1999).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김성민(2011). 심미적 접근을 통한 유아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옥(1999). "심미적 체험을 위한 유아 음악교육론", 『음악과 민족』, 제 18권: 185-208.

김아영, 백화정, 정명숙(2007). 『교육심리학』. 서울: 박학사.

나종혜, 김수연, 정지나(2009). 『영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로젠, 마이클, 헬렌 옥슨베리(2006). 『곰 사냥을 떠나자』. 서울: 시공주니어.

류미향, 임부연(2009). "유아교사의 심미교육에 대한 인식, 교수 효능감, 심미적 교수실제에 관한 연구", 『한국 유아 교육 학회 정기 학술 발표 논문집』 1: 309-310.

리스크, 존., 보리스 쿨리코프. 2013. 『동물의 사육제』. 서울: 토

토북

백지혜(2009). "그림책을 이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 창의성에 미치는효과", 『유아교육학회지』, 13(5): 189-212.

손채영(2010). 신체 동작을 통한 유아 음악교육 지도방안의 심미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선화(2012).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및 어려움.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성경, 이희자, 이선경, 김경의, 이효숙, 박주희(2003). 『유아음악교육 -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안재신(2004).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헌

이상금(1998).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서울: 세계출판사

이숙희(2010). 『아동음악과 동작』. 서울: 동문사

이숙희(2005). "통합적 유아 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407-430.

이영, 이정희, 김온기, 이미란, 조성연, 이정림, 유영미, 이재선, 신혜원, 임규혁(2007).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Address, B.(1989). "Music for Every Stage: How Much? What Kind? How Soon?". *Music Educators Journal*, 76(2), 22-27.

Colwell, R.(2006). *MENC Handbook of Musical Cogni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24-140

Hallam, S.(2011). 『음악교육 심리학』. 고선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Hargreaves, D. J.(2010).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발달심리학』. 나재용 역. 서울: 교학사

Mithen, S.(2008).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김명주 역. 서울: 뿌리와이파리

Abstract

Preliminary study of early childhood music class for aesthetic experience

Soon-Joo Kim

(Teacher at Dream Moa Children's Love Daycare Center)

Hyeon Jeong Kim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arly childhood music instruction plan that can promote children's aesthetic experience. The contents of the lesson plan are as follows. The subject of the class was selected as a 4-year-old in consideration of the infant's basic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musical development, and for the content of the class, material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picture book selected for the study was selected. In order to maximize the concentration of children and to expect harmonious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and effective classes, various activities for the sawmill, such as exploration, expression, and appreciation, were included as class activities. Classes per class consisted of 20 minutes of weekly activity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short attention span of young children per class, and once or twice a week, considering the class composition for each area during free choice activities or large/small group activities during the kindergarten routine. was set.

Key words: Aesthetic experience, Music, Lesson plan, Picture book

중고령자 장기요양돌봄의 이용자 중심 성과 비교를 위한 국제자료 탐색 연구: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¹⁾

박수지(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향후 중고령자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성과의 국제비교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첫째, 돌봄서비스의 이용자 중심 성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고 둘째, 이용자 중심의 성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우리나라 중고령자 패널 KLoSA와 비교 가능한 유럽의 SHARE, 미국의 HRS, 영국의 ELS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미시 패널 자료를 통한 돌봄 성과의 국제비교는 첫째, 개인별 자료의 합산인 거시자료를 통한 국제 비교가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 둘째, 소비적, 비생산적 복지로 간주되었던 돌봄 정책을 생산적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고령자, 장기요양 돌봄, 돌봄 서비스 성과, 국제비교

1. 머리말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족 기능의 위축이다. (Esping-Andersen, 2009) 이러한 변화와 함께 복지국가에서 평생 직장과 전통적인 가족을 기반으로 형성된 복지급여 프로그램은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대응하도록 재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노동시장 진출과 가족의 전통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인서비스

가 복지국가의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유럽 복지국가에서 현금 위주의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은 축소되는 반면 대인서비스 제도 즉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Bahle, 2008) OECD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을 보더라도 현금이 아닌 대인 서비스 항목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수지 외, 2012) 특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인의 일상생활을 심리·사회·의료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돌봄서비스(care service)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1990년 이후 OECD

박수지: susiepark@gwnu.ac.kr,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Justus-Liebig 대학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사회서비스 정책(social service policy)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서비스, 돌봄 정책, 장애인서비스, 사회적기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고령자 돌봄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미치는 영향”(사회적질연구,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중심 성과의 매개효과 분석”(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9),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과 쟁점”(보건복지연구, 2018) 등이 있다.

1) 본 연구는 박수지 외(2014)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회원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돌봄 역할을 지원해줄 공공의 역할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공 지출 증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 또한 병행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돌봄서비스 공급(provision)에 대한 생산성(productivity) 논의로 서비스의 커버리지 수준과 그 성과에 대한 비교로 심화되고 있다. (OECD, 2011)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는 각국 돌봄서비스의 성격(특히 가족, 공공, 민간의 역할분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다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저자료의 하나로 미국의 HRS(health retirement survey), 영국의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유럽의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가 있다. 그리고 이를 병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www.share-project.org)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국가 간 비교를 염두하고 설계한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의 한계가 많다.²⁾ 이와 달리 HRS, ELSA, SHARE의 패널 자료는 처음부터 국제비교를 염두하고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설계한 데이터이다. SHARE는 2004년부터 고령화되는 유럽사회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자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로 현재 EU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HRS, 영국의 ELSA와 조사 문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비교 연구네트워크는 일본, 중국, 터키 등의 참여로 연구 가능성을 계속 넓혀가고 있으며, 2006년 시작된 중고령자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 또한 이들 자료와의 병합을 염두하고 설계된 데이터이다. 장지연 외(2008)는 KLoSA를 HRS, ELSA, SHARE와 병합하여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장숙량 외(2012)는 KLoSA와 HRS, ELSA, SHARE의 건강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패널품질 개선방

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KLoSA와 타 자료의 문항 및 척도에 대한 개관,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측정도구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검증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장지연 외, 2008; 장숙량 외, 2012)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국제비교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들 국제자료의 변수를 비교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돌봄 영역의 국제비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고령자 패널 KLoSA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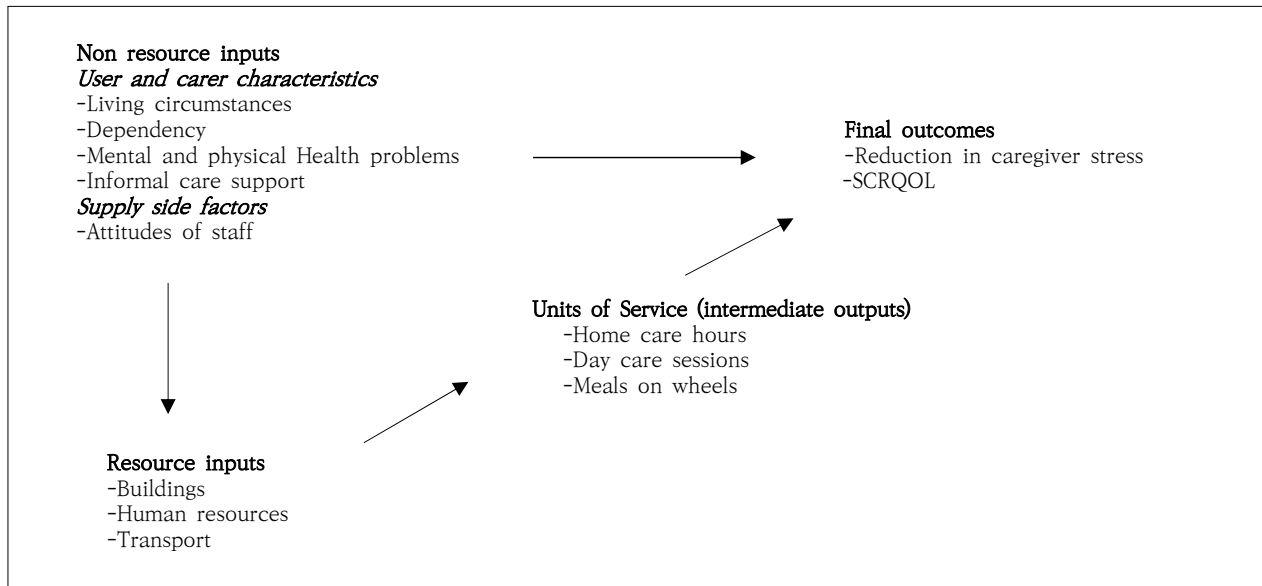
1) 돌봄 서비스의 성과와 국제비교 연구

의료서비스의 경우 치료나 재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개선 즉 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로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특히 성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달리 개인이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준다는 점에서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성인의 경우 사망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과를 치료 및 재활서비스와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그 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돌봄서비스 성과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이 감소하고 공공의 돌봄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여 시스템을 관리할지와 관련해 중요해지고 있다. (MacMillen 외, 2005; Megivern 외, 2007; Malley·Fernandez, 2010; 강혜규 외, 2012)

Malley와 Fernandez(2010)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

2) 현재 국제비교를 위해 데이터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자료로는 LIS(luxembourg income survey),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 CHER(consortium of household panels for european socio-economic research), DNEF(cross national equivalent fil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는 처음에는 국가별 데이터로 존재하다가 국제비교가 요구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나중에 통합되었다. 즉 국가별로 데이터를 완성하는 주기가 각기 다르며 해마다 주제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시기가 최대 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있는 국가수가 제한될 뿐 아니라 시계열 분석도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부가정·장지연, 2006)

[그림 1] 돌봄 서비스의 생산(production of welfare) 모형



출처: Malley·Fernandez(2010)

이 생산적 복지(production of welfare)의 시각에서 돌봄 서비스 성과에 대한 프레임을 투입(input)과 즉각적 산출(intermediate output) 그리고 최종성과(final outcome)로 구조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돌봄서비스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개념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self-reported)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 스트레스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결과(이용시간과 횟수 등) 및 성과(돌봄 부담 감소, 삶의 질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투입에 해당하는 요인(건물, 인적자원 등)과 함께 서비스 외적인 요인 즉 이용자 특성에 해당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문화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Malley와 Fernandez(2010)는 돌봄 연구에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지표들이 중요한 점과 관련하여 이것이 돌봄서비스 연구를 어렵게 하는 개인의 '속성문제(attribution problem)'라고 보았다.

지금까지 돌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는 주로 OECD health data와 정부의 expenditure data, OECD SOCX data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수준에서 측정되는 주관적 건강상태, 근로능력, 삶의 질, 스트레스 등이 서비스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비스 유형, 인력규모, 시설 수 등 집합적 변수

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거시데이터만으로는 그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별 미시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게 될 경우 개인 수준의 요인과 돌봄의 교환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 연구에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는 조사문항과 척도가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개인의 정보를 등가(equivalence)의 수치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각국 자료의 병합분석을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국가 간 등가성(equivalence)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HRS, ELSA, SHARE 연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요 측정도구의 등가성 즉 척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Chan 외, 2012; Wahrendorf·Reinhardt·Siegrist, 2013) 또한 수정이 필요한 문항과 척도를 보정하는 비네트(vignette)방식 등에 대한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www.share-project.or/anchoring-vignettes.html.)

2) 장기요양돌봄 성과에 대한 국내, 외 실증 연구: 미시 패널 데이터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성인 대상 돌봄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등) 연구는 서비스 이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가족 및 이용자의 삶의 질, 우울,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 등을 비교하거나(백용운·최수일, 2010; 이홍자, 2012; 모선희·최세영, 2012; 서문진희·정여주, 2011; 김용희·안정신, 2012; 강우진, 2011; 김경미, 2005), 서비스 유형별로 가족 내 부양자의 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여(임동영·박명화, 2010) 최종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이 감소함과 동시에 신체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이용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박창제, 2005; 박창제, 2010)는 서비스 이용이 무엇보다도 가족돌봄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비용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후반 HRS, ELSA, SHARE 연구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영국, 유럽 국가의 돌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LoSA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Suanet, 2012; Sole-Auro, 2014; Brandt 외, 2009; Bolin 외, 2008; Oudijk 외, 2011; Bonsang, 2012; Jang, 2012)

장기돌봄서비스 관련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의 실증자료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SHARE, ELSA, HRS 그리고 KLoSA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의 경향은 주로 국가별로 돌봄서비스의 현황 및 국가별 관련요인 등을 밝히는 것과, 비공식 및 공식 돌봄서비스 간의 연관성과 효과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공식돌봄서비스와 비공식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와 관련하여, Suanet(2012), Sole-Auro(2014), Brandt, M., et al.(2009), Bolin, K., et al.(2008), Oudijk, D. et al.(2011), Bonsang(2012) 등이 있다. SHARE 데이터를 활용하여 11개 유럽국가의 돌봄서비스 사용을 분석한 Suanet(201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러 국가 중 재가

서비스가 많지 않고, 시설보호 비율이 낮고, 비공식적 돌봄과 정규직 여성이 많은 국가의 경우, 돌봄서비스 필요 노인들이 비공식적 돌봄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에, 광범위한 복지국가 기제(더 많은 재가서비스, 관용적 연금시스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공식적 재가돌봄 비율이 높았고, 부모돌봄에 대한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공식과 비공식의 혼합형태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le-Auro(2014)는 SHARE, ELSA 및 HR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페인, 영국 및 미국에서의 기능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가족구성원의 구조 및 활용가능성과 돌봄서비스의 이용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3개 국가 모두 가족돌봄이 돌봄의 주요구성요소가이었으나, 돌봄의 자원과 유형은 상이하였는데, 스페인의 경우, 비공식 돌봄의 대부분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돌봄자가 제공하였으며(스페인의 경우, 세대간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영국과 미국에서 가족 외 돌봄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공식돌봄서비스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돌봄대상자의 장애수준이 심각해질수록 비공식돌봄으로부터 공식돌봄으로의 전환이나 보충이 더 많이 일어났다.

Brandt, M., et al.(2009)은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노령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공식·비공식 돌봄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프랑스와 비교하여 아일랜드의 공식적 돌봄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돌봄의 기간은 아일랜드가 더 길었으며 비공식적 돌봄의 경우, 프랑스와 비교하여 아일랜드가 이용 비율 및 돌봄기간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 돌봄은 내생적이며 공식적 돌봄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Bolin, K.,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자녀 혹은 손자녀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과 공식적 돌봄 서비스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유럽각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비공식 돌봄과 공식 재가 돌봄은 상호 대체관계이며, 비공식 돌봄은 '병원방문'(Hospital Visit)에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비공식-공식 돌봄 간의 관계는 국가

의 지리적 위치(남유럽-북유럽)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Oudijk, D. et al.(2011)의 연구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10개국(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중고령층의 비공식 돌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네덜란드의 경우, 비공식 돌봄 제공의 기회를 높이는 것은 돌봄자의 의무감과 필요이었으며 남유럽국가의 경우, 돌봄제공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의외로 고령의 돌봄자의 의무감이 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사회적으로 활동가능한 인구의 비공식 돌봄에 대한 동기는 남유럽 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화할 경우 실제 돌봄의 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onsang(2012)의 연구는 유럽의 고령자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성인 자녀에 의한 비공식 돌봄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장애 수준이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돌봄은 공식적 재가 돌봄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효과는 고령자의 장애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 돌봄이 고령자의 욕구 수준이 낮고 비전문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한 장기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대체한다는 데에 함의를 두었다.

Jang(2012)은 비공식 돌봄에서 인구학적 및 시설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12개 유럽국가와 한국의 비공식 돌봄자 특성관련 국가 간 비교연구 수행하였는데, 스페인과 한국 및 이탈리아는 여성, 주부, 동거인 및 배우자의 비공

식 돌봄역할의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덴마크 및 스웨덴 등은 고용된 비공식 돌봄자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성 돌봄자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이 있었는데, 인구 대비 여성 돌봄자 비율 높은 국가는 낮은 GDP per capita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RS, ELSA, SAHRE 연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가보고식 측정도구의 등가성을 검증하거나(Chan 외, 2012; Wahrendorf·Reinhardt·Siegrist, 2013) 응답자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기 위해 문항을 보정하는 다각도의 연구 또한 시도되고 있다. (King·Wand, 2007; Hopkins·King, 2010)

III. 주요 국제자료의 장기요양돌봄 성과 관련 변수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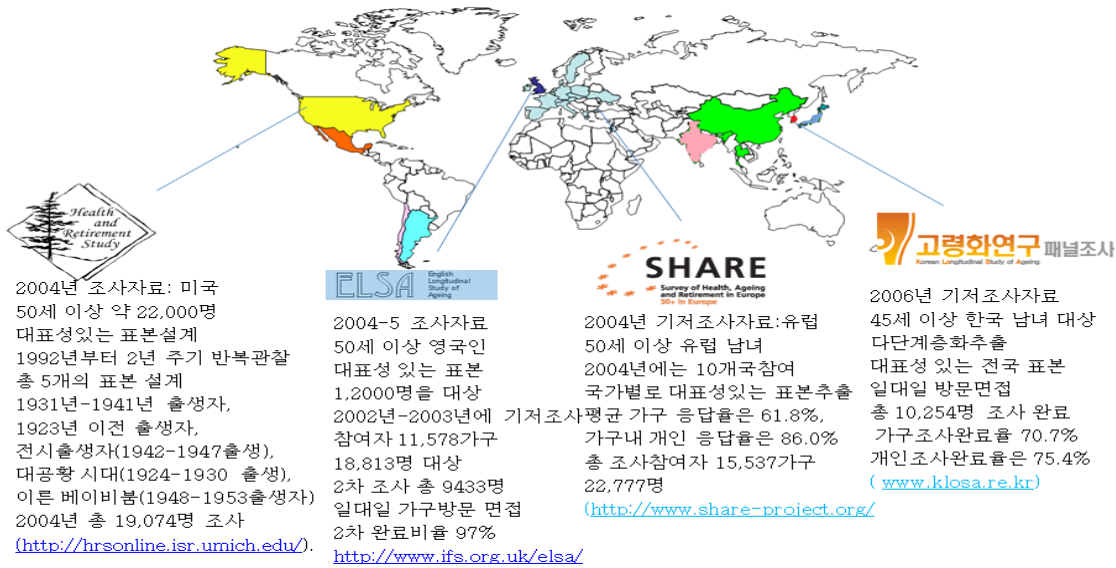
1. 주요 국제자료

장기요양돌봄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한국의 KLoSA, 미국의 HRS, 영국의 ELSA, 유럽의 SHARE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는 미국의 HRS를 벤치마킹하여 조사문항과 척도를 구성하였고, 미국의 HRS는 영국의 ELSA, 유럽의 SHARE는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자료의 병합분석 혹은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모든 자료원은 각 자료원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을 제출 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각 자료원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국가별 자료원 비교

자료명	국가	조사연령	자료원 제공처
KLoSA	Korea	45세 이상	http://kli.re.kr/KLOSA/default.asp
HRS	USA	51세 이상	http://hrsonline.isr.umich.edu/ http://www.rand.org/labor/aging/dataproduct/
ELSA	England	50세 이상	http://www.ifs.org.uk/elsa/
SHARE	Europe	50세 이상	http://www.share-project.org/

[그림] 각 자료원의 조사방법



2. 각 자료원의 조사방법

1)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한국의 KLoSA는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행된 2년 단위 종단적 조사로써, 45세 이상 전국 국민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하며, 2006년 1차년 기본조사는 10,254명에게 조사되었고, 응답률은 가구단위 70.7%였다. 2008년 2차년 기본조사는 8,688명(사망/추적실패 제외)에게 1차년 기본조사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조사되었다. 최근까지 2018년 7차 기본조사가 완료되었다.

2) Health Retirement Study, HRS

미국의 HRS는 1992년부터 시행된 2년 단위 종단적 조사로써,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1923년 이전 출생자(51세 이상)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고, 6년 단위로 51세 이상 전국 대표표본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SHARE 1차년 조사와 병합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최근 2018년 14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3)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영국의 ELSA는 2002-3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년 단위의 종단적 조사로써, 영국의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

상으로 한다. 1차 조사는 총 11,050명에게 설문되었고, 응답률은 94%이다. 최근까지 2018-9년 9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4)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유럽의 SHARE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10개국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1차 조사는 2004년 50세 이상 중고령자 31,115명에게 조사되었으며, 각국의 통합 응답률은 61.6%이다. 조사 대상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으면 4차 조사에는 총 19개국이 참여하였다. 2019년 7차 조사에서는 총 29개국과 이스라엘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3. 자료별 주요 변수의 개관

KLoSA의 돌봄서비스, 건강과 삶의 질 등의 돌봄 성과 관련 주요 지표들에 대해 HRS, ELSA, SHARE 자료의 비교가 가능한 동일영역 측정 지표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각 자료원별로 조사문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부 비교 해석의 주의가 요구된다.

1) 돌봄 서비스 수혜 관련 지표

KLoSA, HRS, ELSA, SHARE 4개 자료원은 모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유형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HRS와 KLoSA의 경우는 주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자를 나열한 후 이들과 수혜자와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묻고 있으며, ELSA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유형별, 예를 들어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등으로 세분화된 각각의 질문을 통해 이들에게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조사되고 있다. SHARE의 경우는 가족/근린 제공자와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여 설문이 구성되었고 두 범주내에

서 각각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유형을 조사하고 있다. 각 자료원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 유형은 '가족/근린'과 '공공/전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복수 응답형태로 구분하였고, 동일한 범주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삶의 질 관련 지표

KLoSA는 삶의 질 평가를 위해 건강, 경제, 사회관계 (배우자, 자녀)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로 구성된 4개 영역의 삶의 만족도 설문을 조사하고 있다. HRS와 ELSA는 CASP-19 척도를 이용하여 삶의 질 관련 사회심리 조사를

<표> 돌봄서비스 제공자 관계유형관련 설문비교

HRS	ELSA	SHARE	KLoSA
G069. What is that person's relationship to you, or are they an employee of the place you live?	<p>Whether receives help with moving round house from spouse or partner (walking across a room, getting in or out of bed, using the toilet, including getting up or down)</p> <p>Whether receives help to wash /dress from spouse or partner (dressing, including putting on shoes and socks, bathing or showering)</p> <p>Whether receives help preparing a meal or eating from spouse or partner (eating, , such as sutting up food, preparing a hot meal)</p> <p>Whether receives help to shop/do work round housefrom spouse or partner (shopping for groceries, doing work around the house or garden)</p> <p>Whether receives help using phone/managing money from spouse or partner (making telephone calls, mannaging money)</p> <p>Whether receives help taking medication from spouse or partner (taking medications)</p>	<p>sp003. "Which family member from outside the household, friend or neighbour has helped you or your husband /wife/partner in the last twelve months?"</p> <p>sp004d1. HELP FROM PERSON 1, PERSONAL CARE</p> <p>"Please look at card 28. Which types of help has this person provided in the last twelve months?" (Personal care, e.g., help with dressing, bathing or showering, eating, getting in or out of bed, using the toilet)</p> <p>hc032d2. RECEIVED HOME CARE FOR DOMESTIC TASKS</p> <p>"Please look at card 16. During the last twelve months, did you receive in your own home any of the kinds of care mentioned on this card?" (Professional or paid home help, for domestic tasks that you could not perform yourself due to health problems)</p>	Cb18. Who most often helps you with (dressing, washing, bathing, eating, getting out of bed, using toilet, controlling urination and defecation, grooming, doing the chores, preparing hot meals, doing laundry, going out, using transportations, shopping, managing money, making phone calls, taking medications)?

시행하고 있으며, SHARE는 CASP-19의 축약형인 CASP-12 척도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조사하고 있다. KLoSA와 ELSA는 매 조사에서 core 조사항목으로 삶의 질을 조사하고 있으나, HRS와 SHARE 2006에만 임의 추가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표 % 참조). 본 연구에서는 HRS와 ELSA의 CASP-19 조사 중 SHARE의 CASP-12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12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KLoSA는 4개 삶의 질 조사영역의 응답을 합산한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 개별 문항은 KLoSA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조사원 별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 참조). 삶의 질 총점과 삶의 만족도 개별 문항 점수는 각 자료원별 대상자의 응답 분포를 기준으로 삼분위수로 나눈 후 하위 삼삼분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낮은 삶의 질로 구분하여 독립요인과의 교차분석 시 낮은 삶의 질 대상자의 비율은 국가 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삶의 질 관련 설문 비교

자료원	HRS	ELSA	SHARE	KLoSA
조사척도	CASP-19 (CASP-12 공통항목만 제시)	CASP-19 (CASP-12 공통항목만 제시)	CASP-12	해당없음 (공통항목 없음)
	My age prevents me from doing the things I would like to.	How often feels age prevents them from doing things they like	My age prevents me from doing the things i would like to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health?
	I feel that what happens to me is out of my control.	How often feels what happens to them is out of their control	I feel that what happens to me is out of my control	In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quality of life (or how happy you feel)?
	I feel left out of things.	How often feels left out of things	I feel left out of things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economic status?
	I can do the things that I want to do.	How often can do the things they want to do	I can do the things that i want to do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Family responsibilities prevent me from doing what I want to do.	How often family responsibilities prevents them from doing things	Family responsibilities prevent me from doing what i want to do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Shortage of money stops me from doing the things I want to do.	How often shortage of money stops them doing things	Shortage of money stops me from doing the things i want to do	
	I look forward to each day.	How often look forward to each day	I look forward to each day	
	I feel that my life has meaning.	How often feels that their life has meaning	I feel that my life has meaning	
	On balance, I look back on my life with a sense of happiness.	How often looks back on their life with a sense of happiness	On balance, i look back on my life with a sense of happiness	
	I feel full of energy these days.	How often feels full of energy these days	I feel full of energy these days	
	I feel that life is full of opportunities.	How often feels that life is full of opportunities	I feel that life is full of opportunities	
	I feel that the future looks good for me.	How often feels the future looks good to them	I feel that the future looks good for me	

〈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련 문항 비교

HRS	ELSA	SHARE	KLoSA
I am satisfied with my life	Is satisfied with his/her life?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In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quality of life (or how happy you feel)?
1. strongly agree 2. agree 3. slightly 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5. slightly disagree 6. disagree 7. strongly disagree	1. strongly agree 2. agree 3. slightly 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5. slightly disagree 6. disagree 7. strongly disagree	1 Very satisfied 2 Somewhat satisfied 3 Somewhat dissatisfied 4 Very dissatisfied	Please answer how much you are satisfied with the followings compared to your contemporaries. 0 means absolutely dissatisfied and 100 means absolutely satisfied.

4) 건강관련 지표

(1)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련 문항 비교주관적 건강 설문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하여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의 5단계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KLoSA의 경우는 주관적 건강관련 설문

문항이 2개로 되어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HRS, ELSA, SHARE와 공통 응답척도 (국문: 최상, 매우 좋음, 좋은편, 보통, 나쁜편)를 사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5단계 likert scale은 건강과 불건강으로 이분화하여 분석하였고 주관적 불건강상태는 fair, poor 항목에 응답한 사람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주관적 건강상태 설문비교

HRS	ELSA	SHARE	KLoSA
Next I have some questions about your health. Would you say your health is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or poor?	How is your health in general? Would you say it was ...READ OUT...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	HEALTH IN GENERAL QUESTION V 1. Would you say your health is ... [1. Very good 2. Good 3. Fair 4. Bad 5. Very bad]	Next I have some questions about your health. Would you say your health is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

(2) 우울감

KLoSA, HRS와 ELSA는 우울감 조사척도로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고, SHARE는 EURO-D (European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KLoSA를 제외한 3개 자료는 예/아니오의 이분형 응답이고, KLoSA는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

일 정도)의 4개 응답범주로 조사되었다. 각 자료간 상호 비교를 위하여 CES-D와 Euro-D 두 척도 중 상호 비교가 가능한 우울감, 수면장애, 피로감과 삶의 만족도 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3개 조사자료의 설문을 토대로 KLoSA는 자주, 항상에 응답한 경우를 우울감 '있음'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개 우울감 관련 설문 중 하나이상 '예'로 응답한 경우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우울 설문비교

		KLoSA	HRS	ELSA	SHARE
조사 척도		CES-D	CES-D	CES-D	Euro-D
회고 기간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	지난해 중 2주간
공 통 항 목	우울감	How often did you feel depressed?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 felt sad. (Would you say yes or no?)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 felt depressed?	During that time did the feelings of being sad, blue, or depressed usually last all day long, most of the day, about half the day, or less than half the day?
	수면장애	During the last week, how often did you have trouble falling asleep?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r sleep was restless. (Would you say yes or no?)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r sleep was restless?	TROUBLE SLEEPING. Have you had trouble sleeping recently?
	피로감	During the last week, how often did you feel tired out or low in energy?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 felt that everything you did was an effort.(Would you say yes or no?)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 felt that everything you did was an effort?	FATIGUE. In the last month, have you had too little energy to do the things you wanted to do?
	삶의 만족	How often did you feel you were overall satisfied last week?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 enjoyed life.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week), You enjoyed life?	ENJOYMENT. What have you enjoyed doing recently?

(3) 돌봄 제공 관련 지표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혜 지표와는 독립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가족/근린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HRS를 제외한 3개 조사자료는 전체 대상자에게 가족 혹은 친인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 지표

HRS	ELSA	SHARE	KLoSA
Are you th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the care of your friend or relative? * 해당설문은 HRS의 supplementary 조사인 ADAMS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사는 치매환자와 가족만을 대상으로 조사됨.	Whether looked after anyone in the past week Looked after her/his spouse/partner Looked after her/his child Looked after her/his grandchild Looked after her/his parent Looked after her/his parent in law Looked after other relative Looked after her/his friend or neighbour Looked after some other person	“Which (other) family member from outside the household, friend or neighbour have you helped most often in the last twelve months?” “Please look at card 28. Which types of help have you given to this person in the last twelve months?” (Personal care, e.g., help with dressing, bathing or showering, eating, getting in or out of bed, using the toilet)	B180. Did you provide (names listed in B179) any help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during the past 12 months (not calendar year)? If so, who was helped? B183. Did you help your any of your family members (spouse, parents, parents of spouse, siblings and/or children) who are not living with you with other things such as household chores, errands, transportation, grocery shopping, financial management, etc.? If you did, who was helped? Please identify all family members whom you helped out during the past 12 months.

IV. 맺음말

본 연구는 장기요양돌봄 국제비교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첫째, 장기요양 돌봄의 이용자 중심 성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고 둘째, 이용자 중심의 성과로 평가 가능한 변수를 우리나라 중고령자 패널 KLoSA와 비교 가능한 유럽 SHARE, 미국의 HRS, 영국의 ELSA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패널 자료의 국제비교 연구는 첫째, 일반적인 국제비교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시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국제비교 연구는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화한 각국의 집합데이터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럴 경우 돌봄 연구에서 중요한 개인별 자기보고식 변수가 합산되어 그 의미가 평준화되어 희석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비교를 위해 생성된 주요국의 미시 패널 자료를 우리나라의 KLoSA와 병합하여 분석하는 돌봄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소비적, 비생산적 복지로 간주되었던 돌봄 서비스를 생산적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용자 중심의 성과를 국가 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국의 돌봄 정책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 지침의 합당한 지표와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정책 관련한 성과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각국의 미시 패널 자료는 돌봄 정책의 성과를 개인의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주관적 건강 등의 지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각국의 장기요양돌봄 정책과 성과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돌봄 정책의 근거자료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우진(2011)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8(1). 1-30
 강혜규·박세경·박수지·이정은·이선희·장은진·김용득·석재은·이병

화정선·영황덕순 (2012).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군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미(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53-274
 김용희·안정신(201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및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및 서비스만족도. 노인복지연구. 57. 161-190
 모선희·최세영(20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가족의 부양부담 변화, 비판사회정책
 박수지·김보영·김형용·박수잔·박혜미·윤성원·최연혁·홍이진·김가희·이주연 (2014)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5차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지·윤상용·이승기·이송희 (2012)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지·정은희·김가희 (2013)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창제(2005)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평가. 노인복지연구. 28. 317-340
 박창제(2010)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시설보호 대 재가보호. 노인복지연구. 50. 145-172
 백용운, 최수일(2010)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215-240
 부가청·장지연 (2006)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국제비교연구 활용 가능성. 조사연구. 7(2). 97~122
 서문진희·정여주(2011) 장기요양필요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2(4). 3-30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레이카데미.
 원장원·노용균·김수영·조비룡·이영수 (2002)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ADL)의 타당도 및 신뢰도. 대한노인병학회지. 6(2). 98-106
 원장원·노용균·김수영·이은주·윤종률·조경환·신호철·조비룡·오정렬·윤도경·이홍순·이영수 (2002)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ADL)와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IADL)의 개발 - 항목채집에서 사전조사까지-. 대한노인병학회지. 6(2). 107-120
 이홍자(2012) 장기요양서비스 전후 가족의 수발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236-247
 임동영·박명화(2010)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와 시설간호서비스 만족도
 장숙량·조성일·천희란 (201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건강영역의 품질개선 방안. 패널품질개선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91-160.
 장지연·부가청·이혜정·신현구·이철희·장숙량·조성일·Berkman,

- L. F. (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허만세·박병선·배성우. (2015). 한국어판 축약형 CES-D 척도의 측정불변성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313-339
- Bahle, T. (2008). The state and social services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since the 1980's-Reform and growth in a period of welfare state. *European society*. 10(1), pp.25-47
- Bolin, K., et al.(2008) Informal and formal care among single-living elderly in Europe
- Bonsang(2012) Does informal care from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substitute for formal care in Europe?
- Brandt, M., et al.(2009) Intergenerational help and care in Europe
- Chan, K. S., Kasper, J. D., Brandt, J. and Pezzin, L. E. (2012). Measurement Equivalence in ADL and IADL Difficulty Across International Surveys of Aging: Findings From the HRS, SHARE, and ELSA.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1), pp. 121-132.
- Esping-Anderso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on to women's new roles*. 2009. UK: polity policy.
- Hopkins, D. J. and King, G. (2010). Improving Anchorin Vignettes. *Public Opinion Quarterly*. 74(2). pp.201-222.
- Jang(2012) Informal caregiving patterns i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 King, G. and Wand, J. (2007). Comparing Incomparable Survey Response: Evaluation and Selecting Anchoring Vignettes. *Political Analysis*. 15(1). pp.46-66.
- Leadbeater, C. (2004). *Personalisation through Participation: A new Script for Public Service*. London: Demos.
- Malley, J. and Fernandez, J. L. (2010). Measuring Quality in Social Care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1(4), pp.559-582.
- McMillen, J.C., Proctor, E. K., Megivern, D., Striley, C. W., Cabassa, L. J., Munson, M. R., and Dickey, B. (2005). Quality of Care in the Social Service: Research Agenda and Methods. *Social Work Research*. 29(3), pp.181-191.
- Megivern, D. M., McMillen J. C., Proctor, E. K., Striley, C. W., Cabassa, L. J., Munson, M. R. (2007). Quality of Care: Expanding the Social Work Dialogue. *Social Work*. 52(2), pp.115-124.
- Milfont, T. L. and Fischer, R. (2010).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roups: Applications in cross-cultur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3(1). pp. 111-121.
- OECD. 2005. 노인장기 요양보호: The OECD Health Project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보건복지부·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 사회정책센터·OECD.
- OECD.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 Schmitt, N., and Kiljanin, G. (2008). Measurement invariance: Review of practice and implica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8. pp. 210-222.
- Sole-Auro(2014) Who cares? A comparison of informal and formal care provision in Spain, England and the USA
- Vandenberg, R. J. and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Vol.3(1). pp. 4-20.
- Wahrendorf, M., Reinhardt, J. D. and Siegrist, J. (2013). Relationships of Disability with Age Among Adults Aged 50 to 85: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Continental Europe. *Plusone*. Vol8(8). pp.1-10.
- <http://kli.re.kr/KLOSA/default.asp>
- <http://www.share-project.org>
- <http://www.share-project.or/anchoring-vignettes.html>
- <http://hrsonline.isr.umich.edu/>
- <http://www.rand.org/labor/aging/dataproduct/>
- <http://www.ifs.org.uk/elsa/>

Abstract

International Data Exploration Study for User-Centered Performance Comparison in the middle and old-aged long-term care system : Focusing on home care services

Park, Susie

(Associate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middle and old people in the future, this study derived a conceptual model for user-centered performance of care services. Second, the variables corresponding to user-centered performance were considered focusing on SHARE in Europe, HRS in the United States, and ELSA in the United Kingdom, which can be compared with KLOSA in Korea's middle-aged and elderly panel.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are performance through micro-panel data is first meaningful in that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hrough macro data, which is the sum of individual data. Seco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pproaches the care policy, which was considered unproductive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tive welfare.

Key words: Middle-aged, Long-term care, Care service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parison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생활경험

김현성·박지수·송수연·박다은·최유희·구동훈·김현빈·손가은·강수진·박유정·최가영·김보미·
이태린·김산·조유진·전하진·이상민·최주희·이희정(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사과정),
전재희(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며 지역사회 노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상황에 대한 지지와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설계는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경험을 파악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연구의 목적을 듣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5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은 참여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노인의 생활 경험 자료가 포화가 될 때까지 1-2회씩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80.2세였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노인들의 생활경험을 분석한 결과 범주 14개, 주제 5개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의 요약을 통해 도출된 주제는 '변화된 생활과 사회관계', '과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 '코로나 블루의 경험', '일상 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노인들의 생활 경험에서 건강 상태 유지의 어려움, 우울함, 무기력함을 더욱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어르신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가 한정적이었고 비교적 단 시간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어 대상자 수를 늘리고, 연구 기간을 다양화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노인들을 생활 경험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들의 어려움을 어떤 정서적 지지와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코로나19, 생활경험, 지역사회, 노인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현재 고령자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고위험군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

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감염 이후에도 호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질병관리청, 2020). 실제로 8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사망률이 기준 연령층인 18~29 세에 비해 370배나 높다고 확인되었다(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 2021).

현재 노년의 주요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었던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이 이용 제한되어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이용자, 봉사자, 종사자로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던 노인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무료함, 부실한 식사, 소득 중단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신혜리, 윤탤희, 김수경, & 김영선, 2020).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자발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고연령자(40-60대이상)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이동 및 신체 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꼈고 인지부조화로 인해 코로나19라는 위험상황에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였다(박인아, 2021). 고연령자의 경우 기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젊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소들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아, 2021).

하루가 다르게 설 새 없이 변동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이에 따른 정책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인층은 정보 취약계층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시사각각 바뀌는 정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정신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생활 경험을 파악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노인들의 생활 경험을 심도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적은 수의 참여자가 임의추출이 아닌 편의에 의해 선출되기에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구성원들이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토론을 등을 통해 도출되어 특정한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얻는

데 효과적인 방법(Casey, 2009)이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생활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원주시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으로 본 인터뷰의 목적을 듣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편의표본에 의해 추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규모는 이론적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해 나가면서 도출된 개념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확장될 계획이므로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80.2세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5명이고 남자가 0명이었다. 현재 거주자는 독거 또는 부부가 함께였다(표1).

〈표 1〉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ID	Age (years)	Gender	동반 거주자	기타
A	82	Female	독거	
B	73	Female	부부	장애가구
C	85	Female	독거	
D	80	Female	독거	
E	81	Female	독거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11월에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참여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포화가 될 때까지 1-2회씩 면담을 시행하였다. 원주시 복지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대상자 중 인터뷰에 동의한 5명의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 인터뷰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면담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즉시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나 연구자의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

면담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생활한 경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단계별 질문은 표2와 같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근거로 원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단계는 우선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상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이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하는데, 이러한 전후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6단계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낸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formulating meanings)한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s),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categories)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표 2〉 인터뷰 단계별 질문 구성

Categories	Questions
Introductory question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현황을 파악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Conversion question	“코로나19 이후 어르신 생활은 어떠하였나요?”
Key question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이후 느낀 감정이나 기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19 이후 건강은 어떠하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시 지난번 치매나 우울 정도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문진)을 하였을 때 어떠하셨나요?” “코로나19로 지내고 계시는 중 제작하여 나누어드린 교육자료는 도움이 되셨는지요. 또는 장점이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추가로 더 알았으면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요?”
Concluding question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연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성,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을 따라서 시행하였다. 사실성은 끊임없이 예외적 사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통해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 도출된 연구결과와 원래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연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적용가능성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간호학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본 연구결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유사한 맥락에서 질문을 반복했을 때 연구결과가 일관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순환적인 수집과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 본인의 편견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의 분석결과는 잠정적인 것임을 인지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연구목적과 인

터뷰 방법, 녹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로 인해 기여하는 점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설명하고, 도중에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과 인터뷰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연구 종료 후 모든 인터뷰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III. 연구결과

원주시 일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노인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5개의 범주, 14개의 주제모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5개의 범주는 '변화된 생활과 사회관계', '과거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 '코로나 블루의 경험',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 <표 3>으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범주 : 변화된 생활과 사회 관계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감염위험성으로 인해 외출의 빈도가 줄었고 가족과의 왕래도 줄어들고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음을 호소하였다. 매일 일상생활 중의

<표 3> 원주시 일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노인들의 경험

Categories	Theme clusters
변화된 생활과 사회관계	감소된 외출 빈도
	소원해진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기회 부재로 인한 아쉬움
과거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부실한 식사
	운동부족
	안 좋아지는 건강신호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	생활 서비스 감소로 인한 불편함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블루의 경험	무기력한 일상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
	수시로 찾아오는 우울감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	코로나 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
	대학생 자원봉사 교육책자제작 도움

하나였던 노인정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못하면서 사회적인 활동기회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 주제모음 : 감소된 외출 빈도

“노인정도 안 되고 일단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경로당에도 다 못 모이고.”(참여자 B)

“줄어들었나만 없지. 경로당도 지금 우리 경로당은요. 나와서 놀라고 그러는데 백신안맞은 할머니 두 분이 계셔서 안 가요. 네 그래서 문을 잘 안 열어놔. 그래서요 열어놔도 안가.”(참여자 C)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참여자 E)

2) 주제모음 : 소원해진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아이 아무래도 좀 멀어지지 뭐”(참여자 A)

“그렇죠. 많이 생겼죠. 못 만나죠.”(참여자 B)

“전보다는 만나는 횟수도 적고 그냥 전화연락이나 좀 하고 그러죠 뭐”(참여자 E)

3) 주제모음 : 사회적 활동기회 부재로 인한 아쉬움

“뭐 배우러 다니는거 이러는 거는 못 다니는게 아쉽죠. 옛날엔 노래 교실 뭐 응? 그런거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못가니깐 좀 아쉽지.”(참여자 C)

“이제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걸랑요. 그것도 삭 없어졌죠, 노인네들 서예라든지 노래라든지 그것도 삭 없어졌어요.”(참여자 B)

“복지관에서 아직 운영이 안 되니깐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심심해서 있다 보면 집에서 어려움이 많지요.”(참여자 B)

2. 범주 : 과거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혼자서 식사를 챙기면서 식사와 질과 양이 부실해진다고 하였다. 외출이나 사회활동의 기회가 줄어들며 덩달아 운동량도 감소해지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증상 등을 느끼게 되었다.

1) 주제모음 : 부실한 식사

“식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못 먹어요.”(참여자 B)

“하루에 뭐 뭇할 때 뭐 저 다른 분식 같은 거 먹을 때는 하루 2끼 먹고 분식 같은 거 안할 때는 하루 3끼 먹고 그렇지.”(참여자 D)

2) 주제모음 : 운동부족

“옛날같이 활발하게 걷지도 못하고.”(참여자 B)

“아유 운동 같은 거는 뭐 걸어다니는.. 걷는 운동을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나 있는 곳엔 좀 걸어다니는 운동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길 차가 썩썩 많이 다니는데 운동 하러 다니는 것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해요.”(참여자 E)

3) 주제모음 : 안 좋아지는 건강신호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왜냐면은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해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렇죠.”(참여자 B)

“약이 안 먹는 것도 더 먹게 되고.”(참여자 B)

“건강이 안 좋아지고.”(참여자 B)

3. 범주 :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

참여자들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감소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감소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1) 주제모음 : 생활 서비스 감소로 인한 불편함

“미용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자들은 참 좋죠. 이 지금 있다가 없어졌어요.”(참여자 B)

“아파도 뭐 빨리 병원도 못 가고 옛날에는 코로나 없을 때는 차가 와서 안과에서 뭐 눈도 검사도 좀 해주고 약도 좀 주고.”(참여자 B)

“집에서 반찬 좀 해서 밥해서 먹어야 하고 그런 등등 어디 뭐 봉사하러 오다가 안 오고 또 뭐 아프니까 병원을 갈라니까.”(참여자 B)

“지금 다 노인 양반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염색도 못 하고 깎지도 못 하고.”(참여자 B)

2) 주제모음 :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라에서 조금씩 주고 하는데 그거는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해.”(참여자 B)

“경제는 조금 쪼이지 솔직히.”(참여자 D)

“코로나 이렇게 생기면서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어떻게 잘 안 됐고, 많이 그렇죠 뭐.”(참여자 E)

4. 범주 : 코로나 블루의 경험

참여자들은 줄어든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 소원 등으로 매일 매일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보내며 스트레스가 쌓임을 느꼈고 주취할 수 없는 화가 나거나 수시로 우울해 지는 경험을 하였다.

1) 주제모음 : 무기력한 일상

“활동을 잘 안하는게 재미있는 거는 별로 없고.”(참여자 E)

“텔레비전 주로 많이 보고.”(참여자 B)

“아..잠을 못 자서 애써요.”(참여자 B)

“그런 거는 tv 많이 보는 거는 많이 보지만 혼자 있으니까.”(참여자 C)

“아유~ 할머니가 무슨 컴퓨터를 이용해..그냥 텔레비나 보는 거지 전보다 그 전부터 텔레비를 많이 보지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참여자 E)

“아 무기력할 수 밖에 없잖아. 집에만 들어 앉아 있고 뭐 만나고 싶어도 못 가고 내가 나 같은 경우에 강릉에 와서 치료도 좀 받고 오고 또 강릉에 딸내 집도 좀 들리고 이러면 좋겠는데..그런 거 못하니까 무기력하고 모든 게 그냥 쳐져 있는 상태죠.”(참여자 E)

2) 주제모음 :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

“그거 스트레스 같은게 많이 쌓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많이 나고.”(참여자 B)

“네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화가 나서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참여자 B)

“진짜 억수로 스트레스 쌓였어.”(참여자 B)

3) 주제모음 : 수시로 찾아오는 우울감

“그거 스트레스 같은게 많이 쌓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많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도 가끔 가기도 해요. 우울증도 오고 해서.”(참여자 B)

“기분이 자꾸 우울하고 화가 나요.”(참여자 B)

“우리가 아주 백발이 되니까 더 뭐냐 우울한 거 같애.”(참여자 B)

5. 범주 :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좋아져 예전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된 생활 중에도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의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1) 주제모음 : 코로나 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

“소망주기 이런데서 활동할 수 있는거 서예라던지 어제 얘기했지만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거 이제 뭐 어느정도 노인네들은 다 맞았잖아요 독감도 맞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고 토요일에 한 번씩 밥도 주고 했어요. 그것도 있었으면 좋 겠고 좀 그래요.”(참여자 B)

“이제 복지관을 빨리 개통을 해야 여러 사람 모여서 웃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도 부르고 요가도 하고 그랬으면..”(참여자 B)

“여가생활은 이제 뭐 저기 어디 뭐 동사무소나 여기 뭐 소망주거나 거기 가서 이제 한바탕 쓰거나 한다던지 ㅎㅎ 요가를 한다던지 뭐 그런거죠 뭐.”(참여자 B)

2) 주제모음 : 워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

“아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뭐 괜찮겠네.”(참여자 D)

“이제 코로나가 좀 나면 여기 복지관이 있어. 그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하는 거 있어 거기 가서 뭘 하지.”(참여자 D)

3) 주제모음 : 대학생 자원봉사 교육책자 제작 도움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되죠.”(참여자 C)

“뭘 읽어본 것도 있고 안 읽어본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 있는 거 뭘 뭘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그렇게 해냈더니만 그래 인제 그런 거 보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안 좋았던 거는 별로 없어요.”(참여자 D)

IV. 논의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생활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본질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14개의 주제(theme clusters)와 5개의 범주(categories)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 경험은 ‘변화된 생활과 사회관계’, ‘과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 ‘코로나 블루의 경험’,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이었다.

첫 번째 범주는 ‘변화된 생활과 사회관계’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외출하는 것에 망설이게 되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해 감소된 외출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를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 지인과의 만남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노래 교실이나 서예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적 활동 기회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한 연구 결과에서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인과 7개의 하위 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김수봉, 2010). 그 결과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등을 포함한 하위 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생활 만족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수봉, 2010).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화된 생활과 관련하여 비대면으로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범주는 ‘과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으로 참여자들은 이전과 달리 식사량이 줄어들고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걷지 못하게 되며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 먹던 약도 더욱 섭취하게 되며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서 안 좋아지는 건강 신호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노화가 생리 기능, 건강 체력 및 만성질환 인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노화에 따른 기능 손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김완수, 2009). 또한, 중등도 강도의 신체활동은 노인의 개인별 질적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와 함께 노인의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김완수, 2009).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건강 관리가 어려워진 노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함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범주는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전에는 참여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서비스가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많은 참여자가 염색이나 미용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 서비스 감소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 경제활동 노인 5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108명이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사상지위 및 직종별로는 회사, 정부 등의 피고용자(31.5%), 가게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16.4%), 농어업종사자(4.4%) 순으로 나타났다(남궁은하, 2021). 경제활동 중단 이유를 피고용자(농어업종사자 포함) 및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용자의 경우 회사의 방역지침(41.4%) 또는 회사의 재정 문제(41.4%)로 나타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71.4%) 고객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가 사업체 운영 중단의 주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남궁은하, 2021). 본 연구결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노인의 일을 그만두게 만들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었다. 노인 피고용자의

경우 회사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일자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노인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직, 간접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방역원칙은 감염확대를 억제하는 방역지침을 유지하되 피고용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원칙을 고안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를 본 피고용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 범주는 '코로나 블루의 경험'이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집에서만 생활하고 TV 시청에 시간을 많이 쓰는 노인이 많이 보였다.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도 느끼는 노인도 흔히 보였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 우울함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성기욱, 김수진, & 문정화, 2021). 노인은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므로 감염 노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이에 비해 커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다. 직장생활이나 SNS 사용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경로당, 복지관 등 여가활동 장소 방문이나 종교활동 금지 여파로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졌다(성기욱, 김수진, & 문정화, 2021).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인간관계의 휴식을 구하고 자기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여가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과 노년기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제반 측면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Leitner and Leitner, 1985). 즉, 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의 기회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활발하고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정신적 건강의 증대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의 검토에 근거하여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소비적 여가활동보다 생산적 여가활동이 더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나왔다(김명숙 & 고종욱, 2013).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이 사회적 고립되어 집에서 TV 시청만을 하는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노인에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거리두기 인원에 적절한 소수 인원으로 종교, 사회참여 활동, 건강 및 스포츠 활동 등과 같은 생산적 여가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 TV에서 노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범주는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으로 노인들이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사무소 혹은 복지관 등에서 원래 하던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을 원했고 코로나 이전에 사람과 생활했던 것을 그리워했다. 코로나가 장기화에 따른 위드 코로나를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노인의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는 외로움, 일상생활 활동이 54%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서부덕 & 권경희, 2021).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의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동영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안부 전화, 말벗 서비스 등의 활동을 계획하여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과는 달라지면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보이는 노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을 보이고 있었다. 코로나19를 경험했기에 코로나19가 없었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그때와 똑같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노인의 사회관계를 개선하고 생활 서비스를 회복시키면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원주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기에 참여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생활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노인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변화된 생활과 사회관계', '과거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불편하고 어려워진 생활', '코로나 블루의 경험',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바람'의 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외출 빈도, 부실한 식사,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심호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과 무기력한 일상에 화가 나기도 하고, 수시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개념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토대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더 다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경험을 통한 우울감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Guba E. G, Lincoln Y. S.(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 & Bass Publication, 1-423.
- 질병관리청. (2020, October 21). [포스터/영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을 위한 생활 속 건강수칙 및 외부활동 건강수칙. Retrieved January 24, 2022, from <http://ncov.mohw.go.kr/searchBoardView.do?brdId=3&brdGubun=32&dataGubun=321&ncvContSeq=3931>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21, November 22). Risk for COVID-19 Infection, Hospitalization, and Death By Age Group. Retrieved January 24, 2022, fro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vid-data/investigations-discovery/hospitalization-death-by-age.html>
- 신혜리, 윤태영, 김수경 and 김영선. (2020).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 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5(4), 207-232.
- 김희숙. (2021).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노인 정신건강과 신체활동 실태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충청남도.
- 박인아. (2021). 코로나 위험 메시지에 대한 외식고객의 인지부조화가 정보탐색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수봉.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47(1), 95-111.
- 김완수. (2009). 고령화 시대 노인 운동의 중요성 및 방법. 인문과학연구, 33, 29-53.
- 남궁은하 (Namkung.and Eun Ha).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생활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00.- (2021): 71-84.
- 성기옥 (Seong Kiok), 김수진 (Kim Soojin),and 문정화 (Moon Junghwa).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2 (2021): 99-129.
- Leitner, M. J., and Leitner, S. F.(1985). Leisure in later life. Binghamton, NY: Haworth Press, 1985.
- 김명숙.and 고종욱.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가족 지지의 매개역할." 노인복지연구 0.60 (2013): 35-54.
- 서부덕, & 권경희. (2021).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감 영향 요인.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1), 54-63.

Abstract

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yunSeong Kim·Jisu Park·Suyeon Song·Daeun Park·Yuhee Choi·Donghun Koo·
Hyunbin Kim·Gaeun Son·Sujin Kang·Yujung Park·Gayoung Choi·Bomi Kim·
Taerin Lee·San Kim·Yujin Jo·Hajin Jeon·Sangmin Lee·Joohee Choi·Huijeong Lee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Jaehee Je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s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from 2020,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re expected to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provide support for the situation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nd to prepare a nursing intervention plan by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ife experiences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design of the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by apply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o understand the life experiences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five elderly people living in Wonju, who hear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course of the study, one-on-on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re conducted 1-2 times until the data on the 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were satura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80.2 yea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fe experiences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fter COVID-19, 14 theme clusters and 5 categories were derived. The themes derived from the summary of each category are 'Changed life and social relations', 'Difficulty maintaining the past health status', 'Inconvenient and difficult life', 'Experience of Corona Blue', 'Wish for recovery of daily life'. After the pandemic caused by COVID-19,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complain of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ir health, depression, and helplessness in their life experiences.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the wishes of the elderly who wished to return to normal life as soon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study subjects were limit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various variables may exist. In addition, we propose a program development study on what kind of emotional support and health care support can help the elderly to overcome their difficulti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which can be seen through life experiences.

Key words: COVID19, Life experience, Community, The elderly

이주민 사회통합의 이론적, 정책적 지형

김규찬(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이민정책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이론적, 정책적 지형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주민 사회통합(혹은 편입)은 국가별로 시민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기반하여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주민 사회통합 모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주의 안보화 경향과 함께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이민정책(외국인정책) 수립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련 정책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합의된 사회통합의 개념이나 논리가 없이 대상자별, 부처별 다양한 접근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이주민 사회통합의 의미와 정책지향에 따라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확대)하고, 이민정책과 사회정책 및 노동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통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시민권, 이주민 사회통합, 사회통합정책, 이민정책

I.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는 이주의 흐름과 이주민의 국내 체류 및 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강동관, 2020; Kim, 2017). 한국정부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외국인정책'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실상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경 및 이주민(immigrants)

관리에 관한 하는 '이민정책(migration policy)'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법무부, 2013: 7).

북미와 서유럽 등 이주민 유입과 정착의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는 국경관리와 함께 이주민들의 사회적 수용(inclusion) 혹은 통합(integration)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오랜 기간 시행해 왔고, 최근 국제이주와 안보 이슈가 결합되면서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Castles et al., 2020). 한국 역시 이주민 유입국가로의 전환의 역사가 30년이 넘어서

김규찬: gyuchankim@gwnu.ac.kr,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Bath에서 석사학위(MSc),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 이민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세계화, 국제이주, 이민·다문화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patterns of 'care migrantisation' in South Korea"(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017),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8), "Marriage 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Social Investment beyond the Nation State"(International Migration, 2018) 등이 있다.

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국경통제나 체류관리와 함께 체류 외국인의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이 갈수록 중요한 이민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개념과 이론 및 정책적 지형을 탐색함으로써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발전에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주민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 분야에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시민권과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 개괄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발전 과제를 제시한다.

II. 이주민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영역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이 지속되면 이민수용국의 인종적(racial), 민족적(ethnic), 문화적(cultural)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사회 내 다양성의 증가는 이주민 자신뿐만 아니라 유입국 사회의 전반에 상당한 변화와 긴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국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 증가에 대응하려고 한다(Aleinikoff and Klusmeyer, 2010; Hollifield et al., 2014). 새로 유입된 인종·민족 집단은 통상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표현형적(phenotypical), 문화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일부는 주류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몇 세대 이후에는 원주민(natives)과 거의 구별되지 않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도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 수용국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나아가 정치적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흔히 '통합(integration)'이라 일컫는다(Castles et al., 2020). 후자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방향성, 즉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주류 사회로 포섭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더 중립적

인 표현인 '편입(in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대안적으로 제안하기도 한다(Sainsbury, 2012). 비영어권 이주민 수용국 입장에서는 통합(integration)과 편입(incorporation)의 구별이 실질적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통합정책'의 많은 내용은 점진적 과정과 내외국인들 간의 상호조정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동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국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이주민 유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가리킨다. 달리 말해, 국제이민으로 증가하는 다양성이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로 이어지지 않고, 내·외국인 간 그리고 외국인 간에 상호 수용적 및 발전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정책이다. 주로 이민 유입의 역사(동시에 인종·민족적 갈등의 역사)가 긴 나라들이 사회통합 분야 정책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인종·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소수자(racial or ethnic minority)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와 선주민(natives) 간의 갈등이나 분리 등 통합의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통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 유입국에서 출입국정책 및 체류관리정책과 함께 이민정책(한국에서는 외국인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을 형성한다. 출입국정책과 체류관리정책은 어떤 유형(국적, 자격 등)의 외국인이 한 사회로 들어와 거주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출입국정책과 체류관리정책은 이주민의 거주와 활동의 권리 수준을 위계화(civic stratification)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수용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 즉 성원권(membership) 획득의 가능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장치가 된다(Kim, 2018; Morris, 2003). 출입국과 체류관리정책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권리의 위계구조 안에서 어떤 이주민들은 시민에 준하는 수준의 소속감과 권리를 향유하고, 어떤 그룹의 이주민들은 권리의 제한하에서 사회적으로 주변화된다.

통상 국민국가(nation-state)는 그 구성원(시민)이 하나의 성원권만을 보유할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주로 인한 시민권(‘국적’의 의미로서)의 상실과 획득, 이중(다중)국적과 무국적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민국가의 이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 훼손이나 나누어진 충성심(divided loyalty)과 같은 논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한 이주민이 이주한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속(감)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Bauböck, 1991; Morris, 2003). 즉,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주민은 새로운 국민(national)으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과 정책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예컨대, 한 나라의 국적법은 국민이 누구이며,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합법체류, 품행단정, 언어능력, 통합의 증거, 소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규정한다.

물론 이주민들의 일차적 관심사는 다른 주민들과 형식적으로 평등한 법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국적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민권의 형식적 차원이다. 그러나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고대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국가 형성된 이후에도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샬(Marshall, 1971)이 지적하듯 시민권은 역사적으로 성별과 계급관계에 따라 차등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주민이 비록 정착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형식적 시민권을 획득(즉, 귀화)한 경우라든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주류 사회에 통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출입국정책이나 체류관리정책과 같은 이민정책이나 국적정책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원만하고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예컨대,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분절적인

노동시장에서 이들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묵시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주류 사회와의 제한된 교류나 차별의 경험 그리고 제도적 관행(예를 들어, 집합주택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결합하여 이주민들은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미국이나 대륙유럽에서 발견되는 이주민들의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은 이주민 사회통합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인종차별적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통합의 장애물로서, 비록 국적을 보유하고 언어 등 주류 사회의 문화를 체화한 이민 2, 3세대 후손들조차도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비차별적이고 잘 고려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인종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 등이 모두 이주민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정책영역들이라 할 수 있다.

III.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모형

1. 시민권(citizenship) 모형

이주민을 주류 사회로 통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주민을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 국가가 국민 혹은 시민(citizen)을 규정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민을 정의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캐슬 외(Castles et al., 2020: 89)는 시민권(citizenship)의 이념형(ideal types)을 제국 모델(imperial model), 민족 혹은 종족 모델(folk or ethnic model), 공화주의 모델(republic model),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 제국모델(imperial model)은 동일한 권력자나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신민(subject)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에 대한 소속을 규정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관점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모델을 적용하여 대영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오토만제국 등은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었다. 예컨대 영국은 1981년에 국적법이 성립되어 처음으로 근

대적 유형의 시민권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 모델이 널리 인정되었다.

둘째, 민속 또는 종족 모델(folk or ethnic model)은 공동의 조상, 언어, 그리고 문화와 같은 민족성(ethnicity)에 근거하여 국민됨을 규정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민족적 소수자들(ethnic minorities)을 시민권 및 국민 공동체로부터 배제한다. 독일은 2000년에 새로운 시민권 법규를 도입할 때까지 이 모델에 속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민족적 모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공화주의 모델(republican model)은 국가(nation)를 헌법, 법률과 시민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공동체(political community)로서 정의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이주자들이 이민 수용국의 정치적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 문화를 흔쾌히 수용할 경우 이들을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공화주의적 접근의 기원은 근대 시민혁명으로 볼 수 있으며, 프랑스는 현대 이 모델을 따르는 가장 명확한 사례이다.

넷째,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은 공화주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 법률, 시민권에 기반을 둔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이민자들이 국법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종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원적 또는 다문화적 접근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지배적인 모델이 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여러 지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상의 이념형들에서 하나의 공통적 요소가 발견되는데, 이 모형들이 공히 시민이란 오직 하나의 국민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출신국을 떠나 온 이주자들이 정착국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충성심을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귀화를 통해 통합이 완성된다는 선형적 통합과정을 가정한다. 그러나 빈번하고 다방향적(multi-directional)인 이주 행태에 주목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이론은 기존의 단선적인 시민권 유형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단순히 시민과 비시민(non-citizen)으로 양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이민자들은 종종 시민권과 유사한 자격이나 권리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준시민권에는 장기체류의 권리, 근로 및 사업의 권리, 교육이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 정치적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보다는 권리가 많지만 시민보다는 권리가 적은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들어 내는데, 해머(Hammar, 2017)는 이러한 준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을 ‘데니즌(denizen)’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초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은 새로운 차원의 소속감과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Castles and Davidson, 2000). 예컨대, 유엔, 국제노동기구,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들은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킴으로써 특정 국가의 시민이든 아니던 모든 사람에게 일련의 시민적, 사회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Soysal, 1994). 이 경우 바우빅(Bauböck, 1991)이 말한 ‘초국가적 시민권’이 새로운 시민권의 유형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2. 이주민 사회통합(immigrant integration) 모형

앞서 소개한 시민권 유형별 차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의 유형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다. 카슬 외(Castles et al., 2020: 326-327)는 이주민이 유입국 사회로 편입되는 방식을 동화(assimilation),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하고 있다. 이주민 사회통합 모형이 분화되는 핵심적인 기준은 이주민이 ‘개인’으로서-문화적 차이나 집단적 소속감과 무관하게-편입되는가, 아니면 ‘공동체’로서-함께 모여 살며 고유의 문화, 언어, 종교를 유지하려는 종족 집단으로서-편입되는가이다.

첫째, 동화(assimilation)는 이민자가 일방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동화 모형에서는 이주민은 한 개인으로서 사회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족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러 이민유입국가들이

동화가 가지는 일방성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일방적 동화 대신 내-외국인 간의 일정한 상호조정(mutual accommodation)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목표는 지배문화로의 점진적이지만 완전한 흡수라는 점에서 동화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화주의적 시민권 모형을 가진 나라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가장 이러한 유형에 근접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모형은 이주민이 임시적으로는 필요에 의해 사회의 특정부문(특히 저기술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허용하나, 시민권과 정치참여와 같은 사회의 다른 부문으로의 접근은 통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초청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이 좋은 예이다. 이주민의 유형에 따라 수용과 배제의 영역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민자 편입 방식은 선호하는 이주민(예컨대, 백인이나 전문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로 활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적 편입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서유럽 백인만 수용하려던 전통적 이민국가들이나 비전문 외국인력들의 정착을 막으려는 초청노동자 제도 도입 국가들에서 구분배제의 원칙은 지속할 수 없었다.

셋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 편입모형은 이주민들이 수용국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순응하면서도 그들 고유의 언어, 문화,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채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접근방법이다. 1970년대 캐나다에서 유래한 다문화주의는 이후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적 편입모형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소극적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과 민족공동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나, 소수자 문화 유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 보지 않는다(예컨대 미국). 한편 적극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대표적으로 캐나다).

이상 설명한 이러한 모델들을 특정한 나라에 적용하여

정형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 편입모형은 정태적(static)이지 않으며,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편입모형이 공존할 수 있다(Bauböck and Rundell, 1998). 각각의 편입유형은 나름의 강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되므로 특정모형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컨대, 동화모형을 비판하고 통합주의나 다문화주의적 편입모형을 정착시킨 나라들에서도 초청노동자들의 들의 영구 정착이나 이민 후세대들의 부적응(테러 등)으로 인해 특히 다문화주의적 모형은 상당한 정치적 반발을 사고 있다.

IV.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지형

21세기 들어 기존에 북미와 서유럽 등 성공적인 다문화주의적 공존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하였던 나라들에서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의 사회적 고립과 주변화(marginalization)가 폭넓게 관찰되었다. 더불어 이주민(그리고 그 후손)이 관여된 테러 등의 극단화는 국내외 정치에서 이주를 '안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화주의적 모형을 정착시킨 국가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정책 노선을 취하였던 나라들에서도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활발히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마다 다소 표현과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낙관적이고 소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입장을 폐기하고,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를 보다 주류 사회로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내/외국인 간의 소위 '평행적 삶(parallel lives)'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민 유입이 가속화된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적 이민정책의 경향을 반영하며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내용을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성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1.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사회통합정책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성격을 갖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수립하지만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수립 및 추진되는 범부처적 정책 청사진의 성격을 갖는다. 2008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이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로 적시되었고, ‘사회통합’이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법무부, 2008: 8). 예컨대, 동포 우대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한민족 역량강화와 함께 “사회통합의 용이성”이 적시되었다(법무부, 2008: 10).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럽국가들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을 예로 들며 이민자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법무부, 2013: 17). 또한 국내에서도 반다문화 현상 대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법무부, 2013: 18-19).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에 있어 대상자별 편중이나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 그리고 외국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법무부, 2018: 2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합’은 한국의 이민정

책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이주민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의 강조점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주민의 적응지원을 강조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부터는 이주민의 자립과 자발적 통합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기초는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정책 수립시의 국제적 정세나 국내 환경을 반영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 중에 결혼이민자와 자녀, 그리고 우수 동포와 인재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혹은 영구적으로) 체류하게 될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순환 원칙에 의해 유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에서 대체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통제나 관리의 대상이지 통합을 위한 지원의 대상은 아니라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 입장으로 인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이민자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한 복지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립과 역량강화도 소위 ‘다문화가족’¹⁾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문화교육정책(학생 대상)이나 다문화 수용성 정책(내국인 대상)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선언적 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띤다.

〈표 1〉 한국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사회통합 분야 정책

	제1차(2008-2012)	제2차(2013-2017)	제3차(2018-2022)
정책목표	질 높은 사회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자료: 법무부(2008; 2013; 2018)에서 저자 취합 정리

1)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2. 사회통합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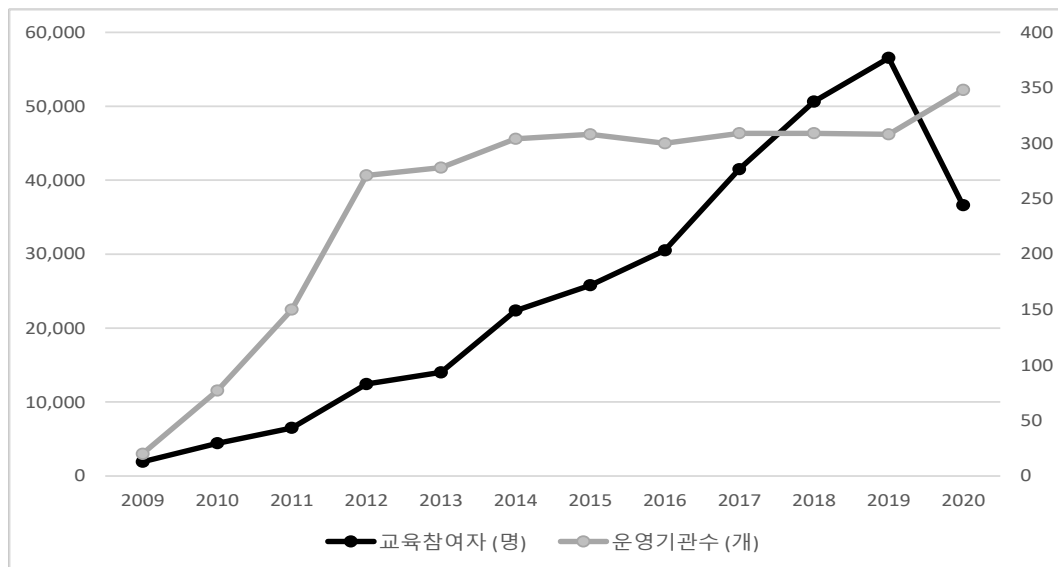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어 운영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주민 사회통합제도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이하 KIIP)²⁾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취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과목으로 5단계 최대 415시간으로 구성)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강동관, 2020). KIIP의 대상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적인 체류외국인과 귀화인이다(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KIIP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권,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과 협력하여 ‘한국사회이해과정’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담당할 ‘다문화사회전문가(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마련하였다(법무부, 2013: 44).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이민

(F-6)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장결혼이나 결혼이민 후 부적응, 갈등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방문취업(H-2)이나 외국국적동포 등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소하긴 하였지만, 2009년 도입 이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최근에는 일반이민자(비결혼이민자)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주민 사회통합의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애초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차원에서 기획되었기에, KIIP 이수의 혜택이 주로 영주자격이나 귀화 신청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근로자가 장시간의 KIIP에 참여할 유인은 낮으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과 같이 매우 간소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프로그램들만 듣고 한국사회로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미는 사회통합정책의 한 요소로서

〈그림 30〉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적 추이



2)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https://www.socinet.go.kr>) 참조 바람.

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V.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특성과 발전과제

시민권 및 이주민 편입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이주민 유입국가로서 한국의 시민권 유형은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모형(ethnic model)에 가깝고, 이주민 사회통합 방식은 구분배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혼재되어있고, 대상별로도 성격이 상이하다. 요컨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한국 문화로의 원활한 동화(그리고 동화를 위한 지원)를, 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는 다문화주의적 태도(수용성)를 강조한다. 한편 노동이민자 등에 관한 정책들은 대부분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배제적 성격이 강하다(강수정·이민정, 2017).

물론 서구에서 개발된 분석 프레임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가를 특정 모형으로 정형화하거나 특정 통합모형이 우월하다는 식의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복합적 성격은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방향이 없이 각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나름의 이주민 사회통합을 이해, 구상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 있다(한진수, 2016).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후발 이민국가로서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통합모형(예컨대, 다문화주의 모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과연 한국사회는 누구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별적으로 수용-배제한다면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논리로써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방향을

갖는 것인지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는 원하는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이주민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과 논리가 보편적 인권과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서 보듯이 오히려 사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많은 부당한 고통과 정치적 반발을 낳게 된다(Blake, 2020 참조).

그 다음으로는 사회통합정책은 정책의 목적상 외국인 과 내국인을 포괄해야 하기에 양방향적이며, 소수자들의 사회, 문화, 노동, 정치 등 사회 제 분야에서의 주변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면적/다층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몇몇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주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분리되어 각자의 삶을 평행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조화롭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독립된 정책영역으로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차용호, 2009).

참고문헌

Aleinikoff, T Alexander and Klusmeyer, Douglas (eds) (2010).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Bauböck, Rainer (1991). ‘Migration and citizenship’.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18(1), 27-48.

Bauböck, Rainer and Rundell, John F (eds). (1998). *Blurred boundaries: Migration, ethnicity, citizenship*, Aldershot: Ashgate.

Blake, Michael (2020). *Justice, Migration, and Mer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stles, Stephen and Davidson, Alastair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Basingstoke: Palgrave.

Castles, Stephen, De Haas, Hein, and Miller, Mark J. (2020).

-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6th ed.). London: Red Globe Press.
- Hammar, Tomas (2017). *Democracy and the nation state*. London: Routledge.
- Hollifield, James F., Martin, Philip, and Orrenius, Pia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3r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m, Gyuchan (2017).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 Kim, Gyuchan (2018).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3), 68-96.
- Marshall, T. H. (1971).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ris, Lydia (2003). *Managing migra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London: Routledge.
- Sainsbury, Diane.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강동관 (2020).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20-08, 이민정책연구원.
- 강수정·이민정 (201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동향과 실태 고찰. 「외국어교육」, 24(1), 279-321.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Retrieved from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36942/download.do>
- 법무부 (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Retrieved fro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864043>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Retrieved from <http://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
- 차용호 (2009).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3(1), 165-200.
- 한건수 (2016). '이민과 사회통합', 이해경,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편), 「이민정책론」 (pp. 193-223). 서울: 박영사.

Abstract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theories and policies

Kim, Gyuchan

(Assistant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aper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olicy terrain of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which gains ever growing attention in the field of immigration policy over the recent years. Immigration countries have evolved varied immigrant social integration(or incorporation) models, reflecting their historico-cultural legacies on citizenship. Despite such varieties of immigrant integration models, most countries are now similarly stressing out more active integration efforts in the midst of backlash of multiculturalism and the securitization of immigration issues. South Korea has also established 'integration' as a key axis of immigration policies and deloyed numerous programs accordingly. However, lacking consented understandings of integration and policy directions,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polices of Korea contains various, yet unharmonized policy elements. To overcome such shortcomings, building upon solid and acceptable policy rationales, the government should broaden the integration policy scope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s of social policies and labor market policies with immigration policies.

Key words: Citizenship,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재형·김영현·박채희·배규리·서지인·전명훈·정지호·하수성·호혜진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사과정),
이한나(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Purpose: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Method:** 본 연구는 G도, S시, I시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02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Result:**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의존도($r=-.42, p<.001$), 수면의 질($r=-.26, p<.001$) 및 우울($r=-.463, p<.001$)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5.32,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R2)는 .271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beta=-.336, p<.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beta=-.281, p<.001$)로 나타났다. 우울이 높을수록($B=-.716$)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B=-.681$) 학습에 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향후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의 건강한 스마트폰의 사용, 양질의 수면, 우울을 관리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수면, 우울, 학습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졸업 후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박현주, 2017). 이 기간 동안의 학업성취도의 부진은 이후 전문가로서의 과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습자의 학습역량과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신장시킬

이한나: hannalee@gwnu.ac.kr,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간호정보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교육 등이다.

수 있도록 학습에 몰입하는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학습 몰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선화, 박상연, 2014). 학습몰입이란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 학습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으로, 학습활동에 대한 열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아영 외, 2010). 이러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희동, 김중윤, 2021). 그러나 최근 Coronavirus disease(COVID-19)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비대면 학습을 시행하고 있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동, 김중윤, 2021)

학습몰입에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영향을 줄 수 있다(최현석 외, 2012; 강현임 외, 2020; 동아일보,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최현석, 2012).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가상세계에 지나치게 빠져들게 만들으로써 일상생활장애와 더불어 금단현상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학습 등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고 하였다(강현임 외,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에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체 23.3%로 전년(20.0%) 대비 3.3%포인트 늘어나 COVID-19 상황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21).

한편, 수면도 학습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는데, 수면부족이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지각, 학교 수업에 장애, 학업성적의 저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원, 2015). 또한 수면 장애는 COVID-19 시기 이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2020년 3월~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진 이후 909쌍의 성인 쌍둥이를 대상으로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스트레스와 수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Tsang

et al, 2021) COVID-19 대유행 초기 몇 주 동안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09쌍의 쌍둥이 중 62.7%의 참가자들은 극적인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겪었다고 답해 COVID-19 상황에서 수면, 학습몰입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또 하나의 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만사에 의욕과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행동,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 장애를 가져온다(김동욱 외, 2020). 이와 같은 반응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유발하며, 우울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김영숙, 2018)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과 외출,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아 우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연령인 20~30대의 우울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관련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각각 제시되어 왔으나 COVID-19 상황에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변수가 그동안 함께 연구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대학생의 학습성과 증진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변인을 원인 변수로 하여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 대상자는 G도, S시, I시에 위치한 4개 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197명이다.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서에 서명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 (Faul et al., 200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0%, 효과 크기 0.10, 예측변수 3개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76명이 적절하나, 탈락률 약 15.0%를 고려하여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응답자는 총 200명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197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신광우 외, 2011)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별 1~4점으로 되어 있으며, 총합 10~40점의 값을 가진다. 일반군(총 10~23점), 잠재위험군(총 24~28점), 고위험군(총 29~40점)으로 분류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2)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는 Buysse 등(Buysse et al, 1989) 이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의 한국판(PSQI-K)을 사용하였다(Sohn et al., 2012). PSQI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평소의 수면 효율, 수면 방해, 수면제 약물의 사용, 주간 기능장애의 7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항목 중에서 수면 잠복기 항목은 주관식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각 세부 항목은 해당 항목 당 0~3점의

점수값을 갖게 되며, 수면 잠복기를 제외하고 척도의 점수는 0~18점으로 된다. PSQI 총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한국어판 수면의 질 지수에서는 8.5점을 기준으로 전체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good sleeper (적절하게 수면을 취한 경우)', 8.5점 이상인 경우를 'poor sleeper (적절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은 Beck(1967)의 우울척도로, 설문을 통해 개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하여 우울의 중증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감정적 증상, 인지적 증상, 신체적 증상으로 나누어지며, 0~3점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한다. 문항은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값은 0~63점으로 산출될 수 있다. 측정결과 의미는 0~9점이 정상이고, 10~15점은 경한 우울증, 16~22점은 중등도 우울증, 23~63점이 심한 우울증을 나타낸다. 10~15점에 해당하는 자는 주의가 필요하고, 16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4)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2010)이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Csikszentmihalyi (1990)가 제시한 몰입의 9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도전·기술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지각 일치,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식, 변형된 시간감각, 자기목적적 경험까지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3~4개의 문항이 존재하며, 총 문항은 29개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값은 29~1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몰입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65~.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글폼 설문지를 이용하여 배포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02일 까지이다.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인원, 연구과정, 연구기간, 자율성,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 철회 등을 설문 앞에 설명서로 넣어 명시하여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은 '다음' 버튼을 눌러 설문을 시작하도록 했다. 설문지 작성에는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인 통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익명성이 보장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한 도중에도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여성이 157명 (79.7%)으로 남성 40명(20.3%)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만24세 이하 174명(88.3%). 만25~28세 20명(10.2%), 만29세

이상 3명(1.5%) 순서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38명 (19.3%), 2학년 41명(20.8%), 3학년 50명(25.4%), 4학년 68명(34.5%)으로 4학년이 가장 많았다. 직전 학기 성적은 전체 응답자 197명 중 결측 15명(7.6%)을 제외한 182명 (92.5%)을 분석한 결과 2.5 미만 5명(2.5%), 2.5~3.0점 10명(5.1%), 3.1~3.5점 46명(23.4%), 3.6~4.0점 69명(35.0%), 4.1~4.5점 52명(26.4%)으로 3.6~4.0점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학습몰입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의존, 수면의 질, 우울과 학습몰입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의존은 응답범위 10~38점 사이에 평균 24.7±6.34점이었고, 수면은 응답범위 0점~12점 사이에 평균 6.02±2.42점이었다. 우울은 응답범위 0~41점 사이에 평균 12.30±7.21점이었고 학습몰입은 응답범위 29~116점 사이에 평균 68.07±15.37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의존, 수면의 질, 우울과 학습몰입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수면의 질, 우울과 학습몰입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학습몰입은 성별 (F=-.251, p=.07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습몰입은 학년 별(F=.202, p=.89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습몰입은 성적 별(F=2.942, p=.02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습몰입은 수면의 질(F=4.445, 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의존도(F=12.0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로 사후분석을 한 결과 일반군

Table 1. Degree of Variables

(N=197)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smartphone dependence	10~40	24.07±6.34	10	38
quality of sleep	0~18	6.02±2.42	0	12
depression	0~63	12.30±7.21	0	41
learning flow	29~116	68.07±15.37	29	116

(M=72.88)은 고위험군(M=60.50)보다 학습몰입이 더 높았다. 또한 학습몰입은 우울(F=15.2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로 사후 분석을 한 결과 정상(M=76.56)이 경한 우울증(M=64.23)보다 학습몰입이 더 높

았으며(p<.001), 정상이 중등도 우울증(M=64.00)보다 학습몰입이 더 높았고(p<.001) 정상이 심한 우울증 (M=57.44)보다 학습몰입이 더 높았다(p<.001).

Table 2.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of subjects

(N=197)

Variables		n(%)	M±SD	t/F	p
Gender	Male	40	67.53±18.66	-.251	.076
	Female	157	68.21±14.48		
Grade	1	38	69.47±14.66	.202	.895
	2	41	68.46±12.98		
	3	50	68.00±18.31		
	4	68	67.10±14.97		
School record	<2.5	5	63.80±21.58	2.942	.022
	2.5~3.0	10	75.40±20.99		
	3.1~3.5	46	62.00±14.62		
	3.6~4.0	69	68.17±15.08		
	4.1~4.5	52	70.98±14.18		
Smartphone dependence	General group	93	72.88±15.37	12.02	<.001
	potentia risk group	54	66.80±11.63		
	High risk group	50	60.50±15.85		
Quality of sleep	good sleeper	166	69.06±15.26	4.445	.036
	poor sleeper	31	62.77±15.10		
Depression	normal	72	76.56±14.94	15.23	<.001
	mild depression	71	64.23±12.13		
	moderate depression	36	64.00±14.63		
	severe depression	18	57.44±15.00		

4. 대상자의 학습몰입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의존도(r=-.42, p<.001), 수면의 질(r=-.26, p<.001) 및 우울

(r=-.46, p<.001)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수면의 질(r=.24, p<.001), 우울(r=.40, p<.001)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면의 질은 우울(r=.47, p<.001)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flow and other variables

(N=197)

Variables	learning flow	smartphone dependence	quality of sleep	depression
	r(p)	r(p)	r(p)	r(p)
learning flow	1			
smartphone dependence	-.42 (<.001)	1		
quality of sleep	-.26 (<.001)	.24 (<.001)	1	
depression	-.46 (<.001)	.40 (<.001)	.47 (<.001)	1

5. 연구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학습몰입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동시입력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독립변수는 스마트폰 의존도, 수면의 질, 우울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오차항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P-P 도표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를 보였으며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도표를 확인한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을 검토한 결과 1.901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190~1.447로 10보다 작았고, 공차한계(Tolerance)는 .69 ~ .84로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5.32,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R²)는 .271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β =-.336, p<.00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β =-.281, p<.001)로 나타났다. 우울이 높을수록(B =-.716)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B =-.681) 학습에 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を対象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의 질,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군은 고위험군보다 학습몰입이 더 높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최동원, 2015)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정도와 학습몰입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김은엽, 박래웅, 2015)에서도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습장애가 높게 나타나 학습몰입에 방해가 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이 COVID-19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고를 근거로 할 때(동아일보, 2021),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확인하고, 의존 정도에 따른 중재를 해야 함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핸드폰 앱 등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학습몰입은 우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인 대상자에 비해 경한 우울증, 중등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 대상자보다 학습몰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김영숙, 2018)에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the learning flow

(N=19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94.53	4.017		23.53	<.001
quality of sleep	-.208	.441	-.033	-.472	.637
smartphone dependence	-.681	.161	-.281	-4.223	<.001
depression	-.716	.156	-.336	-4.581	<.001

Durbin-Watson=1.99, F=12.24, p<.001, R²=.380, Adj-R²=.349
Tolerance=.58 ~ .95, VIF=1.054 ~ 2.059

서 학습몰입과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김동욱 등(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습몰입이 우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결국 우울성향이 높은 학생은 학교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학습몰입이 어려워져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Stankov, 2013) 우울의 위험도가 높은 학생들을 적기에 발견하여 우울 관리, 학업 적응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COVID-19 상황에서 20~30대의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지 외, 2017). 스마트폰 작동 시 노출되는 전자기장이 수면장애, 두통,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황경혜 외, 2012).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을 매개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김경희, 2016), 우울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전호선, 장승욱, 2014)도 보고된 바 있어, 스마트폰의존, 수면, 우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습몰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의존도, 수면의 질, 우울과 학습몰입의 연관성을 이해시키고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을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 정도, 수면의 질, 우울 등과 관련된 자가진단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기통제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대학생의 자기통제능력을 기르기 위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우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개발하도록 권유하고, 부정적 정서를 자신에게 맞는 완화요법으로 조절하여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보건소 등 기관에서는 대학생들의 여가활

동을 개발하고, 그 활동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의 질, 우울 등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속해서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개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 변수에 비중을 더 두고 연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속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치는지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 S시, I시에 소재한 4개 대학의 대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우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양질의 수면, 우울을 관리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VI. 참고문헌

- 강현임, 차진경, 오희(2020). "스마트폰 중독 간호대학생의 경험",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집: 1-19.
- 김경희(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을 매개로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3집: 379-404.
- 김동욱, 이혜진, 이아영(2020).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 대인관계 및 학습몰입의 관련성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집: 349-357.
- 김선화, 박상연(2014).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집: 1557-1565.
- 김아영, 탁아연, 이채희(2010).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4집: 39-59
- 김영숙(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주간졸림증, 우울

- 및 학습몰입”,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집: 867-883.
- 김은염, 박래용(2015).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학습장애, 우울증 및 주의력결핍장애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집: 7599-7606.
- 김희동, 김종윤(2021).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3집: 492 - 503.
- 《동아일보》, “코로나에 더 심해진 ‘스마트폰 중독’ 4명중 1명 꼴...청소년층이 제일 심각”(2021. 03. 10).
- 박현주(2017).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 『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7집: 79-88.
- 이은지, 김윤경, 임수진(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간호학회지』 제23집: 525-533.
- 전호선, 장승욱(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집: 103-129
- 최종원(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신체활동량, 수면의 질, 주의력 조절 및 자기조절학습”,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집: 429-437.
-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2012).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집: 1005-1015.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2020. 10. 14). 신광우, 고정현, 엄나래(2011). “스마트폰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집: 365-375.
- Aaron T. Beck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Daniel J. Buysse, Charles F. Reynolds, Timothy H. Monk, Susan R. Berman, & David J. Kupfer (1989).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 new instrument for psychiatric practice and research”. *Psychiatry research* 28(2):193-213.
- Franz Faul, Edgar Erdfelder, Albert-georg Lang, & Axel Buchner(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175-191.
- Lazar Stankov, Suzanne Morony, & Yim Ping Lee (2013). “Confidence: the best non-cognitive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34(1):9-28.
- Mihaly Csikszentmihalyi(1990). “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Perennial.
- Seung Il Sohn, Do Hyung Kim, Mi Young Lee & Yong Won Cho (201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iip quality index”, *Sleep breath* 16(3): 803-812. <https://doi.org/10.1007/s11325-011-0579-9>
- Siny Tsang, Ally R. Avery, Edmund Y.W. Seto & Glen E. Duncan (2021). “Is COVID-19 Keeping us Up at Night? Stress, Anxiety, and Sleep Among Adult Twins”. *Frontiers in neuroscience*. 15:665777.

Abstract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learning flow in university students of non-face-to-face class in COVID-19 situation

Jaehyeong Lee·Yeonghyeon Kim·Chaehui Park·Gyuri Bae,
Jiin Seo·Myeonghun Jun·Jiho Jung·Suseong Ha·Hyejin Ho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Lee, Hanna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way to increase the learning flow by examining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learning flow i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xperiencing non-face-to-face class in COVID-19 situation.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97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G, S, and I cities,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26, 2021 to May 02, 2021. The processing of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2.0 statistical program. **Result:** Learning commitment was related to smartphone dependence ($r=-.42$, $p<.001$), sleep quality ($r=-.26$, $p<.001$) and depression ($r=-.463$, $p<.001$).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ression model, the regression model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25.32$, $p<.001$), The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R²) indicat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71. The depression ($\beta=-.336$, $p<.001$) was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ubjects' learning flow, followed by smartphone dependence ($\beta=-.281$, $p<.001$). . The higher the depression ($B=-.716$), the higher the smartphone dependence ($B=-.681$), the more difficult it was to learning flow.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to manage college students' healthy smartphone use, quality sleep, and depression.

Key words: Depression, Learning, Sleep, Smartphone

보건복지연구

인쇄일 : 2021년 12월 24일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 소장 전재희

편집인 : 학술부장 김현정

 기획부장 박수지

 위원 박선아

 위원 김규찬

발행처 :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주 소 :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전 화 : 033-760-8907

팩 스 : 033-760-8641

이메일 : jin1042@gwnu.ac.kr

출판등록: 2016년 10월 4일 제 419-2016-000024호

ISSN : 2508-6529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